

2023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연구계획서

세부유형	순수학문연구형 - ① 논문/저역서					
신청기관	대학(기관)	단국대학교				
	연구소명	고대문명연구소	소재지	수도권		
연구분야	구분	연구분야-1	연구분야-2	연구분야-3		
	분야	중동사(고대 근동)	중국고대사			
	비율	50	50			
연구과제명	국문	고대 근동과 중국 문헌 전통의 물줄기				
	영문	The Stream of Textual Traditions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China				
연구책임자	소속	단국대	직위	교수	성명	심재훈
	사무실 전화	03180053012	핸드폰	01082476438	E-MAIL	js527@dankook.ac.kr
실무담당자	소속	단국대	직위	강사	성명	김석진
	사무실 전화	03180053030	핸드폰	01093102918	E-MAIL	bingley314@daum.net
주관기관담당자	부서명	산학협력단	성명	이수희	사무실 전화	03180052185
연구규모	신청연구비	구분		연구비	대학(기관) 대응자금	
		1단계	1차년도	130,000천원	13,000천원(10%)	
			2차년도	260,000천원	26,000천원(10%)	
			3차년도	260,000천원	26,000천원(10%)	
		2단계	1차년도	260,000천원	26,000천원(10%)	
			2차년도	260,000천원	26,000천원(10%)	
			3차년도	260,000천원	26,000천원(10%)	
	4차년도		130,000천원	13,000천원(10%)		
	계		1,560,000천원	156,000천원(10%)		
	참여인력	구분		인원		
일반공동연구원		3명				
전임연구인력		3명				
합계		6명				
※ 전임연구인력 : 총 (3)명 중 현재 (2)명 확보						

본인은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사업 관련 법령 및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고,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작성자	연구책임자	심재훈 (인)
-----	-------	---------

교육부 장관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 연구 요약

<p>연구목표 (한글 2,000자 이내)</p>	<p>이 연구는 동서양 문명의 토대인 고대 근동과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류의 글쓰기 문화가 어떻게 생겨나 어떤 과정을 거쳐 초기 문헌 전통으로 확립되어갔는지 비교 검토하려고 한다. 두 전통의 핵심인 서사시, 지혜문학, 종교 비문(이상 근동), 역사, 『상서』류, 사상 관련 문헌(이상 중국)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p> <p>두 지역의 문헌 전통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산문 같은 문학, 신화전설을 포함한 역사, 신과 인간에 대한 지혜를 담은 사상, 미래를 예측하는 점복(징조) 등 여러 장르를 공유한다. 두 전통의 형성과정에도 보편성이 확인된다. 독일의 이집트학자인 얀 아스만(Jan Assmann)은 무문자사회의 집단 기억이 축제나 제사와 같은 의례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문자의 발명과 함께 문헌이 태동한 시기에도 무문자사회의 이러한 “의례적 일관성”이 텍스트의 형성을 이끌다, 특정 유형을 갖춘 규범적 텍스트들이 대거 출현했다고 한다. 그는 아시리아 연구자 레오 오펜하임(Leo Oppenheim)의 표현을 빌려 기원전 제2천년기 후반부터 근동에서 나타난 다양한 장르의 문학들이 분출한 현상을 “전통의 물줄기”(stream of tradition)라고 묘사했다. 이 물줄기는 다양한 자료를 실어 나르는 변화무쌍한 유기적 흐름으로, 여러 갈래의 텍스트 중 일부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전사되고 인용되어 중요성을 인정받는다. 결국 “의례적 일관성”이 “문헌적 일관성”으로 대체되는 것과 함께 다양한 정치·문화·종교적 요인으로 인해 그 물줄기가 댐으로 막히는 경(정)전화(canonization)라는 마감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이다. 중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부합한다. 상과 서주시대의 갑골문과 청동기 금문 등 의례용 텍스트가 초창기 근동 문헌처럼 “의례적 일관성”의 성격이 강하고, 전국시대 楚簡은 문헌의 붓물이 터진 “전통의 물줄기”에 해당한다. 그 전통의 물줄기는 결국 한대에 경전화된다.</p> <p>오펜하임의 “전통의 물줄기”에서 착안한 이 연구는 고대 근동과 중국의 주요 문헌들을 선별하여 그 전통의 물줄기가 형성-정리되는 과정을 “생성”, “확산과 저장”, “마감”의 세 단계로 고찰하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p> <p>(1) 고대근동학 토대 구축: 고대근동학은 세계 고대문명 연구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소외된 연구 분야에 머물러 있다. 본 과제는 이 분야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p> <p>(2) 중국 출토문헌 연구 심화: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중국 출토문헌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진 저본에 대한 해석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문제의식에 입각한 연구 결과와 관련 담론을 세계 학계에 내놓는 데 일조할 것이다.</p> <p>(3) 문헌 전문가 배출: 인문학, 특히 고대문명의 연구에서 가장 기본은 문헌 연구이다. 이 과제는 국내에서 여전히 생소한 문헌학을 학문 분과로 자리 잡게 하고, 두 핵심 문명의 주요 문헌 전문가를 배출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p>
--------------------------------	--

	<p>(4) 고대문명 비교연구: 지금까지 문자와 고대국가 발전과 관련된 비교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지만, 문헌에 대한 비교연구는 드문 편이다. 본 연구팀 구성원은 각자가 전공하는 문헌 역주에 일차적으로 집중하며, 그 결과를 다른 전공 연구자들과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얻게 될 다른 문명의 유사 문헌에 대한 이해를 각자의 주제 연구에 활용할 것이다. 예컨대 초간을 비롯한 고대 중국의 문헌 형성사와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된 고대 근동의 사례가 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고대 중국의 다양한 사례 역시 근동 문헌 연구의 시야를 넓혀줄 것이다.</p>
<p>기대효과 (한글 2,000자 이내)</p>	<p>(1) 이슬람을 넘어서: 한국인은 대체로 근동 혹은 중동에서 이슬람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슬람 이전에 근동은 문자와 종교, 법, 도시, 국가, 제국 등을 산출하며 세계 문명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중동 지역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p> <p>(2) 학술 역량의 토대 구축: 현재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러나 학술, 특히 인문학 분야에서 그에 걸맞은 위치에 도달했는지 아쉬운 면이 있다. 기초 역량의 부족이 여러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수학과 물리 같은 기초 과학의 토대 없이 응용 학문이 성장할 수 없듯이, 인문학 역시 문헌학 같은 토대 없이 세계적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세계 학계가 주목하는 고대 근동과 중국의 기반 문헌 연구는 인문학의 기초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헌들을 한국 연구자의 시각에서 심도 있게 구명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이러한 인문학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학술 역량의 토대를 굳건하게 해주어, 궁극적으로 사회문화·경제적 발전에도 공헌할 것이다.</p> <p>(3) 한국 인문학의 세계화: 인문학이 경제적 가치 창출로 직결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 인문학의 세계화가 작은 돌파구는 마련해줄 것으로 본다. 현재 과학계는 세계적 차원에서 학문의 장이 형성되어 있다. 인문학 연구는 아직 지역성이 강하지만, 기계 번역을 비롯한 디지털 학술의 발전이 점차 인문학의 탈지역화를 추동해나갈 것이다. 한국에서 고대 근동과 중국 연구의 저변이 약한 상황에서도, 본 연구팀의 구성원들은 국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인문학의 세계화를 선도하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일조할 것이다.</p> <p>(4) 출토문헌 연구의 확대를 위한 토대 제공: 고대 근동과 중국 지식인들의 지적 활동과 문화적 성취를 이해하는 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던 출토문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본 연구는 고대 사상과 문화를 분석하는 작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추구할 ‘문화적 기억’, ‘문헌의 구전과 서사 전승’, ‘의례 중심 텍스트에서 문학적 문헌으로의 전이’, ‘문헌 생산과 그 구성의 문법’, ‘특정 문헌이 주체로서 그 세계를 형성해가는 동력’ 등과 같은 이론적 접근 역시 출토문헌에 대한 관심과 후속 연구를 촉발할 것이다.</p> <p>(5) 고대문명 비교연구의 시발점: 문자와 언어, 문헌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고대문명 연구의 핵심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연구소의 취지에 맞게</p>

	<p>세계사적 보편성을 염두에 두고 비교연구를 지향할 것이다. 문명 비교연구는 한 지역의 자료 습득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문헌이 생산된 특정 지역의 사회와 문화 및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진행되는 비교연구는 연구 대상 텍스트를 물적으로 대상화하는 문제점을 낳는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일차적으로 근동과 중국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가 여타 지역 문명 연구자들과의 교감을 통해 최소한 고대 문헌 형성에 관한 한 비교연구의 물꼬를 틀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p>
<p>연구요약 (한글 2000자 이내)</p>	<p>본 연구는 2부, 3단계, 7항목으로 나뉜다. 제1부는 핵심 문헌들에 대한 언어학적 역주 작업이다. 제2부는 역주 대상 문헌에 대한 텍스트 분석이다. 고대 근동과 중국의 초기 문자 언어 문화는 의례적 성격이 강했다. 고대 근동에서는 기원전 제2천년기~1천년기에, 중국에서는 전국시대(기원전 5세기) 초간 단계에 와서, 여러 지역의 전문적 필사 집단을 주체로 한 다양한 문헌이 생산된다. 본 연구팀은 그 중 ① 서사시, ② 지혜문학, ③ 종교 비문(이상 근동), ④ 역사, ⑤ 상서, ⑥ 사상(이상 중국)의 여섯 장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단계별로 ⑦ 근동과 중국 문헌 발전의 특정 양상을 비교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p> <p>고대 근동과 중국의 문헌 형성사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면 시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① 생성 ② 확산과 저장 ③ 마감(표준화, 경[정]전화)의 3단계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이 3단계가 본 연구의 기본 틀이다. 현재까지 본 연구에서 다룬 상당량의 문헌이 정리되었다. 이들 중 단계별 연구의 핵심 문헌들을 역주 대상으로 선별하여, 언어-문자학적 해독 모식을 갖춘 역주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p> <p>① 생성: 문자의 기원에서 위의 여섯 유형 문헌의 연원까지 다루려고 한다. ① 근동 서사시의 경우 그 원류 탐색의 일환으로서 길가메쉬의 전신인 빌가메쉬의 수메르어 사본을 검토할 것이다. ② 지혜문학 역시 그 원류가 된 고대 書記 학교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수집한 속담들을 살펴볼 것이다. ③ 종교 비문의 경우 주변부 기록 문화의 기원과 변이를 통해 중심부 기록 문화의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④ 중국 역사류는 갑골문 記事刻辭와 정보성 금문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역사적 기억이 최초로 성문화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⑤ 상서류는 『상서』의 원류인 서주 冊命 금문을 텍스트 권력 주체의 측면에서 다룰 것이다. ⑥ 사상류는 종교적 의례 활동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갑골문을 중심으로, 점복 및 종교적 의례 활동 그 자체가 문자 언어 생성과 발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음을 구명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⑦ 동서문명 비교에서는 고대 근동과 중국 문헌 장르 구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교차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p> <p>② 확산과 저장: 본 연구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근동과 중국 문헌 전통의 물줄기가 발전하는 다양한 면모를 분석할 것이다. ① 서사시는, 길가메쉬 이야기에 나타나는 점술의 문학적 기능, 기원전 제2천년기 사본들에 대한 분류와 연구, 길가메쉬에 등장하는 홍수 이야기의 변화와 발전을 다</p>

	<p>를 것이다. ② 지혜문학은, 고대 수메르어 속담들을 목록과 모음집으로 편집한 과정, 이를 후대 아카드어로 번역하며 선별한 속담들과 거기에 반영된 세계관을 검토할 것이다. ③ 종교 비문은, 고대 근동 종교 문헌의 역사적, 지리적 특징과 함께 축문 형식과 신들의 이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④ 역사류는, 초간 譜牒類·紀年類·檔案類·古事類의 문헌 분석을 통해 역사서 생산의 전문화와 그 변천 과정을 구명할 것이다. ⑤ 상서류는, 초간 상서류의 문헌 분석을 통해, 하상주 삼대의 기억이 도덕적 이념 아래 재구성되어 새로운 역사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⑥ 사상류는, 종교적 의례로부터 출발한 ‘덕’ 개념이 수양을 통한 내면화 과정을 통하여 도덕성의 철학적 개념으로 진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청동기 명문과 초간을 중심으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⑦ 동서문명 비교에서, 고대 근동과 중국의 점복(징조) 문헌 비교 검토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문헌 전승을 통해 본 중국 문헌의 口傳과 書傳 논쟁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p> <p>③ 마감: 기원전 제1천년기에 문헌 전통의 다양한 물줄기가 표준화, 경(정)전화되는 양상을 다룰 것이다. 당대 정치·지식 권력 등 제반 권력의 작동 속에서, 기존 문헌들에 대한 선택적 배제와 이에 기초한 제도적 규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위계적으로 권위·권력화된 경(정)전이 확립되었다. ① 서사시는, 길가메쉬 이야기의 표준판 형성과 발전을 분석하고, 역사적 길가메쉬와 문학적 길가메쉬를 비교할 것이다. ② 지혜문학은, 고전적 모음집에 포함된 속담들과 다른 문학 양식으로 가공된 교훈, 우화, 논쟁을 검토할 것이다. ③ 종교 비문은, 고대 근동의 종교 문헌과 성서의 상호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④ 역사류는, 장편의 전국-진한 역사류 출토문헌과 전래 역사서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제국 역사서로의 정전화를 고찰할 것이다. ⑤ 상서류는, 특히 『상서』 관련 전래문헌의 기록을 통하여 書篇의 소실과 부활, 今古文 논쟁을 텍스트 권력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⑥ 사상류는, 전국시대 의례 전문가의 집단 기억과 『시』, 『서』, 『예』, 『악』 문헌의 형성과정을 다룰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⑦ 동서문명 비교에서는, 그리스어와 로마의 “Kanon” 과 중국의 “經”, 성경과 五經의 형성과정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p>
<p>키워드 (Keyword/한글)</p>	<p>고대 근동, 고대 중국, 문헌학, 출토문헌, “전통의 물줄기”, 경(經), 경(정)전화, 서사시, 지혜문학, 종교 비문, 초간, 역사류 문헌, 상서류 문헌, 사상류 문헌, 문명 비교</p>
<p>키워드 (Keyword/영어)</p>	<p>Ancient Near East, Ancient China, philology, unearthed texts, “the stream of tradition”, canon, canonization, epic, wisdom literature, religious inscriptions, Chu bamboo slips, historical texts, the <i>Shangshu</i> related texts, philosophical texts, comparative civilization</p>

||| 목 차 |||

□ 연구기반	1
I. 연구소 운영실적	1
1. 연구소 특성화 · 전문화 추진 실적	1
2. 연구소 실적	4
3. 연구소 시설 및 연구장비 · 문헌 보유 현황	8
II. 연구인력	9
1. 연구인력 구성	9
2. 연구책임자	9
3. 참여연구원 현황	10
III. 연구소 발전계획	12
1. 전문화 및 특성화 발전계획	12
2.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13
3. 연구비 수주 계획	14
4. 외부기관과의 협력계획	14
5.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활동 추진계획	15
IV.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	18
1.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육성계획	18
2. 대학(기관)의 인력확충 및 지원계획	19
3. 대학(기관)의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계획	19
□ 연구수행	20
V. 연구과제 수행계획	20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
2. 연구방법 및 내용	23
3. 학제적 · 분과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30
4. 연구진 구성 및 연구계획	30
5. 연구수행 일정	31
6. 성과목표	33
7. 연구비 규모	33
VI. 인력양성계획	35
1.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35
2. 교육과 연구의 연계현황 및 운영계획	35
VII. 연구성과 기여도	36
1.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36
2. 연구성과의 파급효과 및 후속연구 파생 가능성	37

붙임자료

1. 2023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연구참여자 연구비 수주실적
2. 연구소 대표 실적
3. 신청 연구소 정관 또는 운영규정
4. 참고문헌

첨부자료

1.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2. 2023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협약서(대응자금/공간확보)
3.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 확인서
4. 연구책임자 증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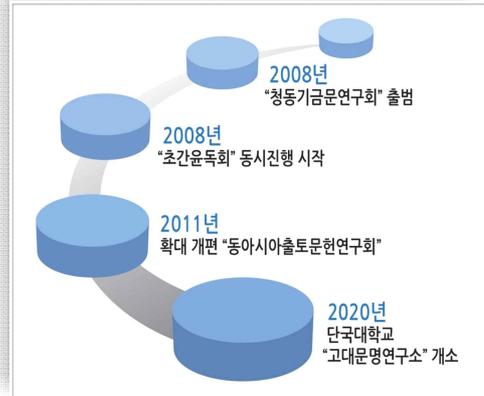
□ 「연구기반」 부문

I 연구소 운영실적

1. 연구소 특성화·전문화 추진 실적

가. 연구소 연혁 및 목적

단국대학교 고대문명연구소(<https://irec.study/>)는 “인류 문명의 보편성과 특수성, 상호작용 구명”을 목적으로 2020년 8월 개소하였다. 2008년 4월 11일 첫 모임을 시작하고 2011년 확대 개편한 “동아시아출토문헌연구회(<https://cafe.daum.net/gomoonza>)”를 모태로 한다. 고대 중국 연구를 위한 1차 문자 자료의 관독과 연구에서 출발했지만, 고대 중국 역시 핵심 고대문명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인도, 중국, 그리스·로마 등 핵심 문명 연구로 확장을 추구한다.



인류 문화 역사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문자와 종교, 법, 도시, 국가, 제국 등은 대부분 이들 지역에서 산출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의 기원에 대한 지적 호기심은 민족이나 국가 등 소속을 초월한 인간 본능의 영역일 것이다. 19세기 이래 제국주의와도 연관된 이러한 학술적 관심이 “고대문명”이라는 통합된 학문 분과로 거듭나고 있다. 근대화의 막차를 탄 한국에서 인근의 중국을 제외한 여타 문명 연구의 인프라가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음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룩한 한국의 경제적 성과는 고대문명 분야에도 새로운 연구의 싹을 틔우고 있다. 본 연구소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내 최초로 핵심 고대문명 연구의 동력을 모아왔다. 지역별로 연구자의 수가 심각하게 비대칭적인 상황에서도, 국내 고대문명, 나아가 인문학 연구 전반의 주요한 공백을 채워가고 있다고 믿는다.

본 연구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인류 문명의 보편성과 특수성, 상호작용 구명”을 위한 지향점

- 인류 문명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순수 학문적 탐구
- 한국,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 보편성을 지니는 학문 추구
-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그리스, 로마, 마야, 잉카 등이 연구 대상
- 초기 국가, 도시, 문자, 종교, 사회경제, 법률, 문화, 전쟁 등 기초 연구 추구
- 여러 지역 문명들에 대한 비교 관점 연구 지향
- 문학, 사학, 철학, 미술사, 고고학, 인류학, 유전학을 관통하는 학제간 연구 추구
- 디지털 역사학 방법론 적극 활용
- 소외학문 분야의 연구 인프라 구축과 저변 확대
- 다양한 고대문명 연구성과의 대중화

나. 특성화·전문화를 위한 노력 및 실적

본 연구소는 “**문명연구팀**”과 “**중국출토문헌연구팀**”의 두 트랙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활동은 연구소 홈페이지(<https://irec.study/>)에 업데이트되어 있다.

“**문명연구팀**”(<https://irec.study/people-ah.html>)의 특성화와 실적

1) **특성화 배경**: 중국을 제외한 근동과 인도 등의 고대문명 분야는 국내 대학에 관련 교과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기반이 취약하다. 소외된 학문을 일으킬 구심점이 절실한 상황에서 학술적 관심을 공유하는 연구자들 중심으로 본 연구소가 탄생하였다.

2) 주요 실적

(1) **공동연구 노력의 결실**: 문명연구팀의 연구원 7인(이 중 3인이 본 연구 참여)은 2022년 7월부터 2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 “문명의 시원, 그 연구의 여정과 실제” (연구책임자 심재훈, 총연구비 259,980천원)를 진행 중이다. 이는 연구소 설립 이후 첫 번째 결실이다. 문명연구팀은 2019년 11월 28일 단국대 동양학 연구원에서 주관한 제49회 국제학술대회 “요새화와 도시화: 고대문명 사이의 첫 번째 대화”에서 발표자 혹은 토론자로서 첫 번째 학술모임을 가졌다. 이후 다양한 학술 모임을 주관하다 2023년 4월 28일 연구소의 제1차 학술대회인 “고대문명 연구의 다양한 여정”을 개최하였다.

(2) **월례 정기포럼과 유튜브 콘텐츠 제작**: 문명연구팀은 고대문명 연구와 교육의 저변 확대 필요성을 무엇보다 절감한다. 이에 2020년 9월 23일부터 고대문명연구소의 월례 정기포럼에서 대중성과 학술성을 겸비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33회에 걸쳐 다양한 고대문명 연구의 핵심 쟁점들을 다루었고, 모든 내용을 고대문명연구소의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74QVeRITsSqvZl8gzys43A>)에 공유하고 있다. 2023년 6월 13일 현재 업로드 영상 55개, 구독자 수 1,470여명, 누적 조회 수 65,115회에 달한다.

(3) **근동과 그리스, 로마, 중국의 고대 문헌 강연 시리즈**: 본 연구과제는 고대 근동과 중국의 출토문헌을 중심으로 고대문명의 기반 문헌이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전 세계의 초기 문헌이 형성되는 과정은 지역적 특수성과 함께 보편성도 뚜렷하다. 2022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본 연구소의 월례 정기포럼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그리스, 로마, 중국의 문헌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5쪽 “국내 학술대회 세미나”와 15쪽 “월례 정기포럼 확대” 참조).

(4) **연구총서와 번역총서**: 고대문명 연구의 학술적 저변 확대를 위해 연구총서 1권과 번역총서 2권을 출간 준비 중이다. 연구총서는 진인진출판사와 번역총서는 도서출판 푸른역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붙임-4) 첨부자료1, 2: 출판 예정 증명서).

① 『고대문명 연구의 다양한 여정』: 현재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1년차 결과물이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시리아/팔레

스타인, 인도, 중국의 고대문명 연구사를 포괄한다.

② Jan Assmann,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문화적 기억과 초기 문명: 문자, 기억, 정치적 상상력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년, 319쪽): 기억 연구의 고전인 이 책은 제1부에서 문화적 기억에 대한 이론과 함께, 고대 문헌의 형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제2부의 사례연구에서 1부의 이론 틀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그리스에 적용하여 국가, 국제법, 종교, 과학의 네 가지 기능적 맥락과 고유한 성취를 밝혀낸다. 본 연구에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이 책은 연구책임자 심재훈과 전임연구원 김구원의 공역으로 번역을 완료했다.

③ 옥스퍼드대학 사학사 시리즈 제1권 Andrew Feldherr and Grant Hardy ed. *The Oxford History of Historical Writing: Beginnings to AD 600* 옥스퍼드 역사서술의 역사: 시작부터 서기 600년까지 (Oxford University, 2011년, 652쪽): 이 책은 총 25장에 걸쳐 메소포타미아(2장)와 이집트(1장), 고대 이스라엘(1장), 그리스/로마(10장), 중국(8장), 인도(2장)의 고대사 연구 자료와 역사서술을 다룬 명저이다. 각 지역 문명 전문가 16인이 공동 번역하고 있다.

(5) 한국고대근동학회 창립: 2022년 6월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고대근동학회의 창립식을 거행하였다. 본 연구의 전임연구원 김구원이 학회의 주축이다.

“중국출토문헌연구팀”(https://irec.study/people-cet.html)의 특성화와 실적

1) 특성화 배경: 이 팀의 시작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갑골문과 청동기 金文, 楚簡 등은 “고대 중국 다시쓰기”를 추동할 정도로 전 세계 학술계가 주목하는 핵심 자료이다. 그 중요성에 공감하는 연구자들이 본 연구팀을 구성했다.

2) 주요 실적

(1) 강독 모임 2개: ① 동아시아출토문헌연구회: 연구책임자의 주도로 2008년 4월 청동기금문연구회로 출발하여, 2011년 2월 동아시아출토문헌연구회로 확대 개편했다. 2020년 본 연구소로 통합된 이후에도 강독모임을 지속하여 2023년 1월까지 약 135회의 월례 강독회를 열었다. 대체로 1~2명이 갑골문과 금문, 초간 등 특정 자료를 해석하여 발표 토론하는 형식이다. 첫 모임 당시 석사과정생들이 본 연구의 주축으로 성장했다. ② 죽간강독: 공동연구원 빈동철 박사가 주관하는 중국철학과 사상 중심의 모임이다. 2014년 12월부터 시작하여 약 10여명의 고정 인원이 참석하고 있는 이 강독 모임은 현재까지 郭店楚簡에 있는 전국시대 텍스트 7편을 완독하였다. 그 성과로 광점초간 『노자』의 일부를 공동으로 역주하여 논문으로 발표했다(빈동철, 성시훈, 『광점 편장순으로 해석한 노자(1) -갑본 제1간~제10간의 視素保樸을 중심으로』, 『도교 문화연구』 53집 2020년. 기타실적: 출토문헌팀 월례 발표” 참조).

(2) 공동연구서 발간: 연구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며 출간한 동아시아출토문헌연구회 편, 『중국 출토문헌의 새로운 세계: 고대 동아시아의 원형을 찾아서』(주류성, 2018)에는 구성원 16인이 참여하였다. 그중 4인이 본 연구팀의 주축이다. 이 책은 국내 최초의 중국 출토문헌 공동연구서로, 본 연구팀의 역량을 입증해준다.

(3) 공동연구의 결실: 2017~2020년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중국 고대사 재구축을 위한 『청화간』의 문사철 통합연구” (연구책임자 박재복)는 『청화간』 1권과 3~7권까지의 기본 역주와 관련 연구를 포함한다. 연구책임자 심재훈과 공동연구원 빈동철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본 과제의 기반이 되었다.

(4) 대중강연 시리즈: 2022년 2월~5월까지,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본 연구소의 정기포럼(18회~21회, 32회~35회)은 고대 중국의 핵심 출토문헌과 전래문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학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할 학생들까지 염두에 둔 심도 있는 강연은 본 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추구할 교육 모델이 될 것이다.

2. 연구소 실적(최근 5년, 2018.1.1.~현재)

가. 연구비 수주 실적 ※ [붙임-1] 연계

인원	수주 구분	연구비 수주 실적		비고
		계	평균	
4명	연구소 수주	4건 (232,395천원)	1건 (58,098.75천원)	
	개별 수주	15건 (309,000천원)	3.78건 (77,250천원)	
	계	19건 (541,395천원)	4.78건 (135,348.78천원)	

나-1. 논문 및 저역서 실적(총괄)

인원	논문		저·역서	
	SCI급	KCI급	단독	공동
4명	전체 : 4건 평균 : 1건	전체 : 28건 평균 : 7건	전체 : 5건 평균 : 1.25건	전체 : 8건 평균 : 2건

나-2. 논문 및 저역서 실적(세부)

구분	성명	논문		저·역서	
		SCI급	KCI급	단독	공동
연구책임자	심재훈	1건	10건	3건	7건
일반공동 연구원	강후구	3건	6건	2건	1건
	빈동철	0건	6건	0건	0건
	성시훈	0건	6건	0건	0건
계	4명	4건	28건	5건	8건

다. 학술대회 개최 실적

○ 국내 학술대회, 세미나 (음영 부분은 본 연구의 참여자)

No.	명칭	개최기간	개최장소	내용
1	중국 고대철학연구를 위한 새로운 자료들	*22.02.11	온라인	갑골문, 금문, 죽간, 백서의 신연구성과 보고 및 고대 중국 철학 연구의 지향점 제시 (심재훈, Mark Csikszentmihalyi 등, 국내 8인, 해외 1인) ※ 공동개최: 성균관대 유교철학·문화콘텐츠 연구소
2	고대문명 연구의 다양한 여정	*23.04.28	단국대	이집트, 근동, 인도, 중국 고대문명 연구사 검토 (강후구, 김구원, 심재훈 등 국내 5인)
4	제1회 정기포럼	*20.09.23	온라인	인더스 문명 연구 100년: 쟁점과 연구 과제
5	제2회 정기포럼	*20.10.17	온라인	고대 근동의 서기관 문화
6	제3회 정기포럼	*20.11.21	온라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고고학 역사와 전망(강후구)
7	제4회 정기포럼	*20.12.26	온라인	중국 고대 지역국가의 발전(심재훈)
8	제5회 정기포럼	*21.01.23	온라인	유전자로 추적하는 인류의 역사
9	제6회 정기포럼	*21.02.20	온라인	History Hack: 디지털 시대의 역사 연구 도구와 문화
10	제7회 정기포럼	*21.03.20	온라인	신바빌론 시대 범죄와 처벌
11	제8회 정기포럼	*21.04.24	온라인	로마 제국의 군대와 군사전력
12	제9회 정기포럼	*21.05.22	온라인	유일신교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김구원)
13	제10회 정기포럼	*21.06.26	온라인	마야문명의 운영자들
14	제11회 정기포럼	*21.07.31	온라인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의 변천
15	제12회 정기포럼	*21.08.28	온라인	힌두교사 깊이 읽기, 종교학이 아닌 역사학으로
16	제13회 정기포럼	*21.09.25	온라인	REGICIDE: 왕이 살해되었다, 이집트 국왕 시해
17	제14회 정기포럼	*21.10.23	온라인	사치의 탄생: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우르 유적
18	제15회 정기포럼	*21.11.27	온라인	중국 초기국가 시기 청동원료의 생산과 유통
19	제16회 정기포럼	*21.12.24	온라인	인도 고전서사시의 東傳과 중국 소설의 흥기
20	제17회 정기포럼	*22.01.29	온라인	인도 선사미술 에세이: 바위 그림과 기호
21	제18회 정기포럼	*22.02.25	온라인	갑골문 어떻게 공부하고 해독할까?
22	제19회 정기포럼	*22.03.25	온라인	금석학의 한 축: 상주 금문의 이해
23	제20회 정기포럼	*22.04.16	온라인	죽간으로 보는 고대 중국의 점술과 사상
24	제21회 정기포럼	*22.05.19	온라인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유가: 마왕퇴 백서 『주역』 「목화」편의 정치철학
25	제22회 정기포럼	*22.06.18	온라인	이집트의 역사적 기억과 기억된 역사
26	제23회 정기포럼	*22.07.23	온라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 ‘둥근 방주 점토판’
27	제24회 정기포럼	*22.08.27	온라인	고대 중국의 ‘천天’은 ‘상제上帝’와 동일한 개념인가?(빈동철)
28	제25회 정기포럼	*22.10.01	온라인	함무라비 법전
29	제26회 정기포럼	*22.10.29	온라인	한국에서 고대근동 문헌을 번역하고 해설하는 일에 대하여: 우가릿 바알신화의 예
30	제27회 정기포럼	*22.11.19	온라인	고고미술사에서 보는 그리스 금석학
31	제28회 정기포럼	*22.12.17	온라인	고대 그리스 산문과 역사서술의 탄생
32	제29회 정기포럼	*23.01.14	온라인	금석학(epigraphy)과 고대 로마의 역사서술
33	제30회 정기포럼	*23.02.18	온라인	그리스인의 역사서술에 나타난 로마의 지배와 군대
34	제31회 정기포럼	*23.03.18	온라인	구약 성서와 역사 서술(김구원)
35	제32회 정기포럼	*23.04.29	온라인	고대중국 역사기록의 시작과 전개: 신자료를 중심으로(김석진)
36	제33회 정기포럼	*23.05.20	온라인	『사기』 대완열전은 왜 서역열전이라 이름하지 않았을까?

○ 국제 학술대회

No.	학술대회명	개최기간	개최장소	발표자 수		
				내국인	외국인	계
1	出土文獻 研究의 回顧와 跳躍: 《說文解字注》 연구번역에 즈음하여	‘21.11.12	온라인	3	2	5
2	명품의 탄생: 보석의 고고학	‘21.11.26	온라인	4	3	7
3	十三經注疏 研究翻譯과 出土文獻	‘22.11.18	온라인	2	2	4

※ 1은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공동 개최. 2, 3은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원 공동 개최

라. 정기간행물/단행본 발간 실적¹⁾

No.	학술지(서)명	발간부수	발간년월일
1	중국 출토문헌의 새로운 세계	500부	2018년 8월 20일
2	고대문명 연구의 다양한 여정	·	2023년 하반기 확정
3	문화적 기억과 초기 문명: 문자, 기억, 정치적 상상력 ²⁾	·	2023년 하반기 예정

마. 최근 5년간 연구소 대표실적 ※ [붙임-2] 연계

○ 논문/저서 실적

No.	구분 (논문/저서)	논문(저서)명	학술지명 (출판사명)	게재년월 (출판년월)	저자명
1	저서	중국 고대 지역국가의 발전: 진의 봉건에서 문공의 패업까지	일조각	‘18.09.	심재훈 (단독)
2	논문	중국에 나타난 그리핀과 문명의 동진	동양학	‘21.04.	심재훈 (단독)
3	저서	성서와 고고학2: 분열왕국시대부터 산헤립 침공까지	센스토리	‘22.03	강후구 (단독)
4	논문	고대 중국 문헌 전통의 물줄기, 그 생성과 저장에 대한 비판적 접근: 『논어』의 경우	공자학	‘23.02.	빈동철 (단독)

1) 논문 양산이 힘든 고대문명 연구의 특성상 본 연구소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경과한 현시점까지 연구소 명의의 정기간행물이나 단행본을 출간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소의 전신인 동아시아출토문헌연구회에서 2018년 발간한 『중국 출토문헌의 새로운 세계』(주류성)와 함께, 2023년 하반기 출간이 확정 혹은 예정된 단행본 2권(진인진과 푸른역사)을 제시한다(출판예정증명서 첨부).

2) 이 책은 이미 번역이 완료되었지만, 출판사 사정으로 판권계약 체결이 지체되고 있다. 에릭양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출간할 계획이다.

○ 기타실적: 출토문헌팀 강독 모임 월례발표(음영 부분은 본 연구의 참여자)

① 연구소의 모태인 “동아시아출토문헌연구회”의 실적(연구소 출범: 2020년 8월).

No.	내용요약	실적년월
출토문헌연구회(~ '23.02.)		
1	‘交’와 ‘爻’의 同源關係에 관한 試論 및 『殷虛文字丙編』016~022 역주 청화간 『金縢』역주	‘18.01.
2	중국 고대 출토문헌의 세계 중용의 정치와 공감(共感)의 정치	‘18.02.
3	『불기궤』 명문 고석 청화간 『芮良否』해제 및 관련 문제	‘18.03.
4	청화간 『程寤』 관련 역주 (빈동철)	‘18.04.
5	청화간 『繫年』 23장 試讀 (김석진) 청화간 『楚居』역주 (심재훈)	‘18.06.
6	자형을 통해서 본 周代 기물 ‘簠’형태 考察 『殷虛文字丙編』028~038 역주	‘18.07.
7	청화간 『周公之琴舞』역주	‘18.08.
8	『殷虛文字丙編』041~050 역주 중국 고대 지역국가의 발전: 쑤의 봉건에서 文公의 패업까지 (심재훈)	‘18.08.
9	선택되는 문헌과 도태되는 문헌: 淸華簡『程寤』의 전승과정과 사상을 중심으로 (성시훈) 『殷虛文字丙編』042~050 역주	‘18.09.
10	甲骨文에 출현하는 夕+疒, 夕+疾 두 글자에 대한 新釋	‘18.10.
11	상박초간 『周易』을 통해 본 정현의 주역 注	‘18.11.
12	馬王堆帛書 『戰國縱橫家書』 제4장 「自齊獻書於燕王章」역주	‘18.12.
13	『殷虛文字丙編』051~054 역주 「命訓」편의 출토본과 전래본 비교연구: 제8~15죽간 고석을 중심으로	‘19.01.
14	<老子> 41장의 판본 비교: 郭店本, 馬王堆本, 北大소장본 및 현행본 (성시훈) 청화간 『殷高宗問於三壽』역주	‘19.04.
15	청화간 『封許之命』研究 札記 蘇秦의 외교서신과 편년 문제	‘19.05.
16	청화간 『湯處於湯丘』역주 『殷虛文字丙編』051~055 역주	‘19.06.
17	고대 禮器 玉柄의 용도 분석 『殷虛文字丙編』056~060 역주	‘19.07.
18	『說文通訓定聲』古音 體系 研究 및 『說文通訓定聲』自敘 역주	‘19.08.
19	관점초간 『노자』 병본 6-8호간(현행본 31장) 검토 (성시훈)	‘19.09.
20	서주시대 지배층의 통혼과 그 성격 청화간 『殷高宗問於三壽』역주(하)	‘19.10.
21	安徽簡 『詩經』譯注: 關雎, 葛覃 예의 자기조절 역할: 안연편1장을 중심으로	‘19.11.
22	戰國故事의 복수 傳本과 그 善本 판별에 관한 一試論: 『戰國縱橫家書』 11개장과 전래문헌의 비교 이리두 중국 고대국가 기원론의 딜레마 (심재훈)	‘19.12.
23	『殷虛文字丙編』061~066 역주	‘20.05.
24	춘추 고사와 법률 문서: 장가산한간 『奏讞書』의 ‘춘추’ 안례(1)	‘20.06.
25	춘추 고사와 법률 문서: 장가산한간 『奏讞書』의 ‘춘추’ 안례(2)	‘20.07.

No.	내용요약	실적년월
고대문명연구소 출범('20.08.) 이후 공동 진행한 발표는 제외		
26	청화간 『정무부인유규자』에 보이는 정나라의 정치 대립 청화간 『탕재시문』 역주	'20.08.
27	사기를 중심으로 본 제나라 전씨들의 운명과 진제국 통치전략의 다양성	'20.09.
28	청화간 『晉文公入於晉』 역주 (심재훈) 진말한초 병역제도의 용병제 경향	'20.10.
29	『殷虛文字丙編』061~070 역주	'20.11.
30	『殷虛文字丙編』076~090 역주	'20.12.
31	『殷虛文字丙編』086~095 역주	'21.01.
32	청화간 『서법』과 고대 중국의 점술	'21.03.
33	郭店楚簡 『緇衣』 17~23간 역주 (성시훈)	'21.04.
34	『殷虛文字丙編』086~09 5 역주	'21.05.
35	郭店楚簡 『緇衣』역주	'21.07.
36	郭店楚簡 『緇衣』 30~32호간(15장) 역주	'21.08.
37	郭店楚簡 『緇衣』 역주-2	'21.12.
38	戰國 楚簡 역사서 『繫年』의 주요 형식과 성격 (김석진)	'22.11.
39	『清華大學藏戰國竹簡(伍)』 「封許之命」 역주	'22.12.
40	고대 중국의 문헌 전통, 그 형성과 전개에 대한 비판적 접근: 『논어』의 경우(빈동철)	'23.02.

② “죽간강독” 모임의 실적

No.	내용요약	실적년월	비고
죽간강독			
1	관점초간 『性情論(性自命出)』 강독 (총 27회 발표, 완결)	'14.12 ~ ' 16. 5.	
2	관점초간·마왕퇴백서 『五行』 강독 (총 21회 발표, 완결)	'16.6. ~ ' 17.7.	
3	관점초간 『노자』 (총 40회 발표, 완결)	'17.7. ~ ' 19.10	
4	관점초간 『太一生水』 (총 9회 발표, 완결)	'19.11 ~ ' 20.4,	최근 3년간 실적
5	관점초간 『魯穆公問子思』 (총 2번 발표, 완결)	'20.4. ~ ' 20.5.	
6	관점초간, 상박초간 『緇衣』 (총 33번 발표, 완결)	'20.5. ~ ' 21.12.	
7	관점초간·마왕퇴백서 『五行』 강독 (총 18회 발표, 재독, 완결)	'22.1. ~ ' 22.11.	
8	관점초간 『唐虞之道』 강독 (총 11회 발표, 진행 중)	'22.12. ~ 현재	

3. 연구소 시설 및 연구장비·문헌 보유 현황

용도	보유 현황	비고(향후 추진 계획)
위치	본교 인문관 603호	추후 확대 이전 계획
면적	25.9㎡	50㎡ 이상
연구장비	책상: 1대 컴퓨터: 1대 복합기: 1대	개인 책상 및 의자: 7대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1세트 컴퓨터: 6대 복합기: 2대
문헌	-연구소 보유: 7,000권 -도서관 보유: 20,000권 -국내·해외저널 이용	(좌동) ※ 교비 및 도서관을 통한 연구 관련 도서 지속 확보

II 연구인력

1. 연구인력 구성(총괄)

연구인력				연구보조원			
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	전임연구인력	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1	3	3	7	1	2	0	3

2. 연구책임자

가.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명	연구소장명	불일치 사유
심재훈	심재훈	(일치)

나. 연구책임자 경력 및 연구소 관련성

(1) **학문적 업적:** 중국 고대사 방면에서 국내외 모두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이는 연구자이다. 『청동기와 중국 고대사』(저서, 2018년), 『화이부동의 동아시아학』(편역서, 2012년), 『고고학 증거로 본 공자시대 중국사회』(한국연구재단 명저번역, 2011년) 등 다수의 전문 학술서를 쓰고, 모으고, 번역하였다. 특히 『중국 고대 지역국가의 발전』(저서, 2018년)으로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아 범은학술상 특별상(2019년)과 아시아학자세계총회(ICAS) 한국어판 우수도서상(2019년)을 수상하였다. 이 책의 중역본(鄭興洙 譯) 『晉國霸業: 從晉之分封到文公稱霸』가 2022년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출간되었다. 2018~2019년에는 Fudan Senior Fellowship을 받아復旦대학에서 3개월 체류하며, 文物與考古學系와 歷史學系,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의 초청으로 세 차례 강연하였다. 최근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Journal of Chinese History*의 “세계 중국학” 특집 한국 부분 집필 의뢰를 받아 쓴 논문이 온라인판에 게재되어 있다.³⁾ 주로 청동기 금문과 초간 등 출토문헌을 토대로 중국 고대사와 사학사 방면의 연구에 치중하며 2018년부터 11편의 논문(SCI급 1편, 중문 1편, 초간 역주 논문 3편 포함)과 저서 9권(단독 3권, 공동 7권)을 출간하였다. 최근 고대문명 비교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2) **국제적 네트워크:** 중국과 일본, 구미 학계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다. 1998년 시카고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1999~2002년 예일대학 동아시아어문학과와 사학과에서 전임(Senior Lecturer)으로 한국어와 한국사, 동아시아고대사 등을 강의하였다. 2010년 폴브라이트, 2014년 일본학술진흥회(JSPS), 2018년 중국復旦대학의 연구비 지원으로, 각각 UCLA와 교토대학,復旦대학에 방문학자로 초빙되었다. 2016년 2월에는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漢學系(Institut für Sinologie)와 프랑스 파리 EPHE에서 초빙강연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해외의 석학들을 본 연구소의 해외자문

3) Jae-hoon Shim, “Two Millenia of Sinology: The Korean Reception, Curation, and Reinvention of Cultural Knowledge from China,” *Journal of Chinese History* 2022.

위원(<https://irec.study/people.html>)으로 초빙하였다(“Ⅲ. 4. 외부기관과의 협력계획” 참조).

(3) **행정 역량:** 단국대 문과대학 학장(2016~2018년)과 도서관장(2016~2017년), 중국고중세사학회 회장(2017년),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2017~2018년) 등을 역임하였다. 2008년부터 중국 출토문헌 연구자들을 모아 동아시아출토문헌연구회를, 2020년 8월부터는 근동 및 세계 고대문명 연구자들까지 망라하여 고대문명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또한 교육부 지원 토대연구사업 “영어, 불어, 독어권 동아시아학 주요 연구성과 DB 구축”(2012~2016년, <https://weas.info/>)의 연구책임자를 맡아, 2017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에 선정되었다.

(4) **사업 관련성과 연구소 운영계획:** 학술 성장의 관건은 연구책임자의 확고한 책임 아래 수월성 있는 연구주제를 다룰 수 있는 우수한 연구자들을 모아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소의 소장은 이 프로젝트 전반을 관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대 근동과 중국의 문헌 발전을 비교 시각에서 다루며 전체 연구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후술). 연구소장과 연구책임자의 일치는 부차적으로 학술 행정의 최적화라는 실무적 편의까지도 달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명실공히 “연구자를 위한 연구소”를 실현하며, 국내에 꼭 필요한 핵심 고대문명 연구에 특화된 연구소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질 것이다.

3. 참여연구원 현황

구분	연구자				내용
	성명	소속	직위	전공	
연구책임자	심재훈	단국대	교수	중국고대사	선진사
일반 공동연구원	A강후구	서울장신대	부교수	성서고고학	시리아/팔레스틴 고고학 (문명의 약진)
	B빈동철	고려대	연구교수	중국철학	중국철학(중국고대문헌, 지성사)
	C성시훈	성균관대	연구원	유교철학	유교철학(중국고대철학, 유교경전학)
전임 연구인력	A김구원	단국대	연구원	고대근동학	고대 이집트와 근동의 역사 (역사학)
	B김석진	단국대	강사	중국고대사	춘추전국사, 역사문헌학
	C임용예정				고대근동학

(1) **공동연구원** [본 연구소 (겸임) 연구원 3인] (<https://irec.study/people.html>)

A. 강후구: 이스라엘 히브리대학에서 박사학위(2013년)를 받은 성서 고고학자로 이스라엘 현지 발굴을 통한 1차 자료 생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히브리대학 고고학과 요셉 가르핀켈 교수와 공동 책임자로 발굴하고 있는 텔 라기스(Tel Lachish) 발굴 결과를 토대로 2018년부터 3편의 논문을 SCI급 학술지에 게재하고 있다.⁴⁾ 본 연구에서 고대 근동의 종교 비문을 담당할 것이다.

4) “Lachish Fortification and State Formation in the Biblical Kingdom of Judah in Light of Radiometric Datings,”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2019년); “The Canaanite and Judean Cities of Lachish, Israel: Preliminary Report of the Fourth Expedition, 2013-2017,” *American Journal of Archaeology* (2021년); “The Level V City Wall at Lachish,”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2023년).

B. 빈동철: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고대 중국의 서법과 書寫 전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2014년). 갑골문에서 초간에 이르는 문자 자료의 외양에 대한 탄탄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고대중국의 유가 전통과 전승 계보 연구”(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에 치중하고 있다. 2014년부터 중국철학 출토문헌을 강독하는 “죽간강독”모임을 150회 이상 이끌고 있다. 최근 『논어』의 생성과 저장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문에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했듯이(연구소 대표실적 참조), 본 연구에서 중국의 사상류 문헌을 담당할 것이다.

C. 성시훈: 성균관대학에서 출토문헌 『상서』류 문헌의 사상적 특질을 다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2016년). 2008년 동아시아출토문헌연구회 출범 당시부터 대학원생으로 강독에 참여하여 중국 출토문헌을 『상서』 연구에 활용한 국내 1호 박사이다. 분야의 특성상 논문을 양산하기 어려움에도, 『상서』의 경전화에 대한 연구(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양성)와 천명의 철학적 탐색을 위한 새로운 자료 발굴(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등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상서』류 문헌을 담당할 것이다.

(2) 전임연구원

A. 김구원: 미국 시카고대학의 근동언어문명학과에서 고대 셈어(북서셈어와 아카드어)와 함께 근동 역사를 폭넓게 공부했고, 박사논문(2010년)이 Brill의 *Vetus Testamentum Supplement* 시리즈로 출판되었다.⁵⁾ 고대 근동 문서와 구약 성서 본문을 비교한 연구와 성서의 문화적 비평과 관련된 연구 등 다수의 영문 논문을 출간하였다(최근 5년 SCI급 2편 포함).⁶⁾ 본 연구에서는 고대 근동의 서사시를 담당할 것이다.

B. 김석진: 연구책임자가 단국대학에서 지도한 1호 박사로서 淸華대학 소장 죽간 역사서 “『繫年』의 역주와 성격 고찰”로 학위를 받았다(2022년). 태동고전연구소에서 한학을 공부했고, 2008년부터 동아시아출토문헌연구회의 강독 모임에 참여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글로벌박사양성사업(2016-2019)에 선정되었다. 『사기』 이전 역사류 문헌의 형성과정을 연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중국 역사류 문헌을 담당할 것이다.

C. 임용 예정: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 담당

5) Koowon Kim, *Incubation as a Type-scene in the Aqhatu, Kirta and Hannah Stories: A Form-critical and Narratological Study of KTU 1.14 I-1.15 III, 1.17 I-II, and 1 Samuel 1:1-2:11*, (Leiden: Brill, 2011).

6) 2018년에 College de France가 출판하는 *Semita*에 청동기 우가릿 사회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는 의무를 연구한 논문 “List of Filial Duties: Its Narratological Role in the Aqhatu Story”를 게재하였고, 메소포타미아의 점술의 관점에서 사무엘상 28장을 분석한 논문을 *The Expository Times*에 게재하였다. 2022년에는 유일신교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글을 영국에서 출판된 *Exploring the Old Testament*(Langham)에, 시편 1편의 운문 구조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시카고대학의 동양학연구소(Oriental Institute)에서 출판된 *Studies in Northwest Semitic Languages and Literatures*에 각각 기고하였다.

III 연구소 발전계획

1. 전문화 및 특성화 발전계획

가. 연구소 전문화·특성화 발전계획

국내의 연구기관 중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인도 등 고대의 핵심 문명을 다루는 곳이 없다. 전문화, 특성화 연구소로서 본 연구소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래에 명시할 네 가지 전략으로 발전을 꾀할 것이다.

(1) **텍스트 중심 연구:** 모든 인문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1차 문헌의 장악과 활용에 있다. 위에서 언급한 “동아시아출토문헌연구회”와 “죽간강독”의 꾸준한 강독 모임이 바로 본 연구소가 추구할 교육과 연구의 핵심이다. 국내의 중국과 근동 고대문명 연구 상황이 판이한 만큼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하려고 한다.

A. 출토문헌 자료의 심화 강독: 중국 출토문헌은 대체로 시서역의 삼경류와 역사류, 사상류로 수렴된다. 본 연구의 중국 지역 전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 3인은 역사, 상서, 사상류 문헌 전문가이다. 이들 중 빈동철은 매월 2회 죽간강독 모임을 이끌고 있다. 동아시아출토문헌연구회의 모임과 함께 매월 2~3차례의 강독 모임을 정례화할 것이다. 근동의 경우 심도 있는 강독 모임은 어렵지만, 참여자 3인 모두 2~3개월에 1회씩 각자 맡은 역주 문헌을 전체 구성원 앞에서 발제할 것이다.

B. 고대 근동 언어 강의: 근동 연구팀은 그 저변 확대를 위해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대상으로 언어 교육에도 치중할 것이다. 전임연구원 김구원과 함께 문명연구팀의 유성환(이집트), 김아리(메소포타미아), 반기현(그리스/로마) 등이 이집트 문자와 수메르어, 아카드어, 우가리트어, 히브리어, 고전어 등을 담당할 것이다.

(2) **문명 비교연구:** 본 연구소는 문명 간 비교연구를 추구한다. 이미 그 일환으로 “핵심 문명의 연구사”와 “각 문명 단계 진입 전야의 발전 상황”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 주제인 고대 근동과 중국 문헌 연구의 문제작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도 정례화할 것이다.

(3) **국내 고대문명 연구의 구심점:** 고대문명연구소 설립 전까지 중국 출토문헌 연구팀은 국내의 갑골문과 금문, 초간 등 연구를 소외학문으로 간주했다. 연구소 설립 이후 근동과 인도 등 분야의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2년 반 동안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본 연구소가 명실상부한 국내 고대문명 연구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4) **자유로우면서도 엄격한 연구환경:** 학술 기관의 성패는 연구인력의 실력에 달려 있다.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만큼이나 그들에게 최대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 관건이다. 본 연구소는 전임연구원들에게는 학술 활동 이외의 어떤 업무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유로운 연구환경 제공은 반드시

적절한 실적으로 부응해야만 한다. 전임연구원들이 자신의 연구 상황 진척을 정례적으로 보고하여 평가받는 규정을 마련할 것이다.

나. 연구소 중장기 연구목표

본 연구소는 “핵심 고대문명 연구의 새로운 중심”을 꿈꾸며, “그 연구의 국내 안착과 공명(共鳴) 실현”을 중장기 연구목표로 삼는다. 이 목표는 6년간 2단계에 걸쳐 추진될 것이다.

구분	1단계: 안착기(2023~2025)	2단계: 공명기(2026~2029)
	연구 역량 확보 중심	연구 성과 심화·확산 중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고대문명 연구 역량의 결집 · 각 연구 대상의 개별 연구 심화 · 문명별 연구자들의 연구 교류 증진 · 기초 강좌 운영을 통한 학문후속세대 발굴 및 저변 확대 · 국내 유관 기관과 공감대 형성 · 연구총서, 번역총서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명별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성과 도출 · 학문후속세대의 선순환 · 국내 유관 기관과 연구 교류 (학술대회, 세미나 등) ※ 1단계 지속 추진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유관 기관과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어 총서 출간 · 해외 유관기관과 연구 교류 (국제학술대회, 방문학자 등)
사회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 개방형 온라인 학술 콘텐츠 생산(유튜브, 네이버7) 등) 	

2.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연구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한 학술적 성과의 산출, 그리고 산출된 학술적 성과의 사회 환원과 수익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낼 수 있는 자립 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소는 이러한 학술 구조의 구축을 위하여 단국대학교의 지원은 물론 연구소 자체의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할 것이다.

(1) 대학의 지원: 본 연구소는 고대문명 연구의 특화 기관으로서 대학의 지원을 약속 받았다. 특히 성공적인 1, 2단계(6년) 과제 수행을 위하여 교비로 연구비의 10%에 해당하는 156,000천원을 지원받을 것이다.

(2) 고대문명 연구 대학원 과정 신설(대학의 연구소 육성계획 참조)

(3) 연구소의 노력

① 총서 및 단행본 발간: 본 연구소는 산출한 학술적 성과를 총서 및 단행본으로 출간할 것이다. 이러한 출판물은 출판사를 통한 상업 출판을 지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소정의 수익은 연구소 자체 자금으로 축적될 것이다.

7) 네이버 프라임콘텐츠 채널에서 연구책임자 심재훈은 “역사책의 감동, 역사의 이면” (<https://contents.premium.naver.com/historybooks/knowledge>)을, 공동연구원 빈동철은 “고대 중국: 미래로 전달되는 과거” (<https://contents.premium.naver.com/dcbin/knowledge>)를 연재하고 있다.

② **유튜브 콘텐츠의 제작:** 본 연구소는 2020년 9월 26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다수의 콘텐츠를 대중 지식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1470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대문명 연구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보여주는 동시에, 본 연구소가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의 우수함을 증명한다. 지속적으로 학술의 사회 환원이라는 우리의 의무를 충족시키면서 소정의 수익까지 창출할 것이다.

③ **고대문명 관련 전문 강좌, 시민강좌 개설:** 본 연구소의 구성원들은 고대문명 연구를 위한 다양한 기반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있다. 특히 고전 텍스트를 본래의 언어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 어학 능력이야말로 본 연구소 구성원들만이 갖춘 장점이다. 이를 통해 수메르어와 아카드어 등으로 된 근동 고대문헌, 그리스·로마의 고전, 『論語』, 『孟子』, 『史記』와 같은 동양고전 강독 같은 대중 강좌를 개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Ⅲ. 1. 가. 연구소 전문화·특성화 발전계획” 참조).

3. 연구비 수주 계획

본 연구소는 지속적인 연구 진행과 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집단 연구사업에 대한 수주뿐 아니라, 연구자의 결집과 인재풀의 확보를 위하여 개인 연구사업의 수주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주관기관		유형	내용
국 내	한국연구재단	개인	학술연구교수(A/B), 신진·중견·우수학자, 명저번역, 저술출판 등
		공동/집단	일반공동연구, HK 등
	동북아역사재단	공동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 학술회의 개최 지원
해 외	중국(教育部, 北京大)	공동	古文字工程 등
	대만蔣經國國際學術交流基金會	개인/공동	학술연토회, 공동연구, 학자보조

4. 외부기관과의 협력계획

(1) **국내 기관:**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와 함께 “동양고전 연구번역을 위한 동아시아 출토문헌 국제학술대회”라는 주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회의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를 기획한 바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고대 중국 문헌 전통”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 외에도 본 연구책임자가 회장을 역임한 **중국고중세사학회**, 중국출토문헌연구팀의 구성원이 회장을 맡고있는 **한국유교학회**, **동양고전학회**와 등과도 연구자 교류, 학술대회 개최, 특집호 발간 등 다양한 협력을 기획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전임연구원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한국고대근동학회**와도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할 것이다.

(2) **해외 기관:** 세계 핵심 고대문명을 연구하는 고대문명연구소의 성격상 외국 학계와의 소통은 필수적으로, 우리는 이미 국내외 어떤 연구기관 못지않은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소의 해외자문위원 제안을 수락한 중국과 일본, 구미 연구자들의 면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https://irec.study/people.html>). 이들의 소속 기관과 학술대회 개최 및 연구자 교환 교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할 것이다.

구분	이름	소속	전공
구미권 (4개국)	Edward L. Shaughnessy	(미국) 시카고대학 크릴 중국출토문헌연구소	고대 중국
	Lothar von Falkenhausen	(미국) UCLA 미술사학과	중국 고고학
	Norman Yoffee	(미국) 미시건대학 근동학/인류학과	고고학, 비교문명
	Li Feng (李峰)	(미국) 컬럼비아대학 탕고대중국연구센터	중국 고대사
	John Baines	(영국) 옥스퍼드대학 동양학연구소	이집트
	Dominic Rathbone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로마사
	Francis Joannès	(프랑스) 판테옹-소르본 파리1대학	고대 근동학
	Olivier Venture	(프랑스) École Pratiques des Hautes Études	중국 출토문헌
Yosef Garfinkel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고고학연구소	이스라엘 고고학	
중국	劉 釗	復旦대학 고문자와출토문헌연구중심	중국 고문자
	韓 巍	北京대학 사학과, 중국고대사연구중심	중국 고대사
일본	大西克也	東京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중국 고문자
	西山尙志	埼玉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과	중국 고대사상사

5.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활동 추진계획

가. 학술대회/세미나 개최 계획

(1) 월례 정기포럼 확대: 월례 정기포럼은 본 연구소가 고대문명 연구의 질적 향상과 대중화를 목표로 매월 실시하는 중점 학술 사업이다. 아래 표에 명시되듯 2023년 12월 말까지 중국의 문헌과 고대 근동, 인도, 중국 문명의 연구사에 초점을 맞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음영 부분은 본 연구 참여자). 2024년 1월부터는 해외의 고대문명 전문가로 강연의 폭을 확대할 것이다.

No.	회 차	일 시	발표자	강연 주제
1	제34회	‘23.6.18	성시훈	만들어지는 경전: 전국시대 <상서>의 모습을 중심으로
2	제35회	‘23.7.23	빈동철	고대 중국 텍스트의 생성과 전승: 『논어』의 사례를 통한 비판적 접근
3	제36회	‘23.8.27	김아리	200년 고대 근동 연구사, 세 번의 거대한 변화
4	제37회	‘23.9.24	강후구	이스라엘/팔레스틴 고고학의 역사: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논쟁들
5	제38회	‘23.10.29	김구원	나일강을 따라 천 마일: 이집트학의 발전과 과제
6	제39회	‘23.11.19	이광수	인더스 문명과 갠지스 문명의 정체에 관한 논쟁: 힌두뜨와(Hindutva) 역사 서술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7	제40회	‘23.12.17	심재훈	중국 고대문명 연구 100년: 쟁점과 전망
8	제41회	‘24.1.14	Edward L. Shaughnessy	Origins of the <i>Zhouyi</i> (『주역』의 기원)

(2) 강독 모임: 본 연구소는 그 전신인 출토문헌연구회에서 15년, 또 다른 철학사상 위주 주간강독 모임에서 8년 이상에 걸쳐 꾸준한 강독 모임을 가져왔다(“1. 2. 바. 최근 5년간 연구소 대표실적”의 “기타실적: 출토문헌팀 강독 모임” 참조). 본 연구소는 이 강독 모임을 더욱 확고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다. 전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은 동아시아출토문헌연구회, 주간강독, 근동문헌강독 등 모임을 주도하며 각자 맡은 역주 문헌으로 2개월에 1회씩 발제를 맡아야 한다. 이 강독은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3) 출토문헌 관련 국내, 국제 학술대회

① **성과 점검 학술대회, 매년 1회**(국제 2회, 국내 3회): 국내 학술대회 3회는 국내의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2026년의 국제학술대회는 중국과 근동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의 성과를 평가받으려고 한다. 본 연구를 결산하는 2028년의 국제학술대회는 근동과 중국 이외의 고대문명의 텍스트 전문가들도 초빙하여 비교사적 관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검토할 것이다.

No.	연도	구분	주 제	비 고
1	2024	국내	“생성: 문자와 텍스트의 여명”	- 연구 성과의 점검과 비평 - 유관 국내외 연구자 초청
2	2025	국내	“확산과 저장: 고대 문헌 전통의 물줄기와 그 의의 I, II, III”	
3	2026	국제		
4	2027	국내		
5	2028	국제	“세계 고대 문헌 형성의 다양한 양상: 경전화와 고전화의 여정”	- 동·서양 고대 문헌 연구자의 집결

※ 학술대회의 주제와 제목은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전통문화연구회 공동 개최, “동양고전 연구번역을 위한 동아시아 출토문헌 국제학술대회”**: 본 연구소는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와 함께 4년에 걸쳐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를 협의하고 시행 중에 있다(Ⅲ. 4. 외부기관과의 협력계획 참조). 그 주제는 다음과 같다.

연도	주제	비 고
1차년(2021년)	출토문헌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설문해자』를 중심으로	완 료
2차년(2022년)	십삼경주소 연구번역과 출토문헌	완 료
3차년(2023년)	중국 사료의 연구·번역과 출토자료 (예정)	기획 중
4차년(2024년)	제자백가 사상 연구·번역과 출토문헌 (예정)	

(4) **번역총서 출간 기념 심포지움**: 본 연구소는 2건의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두 책 모두 고대문명 연구의 필독서이다. 이에 그 성과를 학계와 일반에 알리기 위해 심포지움을 개최할 것이다.

① **얀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과 초기문명』 출간 기념 심포지움**: 기억 이론 소개와 함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그리스 전공자의 관련 부분 논평, 중국 출토문헌 전공자의 문제 제기.

② **『옥스퍼드 사학사』 1권 출간 기념 “고대문명의 역사서술” 심포지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스라엘, 그리스, 중국, 인도 부분의 대표 번역자들이 발제, 다른 지역 전공자의 토론.

나. 기타 학술지 및 총서 발간계획

(1) **연구총서 발간 계획:** 본 연구의 연구성과는 연구총서라는 단행본의 형태로 학계와 일반에 소개될 것이다. 연구총서는 2단계에 걸쳐 “**연구논문 모음집**” 과 1차 텍스트의 “**역주 모음집**” 으로 구성한다.

- ① “**연구논문 모음집**” 은 각 단계별, 연차별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산출된 연구논문을 종합·정리하여 출간한다.
- ② “**역주 모음집**” 에는 본 연구에서 다룬 서사시, 지혜문학, 종교비문(이상 근동), 역사류, 상서류, 사상류(이상 중국) 문헌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상세한 해설을 수록한다. 각 텍스트의 후속 연구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No.	주제(가제)		구분	출간 시기
연구총서①	생성	문자의 기원과 문헌의 형성	연구논문 모음집	2024년 말
연구총서②		의례 텍스트에서 서적으로	역주 모음집	2025년 말
연구총서③	확산과 저장	문헌의 확산과 변이	연구논문 모음집	2026년 말
연구총서④		고대 문헌 전통의 물줄기	역주 모음집	2027년 말
연구총서⑤	마감	고전화와 경전화의 여정	연구논문 모음집	2029년 말

다. 온라인 다국어 저널과 총서 발간 기획: 세계 고대문명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다국어 저널(가제: *Multilingual Journal of Ancient Civilization*)을 구상하고 있다. 한국의 인문학이 세계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어가 학술계의 주요 언어가 아니라는 데 있다. 그러나 기계 번역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미 서양 언어들 사이와 한국어-일본어 사이의 번역은 논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본 연구소의 해외자문위원을 수락한 다양한 나라 석학들의 면면에서도 드러나듯, 우리는 세계 최초로 다국어 학술지를 발간할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중국 출토문헌을 비롯하여 세계 핵심 고대문명을 다루는 각국의 우수한 학자들을 편집위원으로 선정하여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소의 디지털 사업을 총괄하는 김광림(네이버, 단국대 박사과정) 선생의 자문을 거쳐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어, 불어 등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한데 모아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번역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다.

다만 이 구상의 실현에는 예산 등 어려움도 예상되는 만큼, 본 연구소에서 2028년 진행할 국제학술대회의 원고를 모은 총서 한 권을 디지털 번역 시스템이 장착된 온라인 다국어 ebook 형태로 시험적으로 출간하고자 한다. 그때 참석할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이 자국어로 쓴 논문들을 성공적으로 총서에 담는다면, 궁극적 목표인 온라인 다국어 저널 출간에 한층 가깝게 다가갈 것이다.

IV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

1.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육성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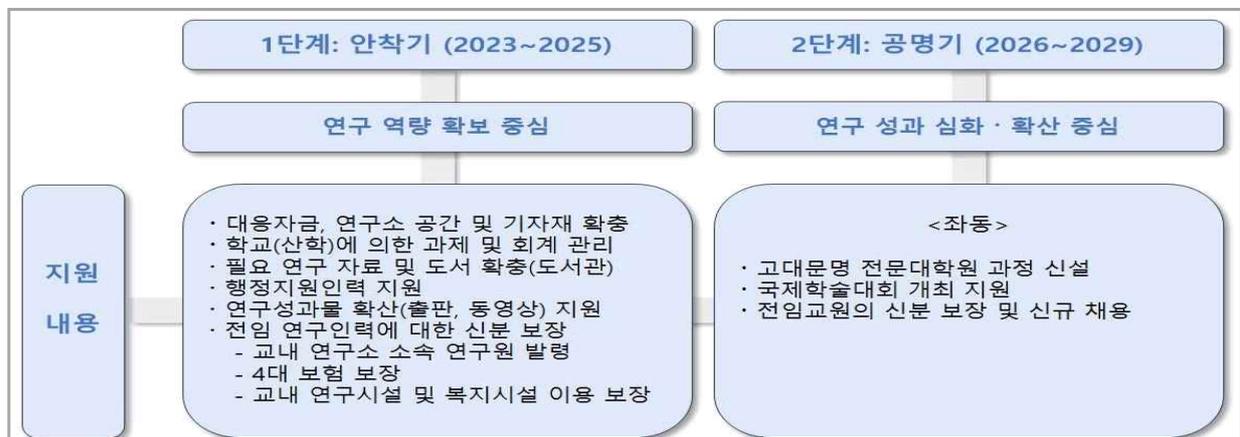
가. 고대문명 연구 특화 연구소로서의 위상 확립: 고대문명연구소는 국내의 여타 기관에서 아직 추구한 적이 없는 핵심 고대문명에 대한 전문적 탐색을 목표로 한다. 본교는 동양학연구원을 국내의 대표 연구기관으로 성장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고대문명연구소 역시 그와 같은 위상을 가진 연구기관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나. 연구의 지속과 연구소의 존속을 위한 교원의 지위 보장과 인원 확충: 연구소 소장 심재훈 교수는 국내외에서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학자이자 성실한 학술행정가이기도 하다. 본교는 연구소의 성공적인 안착과 존속을 위하여 심 교수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여 정년퇴직 후에도 연구소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우수한 업적을 가진 관련 연구자를 전임교원으로 초빙할 것이다.

다. 교육 프로그램 확대

- ① 학부: 본교는 교양 과정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와 문화”를 설강하였다. 고대문명연구소와 협의하여 관련 강의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특히 “세계 고대문명의 이해” 같은 팀 티칭 교과목을 대표 강의 콘텐츠로 개발할 계획이다.
- ② 대학원: 국내 최초로 세계 고대문명 연구에 특화된 대학원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일단 사학과 내에 고대문명 전공 석사과정을 신설하여 3년 정도 시험적으로 운영한 뒤, 고대문명연구소 산하에 별도의 대학원 과정을 설치할 계획이다. 2006년 설립된 뉴욕대학(NYU)의 고대세계연구소(ISAW: Institute for the Study of the Ancient World)가 우리가 추구할 모델이다(<https://isaw.nyu.edu/>). 이 연구소는 광범위한 지역과 시대뿐만 아니라 과학사와 디지털 역사학 같은 첨단 분야까지 포괄하는 대학원 위주의 교육 기관을 겸하고 있다. 현재 고대문명연구소가 확보한 인재풀(<https://irec.study/people.html>)은 국내에도 세계 고대문명 연구에 특화된 대학원 과정 개설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라. 단계별 지원 계획



2. 대학(기관)의 인력확충 및 지원계획

가. 전임연구인력: 본교는 연구소의 주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한 전임연구인력을 확보하고, 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들의 신분과 권익은 「연구원 임용규정」의하여 보장될 것이다.

나. 행정지원인력: 본교는 간접비로서 행정지원인력 1인, 혹은 그 이상을 채용, 연구소에 전담시켜 연구책임자와 연구인력을 행정적으로 보좌할 것이다. 행정지원인력은 연구소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국연구재단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특히 연구비 사용에 있어 적법하고 투명한 연구소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다.

3. 대학(기관)의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계획

가. 대학(기관)의 재정지원 계획: 본교는 고대문명연구소에 7차년도에 걸쳐 총 156,000천원의 대응자금을 확약한다. 지원 연구비의 10%에 달하는 대응자금은 고대문명연구소가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나. 대응자금

[단위 : 천원/%]

구분	신청 연구비(A)	대학(기관) 지원금액		
		대응자금(B)	대응자금비율(B/A)	
1단계	1차년도	130,000 천원	13,000 천원	10%
	2차년도	260,000 천원	26,000 천원	10%
	3차년도	260,000 천원	26,000 천원	10%
2단계	1차년도	260,000 천원	26,000 천원	10%
	2차년도	260,000 천원	26,000 천원	10%
	3차년도	260,000 천원	26,000 천원	10%
	4차년도	130,000 천원	13,000 천원	10%

○ 대응자금 집행계획: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인건비성 경비 제외) 부분

다. 대학(기관)의 시설 확충계획

○ 연구소 시설내역

구분	현재	추가확보계획	계	비고	
연구소 전용공간	25.9㎡	25.9㎡	51.8㎡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	공간	·	15㎡	15㎡	
	인원	·	3명	3명	
	평균	·	 	5㎡/명	

○ 기타 연구소 시설 확충 계획: 본교는 고대문명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선 한국연구재단 규정에 부합하는 공간과 인력을 제공한다. 공간과 인력은 최종적으로 “문명연구팀” 과 “중국출토문헌연구팀” 이 큰 어려움 없이 공동연구를 펼쳐갈 수 있는 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연구수행」 부문

V 연구과제 수행계획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과제
고대 근동과 중국 문헌 전통의 물줄기

■ 동서양 문명의 토대 고대 근동과 중국의 문헌 전통

인류의 문명사에서 문자의 발명과 문헌의 발전이 끼친 영향력은 지대하다. 행정과 신성한 표식, 신과의 소통에 활용된 초기 문자는 오랜 글쓰기의 진화 과정을 거쳐 학술의 근간인 문헌으로 귀결되었다. 이 연구는 동서양 문명의 토대인 고대 근동과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류의 글쓰기 문화가 어떻게 생겨나 어떤 과정을 거쳐 초기 문헌 전통으로 확립되어갔는지 비교 검토하려고 한다. 두 지역 문헌에는 유사성과 차이점 모두가 존재하는데, 본 연구팀은 두 문헌 전통의 핵심인 서사시, 지혜문학, 종교 비문(이상 근동), 역사, 書類(『상서』), 사상 문헌(이상 중국)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고대 근동 문헌의 발전

기원전 3000년경부터 수메르어를 표현한 쉼기문자는 처음에 장부나 계약 등 실생활에 사용되다 서사시나 찬시 등 시문, 기념문과 헌정문 등 정치 지도자의 문서, 속담 모음집과 교훈서 등 지식인들의 문학작품으로 발전했다. 수메르어 문헌은 기원전 2000년경 우르 제3왕조古巴빌론 왕국에서 필사되고 새로 창작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 절정기는 고대 근동의 주인공이 수메르인에서 아카드인으로 바뀌는 시기였다. 아카드어는 수메르어와 다른 어족에 속하지만, 아카드인은 기원전 23세기경부터 쉼기문자를 빌려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했다. 그러다 카시트 왕조 시대(기원전 1600-1200)에는 수메르어 작품을 아카드어와 다른 지방 언어로 번역하여 수메르 전통을 계승하면서, 아카드어로도 다양한 장르의 문헌을 창작하여 바빌론의 문학 전통을 확립했다. 이때부터 아시리아도 바빌론 문학을 자신들의 ‘고전’으로 인식했으며, 기원전 제1천년기 新아시리아 왕 앗수르바니팔의 도서관은 수메르, 바빌론 문학들로 채워진다. 이때 주변부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새로운 글쓰기 문화(예를 들어, 우가릿의 음소 쉼기문자 문헌, 페니키아, 아랍, 이스라엘의 ‘알파벳’ 문헌 등)이 태동한다. 고대 근동의 문헌 전통에는 찬시와 서사시, 사랑 노래, 신화, 왕궁 문서, 역사 문서, 법률 문서와 같은 전통적인 작품 외에, 신의 본질과 인생의 의미를 논의하는 지혜문학, 미래의 운명을 점치는 징조 문학, 제의와 관련된 다양한 종교문서가 있다.

■ 고대 중국 문헌의 발전

현재까지 확인된 중국의 글쓰기 문화는 기원전 13세기 갑골문에서 시작되었다.⁸⁾ 7만여 편의 문자가 새겨진 갑골에는 상나라 후기 왕실과 관련된 거의 모든 방면(조상

제사, 낚시, 추수, 왕의 巡狩, 사냥, 전쟁, 농지 개척, 읍 건설, 출산, 질병 등)의 점복 기록이 담겨 있다. 주나라가 상을 멸망시킨 기원전 11세기경부터 청동기 金文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한다. 약 2만 점의 금문은 기원전 5세기경까지 주나라 귀족들이 자신들의 戰功과 관직 임명 등 업적, 제사, 혼인, 가족사, 거래, 소송 등 중대사를 기록한 기념 문헌이다. 이 무렵에 시, 신화전설, 역사, 점복 등을 다룬 『시경』과 『서경』, 『주역』의 원류에 해당하는 문헌도 출현한다. 이는 춘추시대(기원전 8~5세기)에 정치 세력 사이의 맹약을 기록한 盟書, 국가별 연대기인 『춘추』 같은 초기 역사서를 거쳐, 전국시대(기원전 5~3세기)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1990년대부터 대량 출토되고 있는 초나라 죽간(楚簡) 문헌이 그 대표적 사례로, 크게 공문서(행정, 사법), 卜筮禱祠(점복, 제사), 遣冊(喪葬 의례), 문학성 서적류 등 네 부류로 나뉜다. 이 연구에서 주로 다루려고 하는 마지막 서적류는 문학, 역사, 사상, 문화, 방술 관련 문헌으로 2022년까지 총 10만여 자, 163종이 정리되었다. 이들은 진한 제국(기원전 221~기원후 220)을 거치면서 경전으로 수렴된다.

■ 고대 근동과 중국 문헌의 차이점

현재까지 드러난 두 지역의 문헌 전통은 역사적 조건과 출토된 글쓰기 매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첫째, 다극 체제의 고대 근동 문헌 전통이 장기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문헌을 생산한 반면, 중국의 경우 상과 주 왕조 중심의 일극 체제가 무너진 기원전 5세기 이후 초간 단계에 와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⁹⁾ 둘째, 고대 근동에서 신과 종교 관련 논의가 풍부했다면, 중국은 인간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고대 근동에서 지역성을 띠는 주변부 글쓰기 문화가 존재했다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고대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적 변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 외에 고대 근동 문헌 연구가 19세기부터 장기간 축적된 것과 달리, 20세기 들어 고문자 연구로 시작된 중국의 출토문헌학은 초간의 발견으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고대 근동과 중국 문헌의 유사성과 “전통의 물줄기”

두 지역의 문헌 전통은 크게 보아 시와 산문 등 문학, 신화전설을 포함한 역사, 신과 인간에 대한 지혜를 담은 사상, 미래를 예측하는 점복(징조) 등 여러 장르를 공유한다. 두 전통의 형성과정에서도 보편성이 확인된다. 저명한 독일의 이집트학자 얀 아스만(Jan Assmann)은 무문자사회의 집단 기억이 축제나 제사와 같은 의례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문자의 발명과 함께 문헌이 태동한 시기에도 오랫동안 무문자사회의 이러한 “의례적 일관성”(ritual coherence)이 텍스트의 형성을 이끌다가, 특정 유형을 갖춘 규범적 텍스트들이 대거 출현했다고 한다. 그는 아시리아

8) 갑골문이 상당히 성숙한 문자여서 갑골문보다 앞선 문자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9) 췌기문자를 새긴 점토판이 다양한 글쓰기에 사용된 일종의 범용 매체라면, 갑골문과 금문이 새겨진 龜甲과 청동 그릇은 의례용 특수 매체였다. 중국의 범용 매체였을 가능성이 큰 죽간은 부식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죽간의 연대는 기원전 5세기경이다. 그때부터 중국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헌이 확인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기원전 213년 진시황의 焚書 역시 죽간 문헌의 유실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학자 레오 오펜하임(Leo Oppenheim)의 표현을 빌려 기원전 제2천년기 후반부터 근동에서 나타난 다양한 장르의 문학이 분출하는 현상을 “전통의 물줄기”(stream of tradition)라고 묘사했다(Oppenheim 1964, 13).¹⁰⁾ 이 물줄기는 다양한 자료를 실어 나르는 변화무쌍한 유기적 흐름으로, 여러 갈래의 텍스트 중 일부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전사되고 인용되어 중요성을 인정받는다. 결국 “의례적 일관성”이 “문헌적 일관성”으로 대체되는 것과 함께 다양한 정치·문화·종교적 요인으로 인해 그 물줄기가 댐으로 막히는 경(정)전화(canonization)라는 마감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그 주장의 핵심이다(Assmann 2011, 76-81). 중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부합한다. 상과 서주시대 갑골문과 청동기 금문 등의례용 문헌은 초창기 근동 문헌처럼 “의례적 일관성”의 성격이 강하고, 전국시대 초간은 문헌의 붓물이 터진 “전통의 물줄기”에 해당한다. 그 전통의 물줄기는 결국 한대에 경전화된다.

■ 본 연구의 목표

오펜하임의 “전통의 물줄기”에서 착안한 이 연구는 고대 근동과 중국의 주요 문헌 장르들을 선별하여 그 전통의 물줄기가 형성-정리되는 과정을 “생성”, “확산과 저장”, “마감”의 세 단계로 나눠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팀은 다음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 (1) **고대 근동학 토대 구축:** 고대 근동학이 세계 고대문명 연구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소외된 연구 분야에 머물러 있다. 이런 점에서 본 과제는 이 분야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2) **중국 출토문헌 연구 심화:**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중국 출토문헌을 다룬 연구들이 출간되고 있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진 저본에 대한 해석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의식에 입각한 연구 결과와 관련 담론을 세계 학계에 내놓는 데 일조할 것이다.
- (3) **문헌 전문가 배출:** 인문학, 특히 고대문명의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헌 연구이다. 이런 점에서 본 과제는 국내에서 아직 생소한 문헌학을 학문 분과로 자리 잡게 하고, 두 핵심 문명의 주요 문헌 전문가를 배출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 (4) **고대문명 비교연구:** 지금까지 문자와 고대국가 발전과 관련된 비교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졌지만, 문헌에 대한 비교연구는 드문 편이다. 본 연구팀 구성원은 각자가 전공하는 문헌 역주에 일차적으로 집중하며, 그 결과를 다른 전공 연구자들과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얻게 될 다른 문명의 유사 문헌에 대한 이해를 각자의 주제 연구에 활용할 것이다. 예컨대 초간을 비롯한 고

10) 오펜하임은 아시리아의 점토판 문헌을 두 종류로 대별한다. 그 첫 번째가 “박식하고 잘 훈련된 서기들이 수세대에 걸쳐 복무한 전통에 의해 유지, 장악되어, 신중하게 보존된 문학적 텍스트 더미”로, 그가 바로 “전통의 물줄기”로 묘사한 것이다. 두 번째는 바빌로니아인들과 아시리아인들의 일상생활을 기록한 대량의 정보성 문헌이다.

대 중국의 문헌 형성사와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된 고대 근동의 사례가 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역으로 고대 중국의 다양한 사례 역시 근동 문헌 연구의 시야를 넓혀줄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본 연구는 2부, 3단계, 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핵심 문헌들에 대한 언어학적 역주 작업이다. 제2부는 역주 대상 문헌에 대한 텍스트 분석이다. 고대 근동과 중국의 초기 문자 언어 문화는 의례적 성격이 강했다. 고대 근동에서는 기원전 제2천년기~1천년기, 중국에서는 전국시대(기원전 5세기) 초간 단계에 와서 전문적 필사 집단을 주체로 한 다양한 문헌이 생산된다. 본 연구팀은 그 중 ① 서사시, ② 지혜문학, ③ 종교 비문(이상 근동), ④ 역사, ⑤ 상서, ⑥ 사상(이상 중국)의 여섯 장르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고대 근동과 중국의 문헌 형성사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면 시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① 생성 ② 확산과 저장 ③ 마감(표준화, 경전화)이라는 3단계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이 3단계가 본 연구의 기본 틀이다. ① 단계 생성에서는 근동의 경우 수메르의 서사시와 속담, 주변 지역 기록 문화의 기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중국 경우도 갑골문에서 춘추시대까지 출토문헌에 나타나는 문헌 태동기의 특징적인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두 지역에서 어떻게 장르별 텍스트가 출현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② 단계 확산과 저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섯 장르 문헌이 형성, 보존(반복), 변이, 잠복(배제)을 거치는 제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근동에서는 기원전 제2천년기 후반부터 1천년기에, 중국에서는 전국시대(5세기 BC)부터 다양한 텍스트의 운명이 갈리기 시작한다. 후대 저술의 모범이 된 책이 소위 ‘고전’이 되고, 중국의 경우 그 핵심 가치를 공인받은 것들이 經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즉 두 지역에서 정치·사회·종교적 필요에 따라 문헌의 표준화와 경전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③ 단계 마감에서 여섯 장르 문헌이 “안정” 혹은 “재확산” 되는 양상을 다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계별로 ⑦ 근동과 중국 문헌 발전의 특정 양상을 비교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위의 여섯 장르(항목)에 동서 문명 비교가 추가되어 7항목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수행계획은 다음의 <연구 내용 및 수행 계획표>와 같다.

11) 20세기 초부터 발견된 다양한 고대근동 문헌의 판본들은 경전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문헌 형성사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좋은 사례가 본 연구에서 다룬 문헌인 길가메시 서사시로, 이는 기원전 제2천년기 초반의 고바빌론 초기 사본에서 제2천년기 후반 카시드 왕조시대의 확장된 버전을 거쳐 기원전 7세기경 신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유적에서 발견된 경전화된 판본으로 발전했다. 약 1500년에 걸친 그 문헌의 진화 과정에 대한 분석이 최근 초간의 발견으로 관심을 끄는 중국의 五經이나 『論語』 등 문헌 형성사에 유용한 비교 사례가 될 것이다. 나아가 메소포타미아의 서기 양성 학교인 에둠바(É.DUB.BA)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헌의 교육과 전송 방식 역시 최근 논쟁이 치열한 고대 중국 문헌의 口傳과 書傳 전승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연구 내용 및 수행 계획표: 1~3차년(안착기)>

내용 (연구 영역 분장 및 세부 주제)			주요 연구 자료 (역주 대상 자료)
동서 문명 비교	근동: 서사시, 지혜문학, 종교문헌	중국: 역사, 상서, 사상	
연구책임자	전임연구원A, 전임연구원C, 공동연구원A	전임연구원B, 공동연구원C, 공동연구원B	
1단계(1.1~1.2차년) “생성: 초기 문헌의 발전”			
<공통: 분야별 연구사 정리 및 세부 연구 방향 설정>			
⑦ 동서 문명 비교	고대 근동과 중국의 문헌 장르 교차 검토		.
근동	① 서사시	길가메쉬의 전신 빌가메쉬 (수메르) 사본 연구	古巴빌론 제2점토관(Pen Museum번호 CBS7771)
	② 지혜문학	고대 書記 학교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수집한 수메르어 속담	수메르어 속담 모음집 1번
	③ 종교비문	고대 근동 기록 문화의 영향- 주변부 기록 문화의 기원과 그 변이	고대 근동 주변 지역의 비문 출토자료(MB, LB 시대)
중국	④역사·⑤상서	역사적 기억의 成文化 시작과 확대	甲骨卜辭(記事刻辭類), 金文(情報性), 盟書類
	⑥ 사상	점복 및 제사 의례에 관한 기록과 고대 사상의 발생	
2단계(1.2~1.3차년) “확산과 저장(1): 문헌의 보존, 변이, 잠복”			
⑦ 동서 문명 비교	고대 근동과 중국의 점복(징조) 문헌		.
근동	① 서사시	길가메쉬 이야기 속 점술의 문학적 기능	古巴빌론 제3점토관(Yale Babylonian Collection 번호 2178), 中바빌로니아 우르 점토관
	② 지혜문학	고대 수메르어 속담을 일상생활에 활용 목적으로 목록과 모음집으로 편집한 과정	수메르어 속담 모음집 2+6번, 3번
	③ 종교비문	고대 근동 종교 문헌의 역사적, 지리적 특징	테이르 알라 비문, 쿤틸렛 아주루드 비문
중국	④ 역사	역사 기록의 전문화와 장르적 전환 1, 2 : 계보성·연대기성 역사의 발전과 ‘보첩류’ · ‘기년류’	『良臣』, 『楚居』, 『繫年』
	⑤ 상서	『尙書』와 『尙書』가 되지 못한 문헌의 간극: 『逸周書』 관련 문헌	『皇門』, 『祭公之顧命(祭公)』, 『命訓』
	⑥ 사상	문화적 기억과 문헌의 형성; “덕” 개념의 진화와 그 철학적 변용	『尊德義』, 『子羔』, 『顏淵問於孔子』

〈연구 내용 및 수행 계획표: 4~7차년(공명기)〉

내용 (연구 영역 분장 및 세부 주제)			주요 연구 자료 (역주 대상 자료)
동서 문명 비교	근동: 서사시, 지혜문학, 종교비문	중국: 역사, 상서, 사상	
연구책임자	전임연구원A, 전임연구원C, 공동연구원A	전임연구원B, 공동연구원C, 공동연구원B	
2단계(2.1~2.2차년) “확산과 저장(2): 문헌의 보존, 변이, 잠복”			
⑦ 동서 문명 비교	고대 근동 문헌 전승을 통해 본 중국 문헌의 口傳과 書傳 논쟁		·
근동	① 서사시	길가메쉬 이야기의 제2천년기 사본들에 대한 분류와 연구; 길가메쉬 제11점토판에 기록된 홍수 이야기의 변화와 발전	아시리아 제2점토판 (베를린박물관번호 VAT 10585), 신바빌로니아 제11점토판 (영국박물관번호 K3375: ‘홍수점토판’)
	② 지혜문학	후대 아카드어로 번역하면서 선별된 속담들과 거기에 반영된 세계관	수메르어-아카드어 이중언어 속담집
	③ 종교비문	고대 근동 종교 문헌에 나타난 축문 형식; 고대 근동 문헌에 나타난 神名 연구	슬레브 비문, 메사 비문, 키르벳 엘-콤 비문, 텔 미크네 비문
중국	④ 역사	역사기록의 전문화와 장르적 전환 3, 4: 문서성·이야기성 역사의 발전과 ‘당안류’·‘고사류’	『廼命一』, 『廼命二』, 『越公其事』
	⑤ 상서	『尙書』와 『尙書』가 되지 못한 문헌의 간극: 古逸書類 문헌	『攝命』, 『命訓』, 『封許之命』
	⑥ 사상	종교적 의례에서 내면적 수양으로	『五行』, 『孔子詩論』, 『性自命出』
3단계(2.3~2.4차년) “마감: 안정 · 재확산”			
⑦ 동서 문명 비교	그리스, 로마의 Kanon과 중국의 經, 성경과 五經의 형성		·
근동	① 서사시	길가메쉬 이야기의 표준판 형성과 발전/역사적 길가메쉬와 문학적 길가메쉬의 비교	新바빌로니아 제5점토판 (이라크박물관 번호 IM76985)
	② 지혜문학	고전적 모음집에 포함된 속담들과 다른 문학양식으로 가공된 교훈, 우화, 논쟁들	아카드어 속담 모음집, 속담 인용문
	③ 종교비문	고대 근동의 종교 문헌과 성서의 상호관계성	케테프 힌눔 비문
중국	④ 역사	帝國 역사서로의 진화: ‘一家之言’ 역사 正典의 탄생	戰國-秦漢 長篇 歷史類, 傳來 史書
	⑤ 상서	텍스트 권력 차원에서 본 書篇의 소실과 부활, 今古文 논쟁	傳世本 『尙書』, 逸文, 傳來 史書
	⑥ 사상	戰國시대 『詩』·『書』·『禮』·『樂』의 형성: 집단 기억과 경전화	『民之父母』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요 검토 대상인 여섯 장르 문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서사시: 『길가메쉬 서사시』로 대표되는 수메르어와 아카드어 점토판 약 146점.
- ② 지혜문학: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속담과 교훈을 모음집 30여종.
- ③ 종교비문: 시리아/팔레스틴 지역의 쿤틸렛 아즈루드 외 20여종.
- ④ 역사류: 『춘추』로 대표되는 초기 역사성 기록, 43종 3만5천여자의 죽서.
- ⑤ 상서류: 『상서』로 대표되는 초기 산문, 22종 1만여자의 죽서.
- ⑥ 사상류: 제자백가로 치환되는 사상서, 67종 3만여자의 죽서.

앞의 <연구 내용 및 수행 계획표>의 우측에 “주요 연구 자료”로 제시된 문헌들은 위의 여섯 장르 중 핵심 문헌을 단계별 역주 대상으로 선별한 것이다. 매년 장르별 문헌 1편(전임연구원), 혹은 0.5편(공동연구원)씩 6년 동안 27편의 역주를 진행하여 2권의 총서로 출간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러한 역주를 바탕으로 위의 표에서 제시된 주제로 총 30편 정도의 관련 논문을 3권의 총서로 출간할 것이다. 총서에는 본 연구소에서 주관할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연구 참여진 이외의 논문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2부로 나누는 구체적 연구의 모델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제1부 : 역주 모델(근동과 중국)

<역주 예시(근동): VAT 8807, 뒷면 제3단 15행>

【해독표】

췌기 문자	𒊩𒌆𒍪	𒂗	𒂗	𒂗	𒂗	𒂗	𒂗	𒂗	𒂗	𒂗	𒂗	𒂗	𒂗	𒂗	𒂗	𒂗	𒂗
읽기	ŠAH	la	si	mat	É.KUR	la	LÚ	[t]e	me	la	ka	bi	is	a	gur	ri	
해석	šaḫû	la	simat	ekurri		la	amēl	ṭeme		la	kabis			agurri			
번역	돼지는 신전에 적합하지 않다.						생각이 있는 자에게도 [그렇지] 않다.				포장된 거리를 밟지 말 것이다.						

【해설】

- **【언어학 해설】** : 돼지라는 말은 어표(logogram)로 써서 격어미를 확인할 수 없으나(ŠAH) 문맥에 따라 주격으로 읽었다(šaḫû). 신전이라는 말은 원래 엔릴(Enlil) 신을 모신 신전만 가리키는 고유명사였으나 후대에 와서 신전 전체를 가리키는 보통명사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문장의 서술어는 명사 simtu (‘적절한 상징, 특징’)를 연계형으로 만들어서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 속격 ekurri와 연결했다. 마지막 문장은 동사 kabasu (‘밟다’)를 상태화 동사로 쓰고 명사 agurru (‘구운 벽돌’)를 복수 사격으로 읽었다. 명사의 기본적인 뜻은 벽돌이지만 문맥에 따라 벽돌로 포장한 거리라고 해석했다.
- **【역사적 정보】** : 이 문서는 앗슈르의 왕 사루킨 2세(Sargon II) 제6년에 필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기원전 716년). 앞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읽기 어렵고 뒷부분도 일부 훼손되었다. 앗슈르바니아플리(Ashurbanipal) 왕의 문서보관소에서 같은 문서의 사본으로 보이는 후기 바빌리 시대(LB) 점토판 조각들을 발견했으며, 훼손된 부분을 읽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문서는 속담 모음집이며 많이 사용하는 속담들을 주제에 따라 열거하거나 특정한 주제어를 중심으로 모아서 정리하였다. 이런 문학 양식은

슈메르어 문학전통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것이며, 아람어로 쓴 <악히카르의 지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문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후기 앗슈르 방언에 속하는 낱말(lapan)을 썼고 종속문(ki-i)을 많이 사용하는 특징을 보여주어,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말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필사한 시기인 기원전 8세기 또는 그 직전에 사용되던 속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주해】** :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 가축으로 기르던 동물은 양과 염소, 소, 당나귀 등을 들 수 있는데, 도시문명이 발달한 곳에서는 돼지도 일찍부터 사육하였다. <함무라비 법전>에서 가축을 훔치는 범죄를 규정할 때도 돼지를 언급하였고, 경제 관련 문서에서 돼지고기나 기름을 거래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문서에서 돼지는 신전에 어울리지 않는 동물이라고 말하여, 돼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존재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이 문서가 특정 주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는 글이 아니고 속담 모음집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형성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뒤에 따라 나오는 짧은 문장들을 기초로 추정하자면, 돼지의 비위생적인 습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신전에 제물로 바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같은 이유로 벽돌로 포장한 도시 중심지에 돼지를 데리고 들어오는 일 또한 적절한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한다.

<역주 예시(중국): 清華簡 『繫年』 제1장(1호간 일부)>

【해독표 (釋文表)】

원문 (圖版)																	
형태(直寫) [대표자]	筭 [昔]	周 [周]	武 [武]	王	監 [監]	觀 [觀]	商	王	之 [之]	不 [不]	龔 [龔]	帝=	帝	禮 [禮]	祀	不 [不]	賁 [賁]
발음 (上古音)	sjaag	tjuw	ma?	gʷaŋ	kraam	koon	hjaŋ	gʷaŋ	tju	pu?	kloŋ	teegs	teegs	qin	lju?	pu?	lin
의미 (현행한자)	昔	周	武	王	監	觀	商	王	之	不	恭	帝	帝	禮	祀	不	賁
한국어역 (直譯)	옛날, 周나라 武王은 살펴 보았다						商나라 왕이 帝(상제)를 공경하지 않고 帝의 인 제사(禮祀)를 경건히 하지 않는 것을										

【해설 (註釋)】

【1】 筭(昔)周(周)武(武)王監(監/鑑)觀(觀), 商(商)王(王)之(之)不(不)龔(恭)帝=(帝, 帝)禮(禮)祀(祀)不(不)賁(賁).

■ 1-1) 周(周)武(武)王 :

• **【언어·형태】** : 「 (周)」는 戰國 楚系 簡帛文 「周」 字形의 일종으로(「」, 信陽-1組竹簡12호간), 「 (用)」과 「 (甘)」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나라 이름 [周]를 나타내는 用音방식(단어의 소리를 활용한) 문자로 쓰인다. 『繫年』에서 「周」는 22회 보이며 「 (用+口)」(124호간), 「 (用+甘)」(5호간) 2종의 異體가 확인된다. 2종 異體의 주요 차이는 하단의 「口」와 「甘」인데, 『繫年』을 포함한 楚系 簡帛文에서 「口」(, 清華3-說命中6), 「甘」(, 包山-239호간) 그리고 이들과 유사한 「日」(, 上博1-絳衣6), 「日」(, 清華1-皇門10)의 문자 형태는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판독에 주의가 필요하다.

• **【언어·의미】 【역사 정보】** : 여기의 ‘周武王’은 周나라 武王(기원전1045~1043 재위)이다. 대개 先秦 전래문헌에서 周나라 武王은 ‘周’자를 쓰지 않고 ‘武王’으로만 표기하는데, 『繫年』에서 ‘周’를 더한 것에 대해, 劉國忠(2013)은 『繫年』이나 清華簡 1권 『周武王有疾周公所自以代王之志(金縢)』 등의 楚系 簡帛文에서 周나라 왕의 시호 앞에 ‘周’를 붙인 이유는 여러 楚王의 시호가 기존 周王들과 겹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한 ‘楚系 문헌의 특징’으로 본다. 吉本道雅(2013)는 『繫年』의 ‘周+某王’ 사례는 『春秋』나 『左傳』의 ‘某王’과는 다른 표기방식으로서 『繫年』이 周왕조에 대한 특권적 인식을 부정한 것으로 본다.

● **【주해】** : 吉本道雅(2103)의 ‘『繫年』 저자 관점 반영설’은 일면 가능한 추론이지만, 『繫年』의 ‘특권적 인식’과 관련된 표현으로는 ‘周’의 사용 有無보다는 楚의 군주를 일관되게 ‘王’으로 지칭한 것을 보다 분명한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듯하다. 본고는 『繫年』에서 周王의 칭호에 ‘周’를 덧붙인 이유를, 기본적으로는 劉國忠(2013)의 관점과 같이, ‘독자를 위한 구별 장치’에 가깝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劉國忠(2013)이 말하는 ‘周王과 楚王의 동일한 시호 구별’을 위한 것은 아니다. 『繫年』 전체를 살펴보면, 周나라 왕과 楚나라 왕을 표기할 때 ‘周/楚+某(諡號)王’, ‘某(諡號)王’, ‘周王/楚王’으로 쓰는데, 이는 周王 뿐만 아니라 楚王도 ‘楚’의 有無가 존재하고 시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은 『繫年』의 어떤 章에서 특정 周王과 楚王이 처음 등장하거나 갑자기 등장할 때만 ‘周’와 ‘楚’를 붙이고, 다시 그 왕이나 그를 잇는 後王의 경우에는 따로 ‘周’나 ‘楚’를 병기하지 않는 ‘某(諡號)王’ 혹은 ‘周王/楚王’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독자가 각 章에서 문맥으로 왕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굳이 ‘周’나 ‘楚’를 붙이지 않는다. 따라서 『繫年』에서 보이는 周王과 楚王의 다양한 표기 방식은 章 단위로 그 인물의 정체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특징적인 어법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繫年』에서 周王과 楚王의 호칭 앞에 ‘周’나 ‘楚’를 붙이는 용법은, ‘독자의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한 『繫年』의 독자적인 作法일 가능성이 높다.

고대의 출토문헌을 2차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구미나 중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출토문헌 연구의 절반 이상이 1차 해석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본 연구의 한 축인 중국출토문헌팀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강독을 진행하면서 중국, 일본, 구미의 역주 방식을 발전시켜 언어-문자학적 해독 모식을 개발했다. 위의 <역주 예시>처럼 근동 문헌 팀 역시 체제를 확정하여, 탄탄하고 일목요연한 역주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2) 제2부 : 문헌 형성의 단계별 접근

본 연구팀은 ① 서사시, ② 지혜문학, ③ 종교비문, ④ 역사류, ⑤ 상서류, ⑥ 사상류 문헌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연구자의 전공별 장점을 살려서, 해당 장르 문헌의 형성사를 생성, 확산과 저장, 마감의 3단계로 나누어 검토하려고 한다. 이러한 텍스트 발전의 추이와 함께 ‘문화적 기억’, ‘문헌의 구전과 서사 전승’, ‘의례에서 문헌으로의 전이’, ‘문헌의 산출과 그 구성의 문법’, ‘특정 문헌이 주체로서 그 세계를 형성해가는 동력(formative power)’과 같은 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연구 시각의 다양화를 꾀할 것이다. 단계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성**: 문자의 기원에서부터 위의 여섯 유형 문헌의 연원까지 다루려고 한다. ① 근동 서사시는 그 원류 탐색의 일환으로서 길가메쉬의 전신인 빌가메쉬의 수메르어 사본을 검토할 것이다. ② 지혜문학 역시 그 원류인 고대 서기 학교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수집한 속담들을 살펴볼 것이다. ③ 종교비문은 주변부 기록 문화의 기원과 변이를 통해 중심부의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④ 중국 역사류는 갑골문 記事刻辭와 정보성 금문의 분석을 통해 역사적 기억이 최초로 성문화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⑤ 상서류는 『상서』의 원류인 서주 冊命 금문을 텍스트 권력 주체의 측면에서 다룬다. ⑥ 사상류는 종교적 의례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갑골문을 중심으로, 점복 및 종교 의례 그 자체가 문자 언어의 생성과 발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음을 구명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⑦ 동서문명 비교에서는 고대 근동과 중국 문헌 장르 구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교차 검토할 것이다.

② **확산과 저장:** 본 연구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근동과 중국 문헌 전통의 물줄기가 분출하는 다양한 면모를 분석할 것이다. ① 서사시는, 길가메쉬 이야기에 나타나는 점술의 문학적 기능, 기원전 제2천년기 사본들에 대한 분류와 연구, 길가메쉬 제11점토판 홍수 이야기의 변화와 발전을 다룰 것이다. ② 지혜문학은, 고대 수메르어 속담 목록과 이들을 모음집으로 편집한 과정, 후대 아카드어로 번역하면서 선별된 속담들과 거기 반영된 세계관을 검토할 것이다. ③ 종교비문은, 고대 근동 종교 문헌의 역사적, 지리적 특징과 함께 축문 형식과 신들의 이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④ 역사류는, 초간 譜牒類·紀年類·檔案類·古事類 문헌의 분석을 통해 역사 문헌 생산의 전문화와 장르적 전환을 구명할 것이다. ⑤ 상서류는, 초간 상서류의 문헌 분석을 통해, 하상주 삼대의 기억이 도덕적 이념 아래 재구성되어 새로운 역사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⑥ 사상류는, 종교적 의례로부터 출발한 ‘덕’ 개념이 수양을 통한 내면화 과정을 통하여 도덕성의 철학적 개념으로 진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청동기 명문과 초간을 중심으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⑦ 동서문명 비교에서는, 고대 근동과 중국의 점복(징조) 문헌을 비교 검토하고, 고대 근동의 문헌 전승을 통해 중국 문헌의 口傳과 書傳 논쟁도 살펴볼 것이다.

③ **마감:** 기원전 제1천년기에 문헌 전통의 다양한 물줄기가 표준화, 경(정)전화(canonization)되는 양상을 다룰 것이다. 당대 정치·지식 권력 등 제반 권력의 작동 속에서, 기존 문헌들에 대한 선택적 배제와 내포, 그리고 이에 기초한 제도적 규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위계적으로 권위·권력화된 경(정)전이 확립된다. ① 서사시는, 길가메쉬 이야기의 표준관 형성과 발전을 분석하고, 역사적 길가메쉬와 문학적 길가메쉬를 비교할 것이다. ② 지혜문학은, 고전적 모음집에 포함된 속담들과 다른 문학 양식으로 가공된 교훈, 우화, 논쟁을 검토할 것이다. ③ 종교비문은, 고대 근동의 종교 문헌과 성서의 상호관계성을 살펴볼 것이다. ④ 역사류는, 전국-진한 장편 역사류 출토문헌과 전래 역사서의 분석을 통해 제국 역사서로의 정전화를 고찰할 것이다. ⑤ 상서류, 특히 『상서』 관련 전래문헌의 기록을 통하여 書篇의 소실과 부활, 今古文 논쟁을 텍스트 권력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⑥ 사상류는, 전국시대 의례 전문가들의 집단 기억과 『시』, 『서』, 『예』, 『악』의 텍스트 형성과정을 다룰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⑦ 동서문명 비교에서, 그리스, 로마의 “Kanon” 과 중국의 “經”, 성경과 五經의 형성과정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문헌 장르와 세부 연구주제는 실제 연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⑦ 동서문명 비교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주관하지만, 사실상 공동연구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이 3단계 연구를 통해 전근대 문명의 토대가 된 기반 문헌의 형성사와 그 다양한 함의를 다음과 같이 5권의 총서에 담아낼 것이다(이하 모두 가제): (1) 『문자의

기원과 문헌의 형성』, (2) 『의례 텍스트에서 서적으로』(역주), (3) 『문헌의 확산과 변이』, (4) 『고대 문헌 전통의 물줄기』(역주), (5) 『고전화와 경전화의 여정』.

3. 학제적·분과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고대 근동과 중국의 문헌을 하나의 틀 속에서 검토하려는 이 연구는 이미 그 자체 만으로도 학제적, 분과통합적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수메르어와 아카드어, 히브리어 등 근동의 다양한 언어로 서술된 문헌뿐만 아니라, 갑골문과 금문, 초간에 이르는 중국의 다양한 문자 자료를 유기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 연구의 구성원은 문사철뿐만 아니라 고고학과 종교학에 이르기까지 인문학의 전 분야를 망라할 정도로 연구의 폭이 다양하다.

본 연구팀은 또한 고문헌 방면의 DB 구축에 관심이 있다. 이 분야 DB는 구미와 중국, 대만이 크게 앞서 있어서(참고문헌 온라인 자료 참조) 새로운 연구를 추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본 연구책임자 주도하에 수행하여 2016년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로 완성한 “구미 동아시아학 성과에 대한 해제 목록 DB” (<https://weas.info/>)와 비슷한 유형의 DB 구축은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이 연구는 2017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에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룰 여섯 장르의 문헌은 중국의 경우 한대부터, 근동의 경우 19세기 이래로 어마어마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출토문헌까지 포함한 주요 연구성과를 장르별로 세분화한 ‘기반 문헌 연구 해제 목록’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글과 中文, 영문 삼중 언어로 DB화할 수 있다면, 전 세계 연구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토대연구 사업에는 본 연구의 연구원으로 참여할 2인(빈동철, 김석진)도 동참했기 때문에, DB 구축 노하우가 이미 축적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온라인 다국어 저널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소가 추후 장기적으로 추구할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4. 연구진 구성 및 연구계획

구분	성명	연구 역할분담 내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 수
연구책임자	심재훈	⑦ 동서 문명 비교, 전체 연구 총괄, 고대문명번역총서 담당	1
공동 연구원	일반공동 연구원	강후구	·
	빈동철	③ 종교비문 연구, 근동 연구 총괄	
	성시훈	⑥ 사상류 문헌 연구, 강독 모임 총괄 및 국제 학계 교류 총괄	
전임 연구인력	김구원	① 서사시 연구, 근동 언어 강좌 주관, 정기포럼 담당	2
	전임C	② 지혜문학 연구, 근동 언어 강좌 주관	
	김석진	④ 역사류 문헌 연구, 강독 모임 주관, 학술대회 담당	

본 연구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위의 <연구 내용 및 수행 계획표>에 연구의 내용과 그 분담 수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수월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여 논문 및 총서로 보고할 것이다.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3년에 2편, 전임연구원은 1년에 2편(연구논문 및 역주논문 각각 1편씩)의 논문게재 목표에 전념하여, 대략 50편(1단계 21편, 2단계 29편) 정도의 논문을 산출하리라 예상한다.

5. 연구수행 일정

과제목표 (1단계 1차년도)	1단계: "생성"		
기간(YMMM)	주요내용		
		비고	
'23.09.~ '23.10.	연구	-1단계 3년간 연구 목표 및 역할 분장 점검 -연구사 정리 및 연구 전략 수립 -월례 정기포럼(월 1회)/출토문헌 강독(월 2회)	.
	행정	-1단계 3년간 연구 예산 사용 계획 점검 -전임연구인력 임용 및 행정인력 채용 -연구소 인프라 확대 구축(공간, 기자재 등)	
'23.11~ '23.12.	연구	-월례 정기포럼(월 1회)/출토문헌 강독(월 3회) -문헌 역주 및 논문 작성	<연구 내용 및 수행 계획표>
'24.01~ '24.02.	연구	-1단계 1차년도 연구 성과 정리 / 2차년도 연구 목표 점검 -학술대회 준비 및 연구총서 발간 기획 점검 -월례 정기포럼(월 1회)/출토문헌 강독(월 3회)	.
	행정	-1단계 1차년도 회계 결산	

과제목표 (1단계 2차년도)	1단계 "생성"~2단계 "확산과 저장"		
기간(YMMM)	주요내용		
		비고	
'24.03.~ '23.05.	연구	-1단계 2차년도 연구 목표 점검 및 역할 분장 -학술대회 개최 준비 및 연구총서 발간 준비 -월례 정기포럼(월 1회)/출토문헌 강독(월 3회)	.
	행정	-연구 예산 사용 계획 점검	
'24.06.~ '24.12.	연구	-1차 성과점검 국내 학술대회 개최 -연구 총서 제1권 출간 -월례 정기포럼(월 1회)/출토문헌 강독(월 3회)	<연구 내용 및 수행 계획표>
'25.01~ '25.02.	연구	-1단계 2차년도 연구 성과 정리 -1단계 3차년도 연구 목표 점검 -월례 정기포럼(월 1회)/출토문헌 강독(월 3회)	.
	행정	-1단계 2차년도 결산	

과제목표 (1단계 3차년도)	2단계 "확산과 저장"		
기간(YMMM)	주요내용		
		비고	
'25.03.~ '25.05.	연구	-1단계 3차년도 연구 목표 점검 및 역할 분장 -학술대회 개최 및 연구총서 발간 준비 -월례 정기포럼(월 1회)/출토문헌 강독(월 3회)	.
	행정	-연구 예산 사용 계획 점검	
'25.06.~ '25.12.	연구	-2차 성과점검 국내 학술회의 개최 -연구 총서 제2권 출간 -월례 정기포럼(월 1회)/출토문헌 강독(월 3회)	<연구 내용 및 수행 계획표>
'26.01~ '26.02.	연구	- 1단계 3차년도 연구 성과 정리 - 1단계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월례 정기포럼(월 1회)/출토문헌 강독(월 3회)	.
	행정	- 1단계 3차년도 결산	

과제목표 (2단계 1차년도)		2단계 "확산과 저장"	
기간(YMMM)	주요내용		비고
'26.03.~ '26.05.	연구	-2단계 3년간 연구 목표 점검 및 역할 분장 -월례 정기포럼(월 1회)/출토문헌 강독(월 3회)	.
	행정	-2단계 3년간 연구 예산 사용 계획 점검	
'26.06.~ '26.12.	연구	-3차 성과점검 국제 학술회의 개최 -연구 총서 제3권 출간 -월례 정기포럼(월 1회)/출토문헌 강독(월 3회)	<연구 내용 및 연구수행 계획표>
'27.01~ '27.02.	연구	- 2단계 1차년도 연구 성과 정리 / 2차년도 연구 목표 점검 -월례 정기포럼(월 1회)/출토문헌 자료 강독(월 3회)	.
	행정	- 2단계 1차년도 결산	

과제목표 (2단계 2차년도)		2단계 "확산과 저장"	
기간(YMMM)	주요내용		비고
'27.03.~ '27.05.	연구	-2단계 2차년도 연구 목표 점검 및 역할 분장 -월례 정기포럼(월 1회)/출토문헌 강독(월 3회)	.
	행정	-2단계 2차년도 연구 예산 사용 계획 점검	
'27.06.~ '27.12.	연구	-4차 성과점검 국내 학술회의 개최 -연구 총서 제4권 출간 -월례 정기포럼(월 1회)/출토문헌 강독(월 3회)	<연구 내용 및 수행 계획표>
'28.01~ '28.02.	연구	- 2단계 2차년도 연구 성과 정리 / 3차년도 연구 목표 점검 -월례 정기포럼(월 1회)/출토문헌 강독(월 3회)	.
	행정	- 2단계 2차년도 결산	

과제목표 (2단계 3차년도)		3단계 "마감"	
기간(YMMM)	주요내용		비고
'28.03.~ '28.05.	연구	-2단계 3차년도 연구 목표 점검 및 역할 분장 -월례 정기포럼(월 1회)/출토문헌 강독(월 3회)	.
	행정	-연구 예산 사용 계획 점검	
'28.06.~ '28.12.	연구	-국제 학술회의 "세계 고대문헌 형성의 다양한 양상" 개최 -월례 정기포럼(월 1회)/중국 출토문헌 자료 강독(월 3회)	<연구 내용 및 수행 계획표> 참조
'29.01~ '29.02.	연구	-2단계 3차년도 연구 성과 정리 -월례 정기포럼(월 1회)/출토문헌 강독(월 3회)	.
	행정	-2단계 3차년도 결산	

과제목표 (2단계 4차년도)		연구 최종 정리와 결산	
기간(YMMM)	주요내용		비고
'29.03~ '29.08.	연구	-연구 총서 제5권 출간 -연구 최종 정리,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후속 연구 과제 도출 -월례 정기포럼(월 1회)/출토문헌 강독(월 3회)	
	행정	- 2단계 4차년도 결산	

6. 성과목표

가. 논문 및 저·역서 목표

구분		논문 및 저역서 목표(1단계)		비고
		2차년도	3차년도	
논문	SCI급	0건	1건	
	KCI급	7건	7건	
저역서	단독	0건	0건	
	공동	1건	1건	

나. 학술대회 논문 발표

구분		학술대회 논문 발표(1단계)		비고
		2차년도	3차년도	
학술대회	국내	4건	4건	
	국제	2건	2건	

다. 학술대회 개최 목표

구분		학술대회 개최(1단계)		비고
		1~2차년도	3차년도	
학술대회	국내	1건	1건	
	국제	0건	0건	

라. 연구총서 발간 목표

구분		연구총서 발간(1단계)		비고
		1~2차년도	3차년도	
연구총서		1건	1건	

7. 연구비 규모 (‘대응자금’ 규모 및 사용 계획은 19쪽 “나. 대응자금” 참조)

가. 1차년 예산 사용 계획: 총 130,000천원

(단위: 천원)

비목	세목	세세목	산출근거	계		
직접비	인건비	전임연구인력(3인)	연봉 4,500만원(6개월분, 기관지원금, 퇴직금 포함)	67,500		
		소계: 67,500				
	학생인건비	연구보조원(석사 2인)	월 160만원×6개월×2인		19,200	
		연구보조원(학사 1인)	월 80만원×6개월×1인		4,800	
		소계: 24,000				
	연구활동비	외부	해외학자 초청	300만원(왕복항공료, 숙박 등)×1회	3,000	
			전문	월레 세미나	40만원×6회	2,400
		기술	번역비 및 통역비	50만원×2회		1,000
			회의비	연구 점검 회의	20만원×6회	
		출장비	국내 출장비	국내 학회 발표 및 참석: 15만원×4인		600
			해외 출장비	해외 학회 참석, 해외 현지답사: 400만원×1인		4,000
			연구실운영비	300만원(노트북, 책상, 유료 온라인 DB 등)×1회×4인, 홈페이지 운영, 공과금, 복사, 우편, 소모성 비품 등		13,200
		가타비용	문헌구입비	50만원×1회×7인		3,500
	소계: 28,900					
	연구수당	연구수당	4인(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40만원×6개월		9,600	
소계: 9,600						

나. 2차년~6차년 예산 사용 계획: 연 260,000천원

(단위: 천원)

비목	세목	세세목	산출근거	계		
직접비	인건비	전임연구인력(3인)	연봉 4,500만원(기관지원금, 퇴직금 포함)	135,000		
		소계: 135,000				
	학생인건비	연구보조원(석사 2인)	월 160만원×12개월×2인		38,400	
		연구보조원(학사 1인)	월 80만원×12개월×1인		9,600	
	소계: 48,000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해외학자 초청	300만원(왕복항공료, 숙박 등)×1회	3,000	
			월례 세미나	40만원×12회	4,800	
			번역비 및 통역비	50만원×5회	2,500	
		회의비	학술대회	발표비: 30만원×5건 / 논평비 등: 10만원×5건 / 사회비 및 좌장비: 10만원×2건		2,200
			학술대회	만찬비: 50만원×1회		500
		출장비	연구 점검 회의	20만원×6회		1,200
			국내 출장비	국내 학술대회 발표 및 참석: 10만원×3회		300
		기타 비용	해외 출장비 ¹²⁾	해외 학술대회 참석, 해외 현지답사: 400만원×7인		28,000
			연구실운영비		100만원(노트북, 책상, 유료 온라인 DB 등)×1회, 홈페이지 운영, 공과금, 복사, 우편, 소모성 비품 등	2,200
			출판비	저술출판비용	출판비(1년 1회): 300만원	3,000
				논문게재료	30만원×9건	2,700
		학술대회 개최비		명찰, 필기구 등 잡비: 10만원×1식 자료집 제작비: 30만원×1식	400	
	문헌구입비	100만원×1회×7인		7,000		
	소계: 57,800					
	연구수당	연구수당	4인(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40만원×12개월		19,200	
	소계: 19,200					

다. 7차년 예산 사용 계획: 총 130,000천원

(단위: 천원)

비목	세목	세세목	산출근거	계
인건비	전임연구인력(3인)	연봉 4,500만원(6개월분, 기관지원금, 퇴직금 포함)		67,500
	소계: 67,500			
학생인건비	연구보조원(석사 2인)	월 160만원×6개월×2인		19,200
	연구보조원(학사 1인)	월 80만원×6개월×1인		4,800
소계: 24,000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해외학자 초청	300만원(왕복항공료, 숙박 등)×1회	3,000
		월례 세미나	40만원×6회	2,400
	회의비	번역비 및 통역비	50만원×2회	1,000
		연구 점검 회의	20만원×6회	1,200
	출장비	국내 출장비	국내 학회 발표 및 참석: 15만원×4인	600
		해외 출장비	해외 학회 참석, 해외 현지답사: 300만원×5인	15,000
	연구실운영비		100만원(노트북, 책상, 유료 온라인 DB 등)×1회×1인, 홈페이지 운영, 공과금, 복사, 우편, 소모성 비품 등	2,200
	기타비용	문헌구입비	50만원×1회×7인	3,500
		소계: 28,900		
	연구수당	연구수당	4인(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40만원×6개월	
소계: 9,600				

※ 본 연구의 대상인 근동과 중국의 문헌은 모두 근동과 중국에서 출토된 것이다. 연

12) 6차년에는 국제학술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세세목 “해외출장비”의 편성 금액 28,000천원을 세세목 “해외학자 초청”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구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둘러싼 고고학적, 형태론적 이해가 필수적인 만큼 현지답사는 필수적이다. 더욱이 세계 각국에서 이들 문헌에 대한 학술대회가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본 연구팀은 이에 해외 출장비를 예산에 편성한다.

VI 인력양성 계획

1.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1) **연구원:** 본 프로젝트의 중국 지역 전문가는 연구책임자와 석사과정 때부터 장기간 함께 공부해왔다. 이미 출토문헌 자료에 익숙할 정도로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 본 연구의 6년 동안 역사, 상서 사상류 문헌에 특화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근동 지역 연구원들은 이미 중견 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모두 특정 장르의 문헌이라는 연속성 있는 주제를 설정한 만큼, 6년 동안 본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자연스럽게 저서 한 권씩을 출간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보조원:** 근동 지역은 국내에 대학원 프로그램이 없어서 당분간 단국대학에서 연구책임자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들 위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 중 석사과정생 이정우는 한국고등교육재단 “한학·중국어 심화연수” 3기 장학생으로 한문 교육을 받았다(2019-2021년). 김혜연도 전통문화연구회와 유도회의 한학 연수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들은 본 연구팀의 보조원으로 출토문헌 강독을 비롯한 학술모임에 참여하면서, 중국 출토문헌을 기반으로 한 중국 고대사 방면의 석사논문을 작성할 것이다.

(3) **대학원생 확보:** 연구책임자의 경우 현재 학부생 수 명이 중국고대사에 관심이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다.¹³⁾ 나아가 단국대 사학과 대학원에 고대문명 전공 석사과정을 시험적으로 개설하고, 궁극적으로 고대문명연구소 산하에 전문대학원 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2. 교육과 연구의 연계현황 및 운영계획

(1) **교육 연계 현황:** 15년 동안 지속된 중국 출토문헌 연구팀의 강독모임을 통해 중국 고문자 자료들을 익혀서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과정을 진행 중인 사례들이 있다. 본 연구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성시훈이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에서, 전임연구원 김석진이 단국대 사학과에서 출토문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구본희가 단국대 박사과정에서 마왕퇴백서 『戰國縱橫家書』로 박사논문을 완성해가고 있다. 김석진과 구본희는 각각 2016~2019년과 2018~2021년에 한국연구재단의 “글로벌박사양성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김혁과 김정남은 復旦大學 古文字與出土文獻研究中心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소동섭(단국대, 북경대학), 김용하(고려대, 미국 컬럼비아대학), 이준표(성균관대, 미국 오레곤대학)가 학위과정을 거치고 있다.

13) 그중 한 명인 김민성은 대학혁신사업으로 실시하는 “학부생연구트랙제”에 선발되어 지도받았고, 현재 중국 南開大學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다.

No.	이름	출신학교(석-박)	학 위	전 공
1	김정남	서울대 - 復旦大	박사	고문자학, 문헌학 (『尙書』, 전국시대 죽간)
2	김혁	연세대 - 復旦大	박사	고문자학 (갑골문)
3	성시훈	성균관대 - 성균관대	박사	유교철학 (『尙書』, 전국시대 죽간)
4	김석진	단국대 - 단국대	박사	역사학 (전국시대 죽간)
5	구본희	단국대 - 단국대	박사과정	역사학 (마왕퇴백서)
6	김용하	고려대 - 컬럼비아대	박사과정	역사학
7	소동섭	단국대 - 北京大	박사과정	역사학
8	이준표	성균관대 - 오레곤대	석사과정	철학, 사상사

(2) **대학원 연계 교육 프로그램:**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근동과 중국 출토문헌을 공부할 후학을 여러 명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중국 고대사나 선진 철학, 고대 문학 등 전공이 개설된 기존 대학원 프로그램과 연계를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단국대 사학과 이외에도 고대문명연구소 연구위원들이 재직하는 대학들과도 관련 교과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들 대학 대학원생도 연구소 차원에서 연구보조원 임용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3) **고문자와 출토문헌 학교:** 고대문명연구소는 2022년 2월~5월 갑골문, 금문, 초간, 마왕퇴백서를 심도 있게 소개한 강연을 진행했고, 상당한 호황을 이루었다. 현재 한국고대근동학회의 구성원이 주관하는 고대 썬어 공부 모임에서도 대학원생과 직장인 등 고대 근동 언어를 공부하려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모델로 삼아 매년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에 4주 과정의 고문자와 출토문헌 심화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자 한다. 이 두 과정은 교장 형식의 책임자를 정하고, 본 연구과제의 공동연구원과 전임연구원이 강사로 교육을 담당할 것이다.

VII 연구성과 기여도

1.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기여도

가. **이슬람을 넘어서:** 한국인은 대체로 근동 혹은 중동에서 이슬람을 우선 떠올린다. 그러나 이슬람 이전에 근동은 문자와 종교, 법, 도시, 국가, 제국 등을 발명하여 세계 문명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한국과 무역에서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인 중동 지역의 이해를 심화시켜 줄 것이다.

나. **학술 역량의 토대 구축:** 현재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럼에도, 학술, 특히 인문학 분야에서 그에 걸맞은 위치에 도달하고 있는 지 아쉬운 면이 있다. 기초 역량의 부족이 여러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수학이나 물리 같은 기초 과학의 토대 없이 응용 학문이 성장할 수 없듯이, 인문학 역시 문헌학 같은 토대 없이 세계적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전 세계 학술계가 주목하는 고대 근동과 중국의 기반 문헌 연구는 인문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제 이러한 문헌들을 한국 연구자의 시각에서도 심도 있게 구명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이러한 인문학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학술 역량의 토대를 굳건하게 해주어, 궁극적으로 사회문화·경제적 발전에도 공헌할 것이다.

다. 한국 인문학의 세계화: 학술 차원에서의 인문학이 경제적 가치 창출로 직결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 인문학의 세계화가 작은 돌파구는 마련해줄 것으로 본다. 현재 과학계는 세계적 차원에서 학문의 장이 형성되어 있다. 인문학 연구는 아직 지역성이 강하지만, 기계 번역을 비롯한 디지털 학술의 발전이 점차 인문학의 탈지역화를 추동해나갈 것이다. 한국에서 고대 근동과 중국 연구의 저변이 약한 상황에서도, 본 연구팀의 구성원들은 국제적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의 오랜 한학 전통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한 장기에 걸친 동아시아출토문헌연구회와 죽간강독 모임의 내실 있는 성과 역시 한국의 연구자가 중국 출토문헌 연구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인문학의 세계화를 선도하며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일조할 것이다.

2. 연구성과의 파급효과 및 후속연구 파생 가능성

가. 출토문헌 연구의 확대를 위한 토대 제공: 고대 근동과 중국 지식인들의 지적 활동과 문화적 성취를 이해하는 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던 출토문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본 연구는 고대 사상과 문화를 분석하는 작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추구할 ‘문화적 기억’, ‘문헌의 구전과 서사 전승’, ‘의례 중심 텍스트에서 문학성 문헌으로의 전이’, ‘문헌 생산과 그 구성의 문법’, ‘특정 문헌이 주체로서 그 세계를 형성해가는 동력’ 등과 같은 이론적 접근 역시 출토문헌에 대한 관심과 후속 연구를 촉발할 것이다.

나. 후속 연구의 확대: 고대 근동과 중국의 다양한 기록을 문사철, 종교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본 연구는 이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학문적 방향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나아가 문헌이 경(정)전으로 고정된 후대의 전래 문헌 연구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고대문명 비교연구의 시발점: 문자와 언어, 문헌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고대문명 연구의 핵심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연구소의 취지에 맞게 세계사적 보편성을 염두에 두고 비교연구를 지향할 것이다. 그러나 문명의 비교연구는 한 지역의 자료 습득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문헌이 생산된 특정 지역의 사회와 문화 및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진행되는 비교연구는 연구 대상 텍스트를 물적으로 대상화하는 문제점을 낳는다. 이에 유의하면서 일차적으로 근동과 중국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가 여타 지역 문명 연구자들과의 교감을 통해 최소한 고대 문헌 형성에 관한 한 비교연구의 물꼬를 틀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산으로 기획된 국제 학술대회 “세계 고대 문헌 형성의 여러 양상”이 비교연구 단서 마련의 중요한 일보가 될 것이다.

< 붙임-1 >

2023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연구참여자 연구비 수주실적

대학(기관)명	단국대학교	연구소명	고대문명연구소	연구과제명	고대 근동과 중국 문헌 전통의 물줄기
---------	-------	------	---------	-------	----------------------

총괄현황

구분	연구참여 총 인원	연구참여 총 인원 대비 연구비 수주실적			비고
		연구비 수주 실적인원	연구비 수주 건수	연구비 수주 금액	
연구책임자	1명	1명	8건	252,395천원	
일반공동연구원	3명	3명	11건	289,000천원	
계	4명	3명	19건	541,395천원	

세부현황

연도	No.	참여구분	연구과제명(사업명)	발주처	연구기간	금액(천원) (해당년도)	과제당 공동 연구원 수	수주방법	간접비 지원여부
2018	1	연구책임자 (심재훈)	二里頭 중국 고대국가 기원론의 딜레마 (교내연구비)	단국대	2018~2019	5,000천원	·	개별수주	미지원

연도	No.	참여구분	연구과제명(사업명)	발주처	연구기간	금액(천원) (해당년도)	과제당 공동 연구원 수	수주방법	간접비 지원여부
2019	2	연구책임자 (심재훈)	동북아 고대사 연구의 신기원: 고고학으로 재탄생한 부여사와 그 기억 (교내연구비)	단국대	2019~2020	5,000천원	·	개별수주	미지원
2020	3	연구책임자 (심재훈)	청화간 『晉文公入於晉』의 역주와 신빙성 문제 (교내연구비)	단국대	2020~2021	5,000천원	·	개별수주	미지원
2021	4	연구책임자 (심재훈)	고대문명 연구의 기반 구축 (단국대 전문연구회 정책연구과제 지원사업)	단국대	2021~2022	1,000천원	·	연구소수주	미지원
2021	5	연구책임자 (심재훈)	중국에 나타난 그리핀과 문명의 동진 (교내연구비)	단국대	2021~2022	5,000천원	·	개별수주	미지원
2022	6	연구책임자 (심재훈)	동아시아 문헌 전통의 물줄기 (단국대 전문연구회 정책연구과제 지원사업)	단국대	2022~2023	4,000천원	·	연구소수주	미지원
2022	7	연구책임자 (심재훈)	문명의 시원, 그 연구의 여정과 실제	한국 연구재단	2022~2023	97,455천원	7	연구소수주	지원(포함)
2023	8	연구책임자 (심재훈)	문명의 시원, 그 연구의 여정과 실제	한국 연구재단	2023~2024	129,940천원	7	연구소수주	지원(포함)
2018	9	일반공동연구원 (성시훈)	『尙書』의 경전화 과정에 대한 연구: 출토문헌과 『尙書』의 비교를 통한 유교 도통의 검토 (학문후속세대양성, 박사후국내연수)	한국 연구재단	2018~2019	33,000천원	·	개별수주	미지원
2019	10	일반공동연구원 (성시훈)	변화하는 성현, 역동하는 사상: 청화간의 이윤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신진연구자지원사업)	한국 연구재단	2019~2020	20,000천원	·	개별수주	지원

연도	No.	참여구분	연구과제명(사업명)	발주처	연구기간	금액(천원) (해당년도)	과제당 공동 연구원 수	수주방법	간접비 지원여부
2020	11	일반공동연구원 (성시훈)	변화하는 성현, 역동하는 사상: 청화간의 이윤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신진연구자지원사업)	한국 연구재단	2020~2021	20,000천원	·	개별수주	지원
2021	12	일반공동연구원 (성시훈)	변화하는 성현, 역동하는 사상: 청화간의 이윤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신진연구자지원사업)	한국 연구재단	2021~2022	20,000천원	·	개별수주	지원
2022	13	일반공동연구원 (성시훈)	천명의 철학적 탐색을 위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 춘추시대 청동기 명문과 전국시대 죽간을 중심으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 A-1 트랙)	한국 연구재단	2022~2023	30,000천원	·	개별수주	지원
2022	14	일반공동연구원 (성시훈)	천명의 철학적 탐색을 위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 춘추시대 청동기 명문과 전국시대 죽간을 중심으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 A-1 트랙)	한국 연구재단	2022~2023	40,000천원	·	개별수주	지원
2020	15	일반공동연구원 (빈동철)	고대 중국의 유가 전통과 전승 계보 연구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 A-1 트랙)	한국 연구재단	2020~2021	40,000천원	·	개별수주	지원
2021	16	일반공동연구원 (빈동철)	고대 중국의 유가 전통과 전승 계보 연구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 A-1 트랙)	한국 연구재단	2021~2022	40,000천원	·	개별수주	지원
2022	17	일반공동연구원 (빈동철)	고대 중국의 유가 전통과 전승 계보 연구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 A-1 트랙)	한국 연구재단	2022~2023	40,000천원	·	개별수주	지원
2022	18	일반공동연구원 (강후구)	성서와 고고학2: 분열왕국 시대부터 산헤립 침공까지 (서울장신대 학술연구촉진사업)	서울장신대	2021~2022	4,500천원		개별수주	미지원
2022	19	일반공동연구원 (강후구)	페르시아 시대 유다 인명 연구	서울장신대	2022	1,500천원		개별수주	미지원

< 붙임-2 >

연구소 대표 실적

□ [서식-1] 논문/저·역서

No.	구분 (논문/저서)	논문(저서)명	게재지 (권/쪽)	ISSN/ ISBN	게재일 (출판일)	저자명 (제1/교신/공동)	학술연구지원사업 既往 지원 성과여부 (지원기간)
1	저서	중국 고대 지역국가의 발전: 진의 봉건에서 문공의 패업까지	일조각	97889 33707 487	'18.09.	심재훈 (제1저자, 단독)	.
2	논문	중국에 나타난 그리핀과 문명의 동진	동양학	1229-3 199	'21.04	심재훈 (제1저자, 단독)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2021)
3	저서	성서와 고고학2: 분열왕국시대부터 산헤립 침공까지	센스토리	97911 95186 747	'22.03	강후구 (제1저자, 단독)	서울장신대학교 대학연구비(2022)
4	논문	고대 중국 문헌 전통의 물줄기, 그 생성과 저장에 대한 비판적 접근: 『논어』의 경우	공자학	2713- 766X	'23.02.	빈동철 (제1저자, 단독)	인문사회학술 연구교수(A유형) (2020~2021)

대표 실적 설명①: 심재훈, 『중국 고대 지역국가의 발전: 진의 봉건에서 문공의 패업까지』

□ 책의 개요와 특징

• **주대 역사의 이면 晉國 연구:** 晉은 중국 고대사에서 여느 왕조에 버금가는 유산을 남겼다. 그럼에도, 文公(636-628 B.C.) 패업 이전까지 진의 역사는 문헌자료의 한계로 인해 연구 대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 책은 20세기 후반 이래 山西省 서남부에서 축적된 서주시대 진 제후 묘지를 비롯한 다양한 고고학 성과를 토대로 진의 초기 발전과정을 추적한 것이다.

• **기존 연구를 넘어선 새로운 시각과 탁월성:** “진나라 초기의 발전과정과 그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 본서의 목적인데, 서술이 수미일관 이 목표물을 향해 잘 수렴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와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본서만의 주장이 명료하다. 즉 기존 연구는 진과 융적의 관계를 주목하고, 그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변방국가의 약진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본서는 거꾸로 진이야말로 서주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긴밀하게 관계를 맺었으며, 변방이 아니라 2차 중심지였고, 심지어는 서주의 동천을 주도하는 중심적 위상으로까지 부상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논증을 위해 문헌자료뿐만 아니라, 명문 자료, 고고학 발굴성과까지를 망라하여 종합적인 증명을 시도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세밀한 부분의 논증에 그치지 않고, 그에 기반하여 춘추전국시대 전체의 역사상과 그 속에서 진나라가 차지하는 위상, 성격, 의미 등을 폭넓은 시야에서 제공해주는 양서이다. 어렵고 전문적인 학술서임에도 저자는 평이하고도 명료한 문장으로 자신의 의도를 독자에게 잘 전달하고 있다. 희귀한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이라도 저자의 필력 여하에 따라서는 쉽고도 흥미롭게 읽힐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준 책으로 높게 평가하고 싶다” (2019년 ICAS 우수도서상 심사평, <http://snuac.snu.ac.kr/2019ibp/>).

□ 연구의 의의

• **세계 최초의 본격적 진국 전문 연구서:** 현재까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도 진국 역사를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룬 연구서는 출간된 적이 없다. 이 책은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아시아학자세계총회(ICAS)의 한국어판 최우수도서에 선정되었다. 2022년 중문번역 『晋国霸业：从晋之分封到文公称霸』(上海古籍出版社)이 출간되었다.

□ 본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

• **출토문헌 활용의 모델:** 이 연구는 진의 분봉 전 산서성의 정치지리 분석에 갑골문을, 서주~춘추시대 진의 발전에 청동기 金文을, 동천기 진의 역할에는 楚簡 문헌을 심도 있게 활용하였다. 이 책이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으로, 선진시대 출토 문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담겨 있다. 저자가 고대의 출토문헌을 주 자료로 하는 본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로 적격임을 입증해준다.

• **세계 학계의 흐름 이해:** 이 연구의 또 다른 미덕은 윌리엄 맥닐과 엘만 서비스 등이 제시한 변경국가론을 반박하고, 중국과 일본, 구미의 연구를 종합하여 중심국가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데 있다. 세계 학계의 추이를 염두에 둔 본 프로젝트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대표실적 설명②: 심재훈, 「중국에 나타난 그리핀과 문명의 동진」

□ 논문의 개요와 특징

• 날개 달린 상상의 동물인 그리핀은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출현했다. 서아시아 전역과 이집트에서 다양하게 발전하다 그리스와 로마에서 성행하며 유럽 전역으로 확산했고, 중앙유라시아의 오아시스와 초원지대를 거쳐 동아시아까지 전해졌다. 중국에 최초로 나타난 그리핀, 즉 有翼神獸에 대한 기존 학계의 인식은 기원전 6세기를 넘어서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그보다 이른 기원전 12세기까지 소급되는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중국에도 상 후기 이래 날개 달린 동물 혹은 인간 모티프가 존재했음을 제시한다. 이것들은 한편으로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따라 자생적으로 고안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 최초로 날개 달린 동물(인간)이 출현하는 시점에 이미 서아시아를 비롯한 선진 문명 지역들에서 그리핀이 2000년 이상 보편적으로 유행한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삼성퇴에서 날개 달린 동물과 함께 출현하는 이른바 神樹 역시 당시 서아시아 전역에서 유행한 “생명의 나무”와 흡사하다. 미지의 서방 세계에서 오랫동안 성행해온 그리핀과 관련된 종교적 관념이 그 아이콘과 함께 긴 중계 과정을 거치며 成都 평원까지 희미하게라도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중국 최초의 청동 문화인 기원전 2000년경 甘肅省의 齊家文化和 남시베리아의 우랄산맥 서쪽 세이마-투르비노(Seima-Turbino) 지역 금속 문화와의 고고학적 연관성 역시 이른 시기 동서문명 교류 가능성을 제시한다.

□ 연구의 의의

• **동서문명 비교:** 고대 근동의 보편적 문화 아이콘인 그리핀과 생명의 나무를 고대 중국에 나타나는 유사 아이콘, 즉 有翼神獸 및 神樹와 비교 검토하여 기원전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동서 문명 교류의 한 양상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 본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

• **연구 주제의 일치:** 이 논문의 저자인 연구책임자는 본 연구에서 동서문명 비교를 맡을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 근동과 중국의 고고학 유물을 비교 검토했듯이, 양 지역 다양한 문헌들 사이의 관련성 역시 포착해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실적 설명③: 강후구, 『성서와 고고학2: 분열왕국시대부터 산헤립 침공까지』

□ 책의 개요와 특징

• **고대 이스라엘/팔레스틴 역사 재구성 추적:** 본 서적은 고대 이스라엘/팔레스틴 지역의 역사 재구성을 위한 첫 번째 시도(성서와 고고학: 고대 이스라엘 정착부터 시삭 침공까지)의 후속 연구로서, 기원전 10세기 말-8세기 말까지 시대적 범위를 다룬다. 이 기간은 고대 이스라엘의 왕국이 분열된 이후 남과 북의 갈등 관계를 겪은 시기였으며 신흥 세력으로 등장한 아람과 메소포타미아의 앗수르 세력에 괴롭힘을 당하던 시기였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본문 대부분은 고대 이스라엘/팔레스틴 지역의 역사 재구성 추적을 위한 내용을 다루었다. 제 2장과 제 3장에서는 왕국이 분열되고 난 이후 남유다의 예로보암의 성읍 건설에 대한 내용과 북이스라엘의 신전 건설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결과들과 성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제 4장과 5장에서는 비교적 역사 자료와 고고학 자료에서 적지 않은 내용이 알려진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를 다루었다. 제 6장과 제 7장은 이 시기의 주된 비문들(텔 단 비문, 메사 비문, 데이르 알라 비문, 쿤틸렛 아즈루드 비문, 키르벳 엘-콤 비문)을 다루었는데, 이 비문들의 내용 해석이 성서의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논의하였다. 제 8장에서는 종교 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아라드 야웨 성전을 고고학적으로 분석하였고, 제 9장에서는 기원전 8세기 말경 앗시리아에 의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대한 성경의 기술과 고고학적 결과물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 10장에서는 성서 기술, 역사 자료, 고고학 자료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앗수르왕 산헤립의 남유다 침공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 시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한 내용을 부록에서 다루었다. 텔 레호브의 양봉 산업 시설, 카르카르 전투, 하사엘의 가드 침공, 제 4차 텔 라기스 발굴, 진흙인장, 라기스 지층 5의 토기, 원시 이올리안 주두, 지진, 기원전 8세기 비문에 관한 내용을 통해 이 시기의 고고학적, 역사적 이해를 높였다.

□ 연구의 의의

• **종합적 시도:** 이 책은 각 시대 별 역사 재구성을 위하여 구약성서, 역사 자료 그리고 고고학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는 성서학, 역사학, 고고학간의 학제간 연구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한다. 자료의 종합을 바탕으로 이 시기 이스라엘/팔레스틴 지역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재구성케 하며, 또한 비교함으로써 각 자료의 특징을 역으로 이해하게 한다.

• **1차 자료 제공:** 학술의 기본적 역량을 위한 1차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원전 10세기 말경부터 8세기 말경까지의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직접 발굴한 텔 라기스를 비롯하여 최근까지 이루어진 주요 역사 장소들의 고고학적 연구 결과 내용과 지금까지 출토된 주요 비문들을 소개하였다.

□ 본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

• **다양한 고대 비문:** 저자는 문헌에 제시된 종교 문헌, 특히 구약성서와의 연관성까지 확인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문헌과 사상이 현실과 상호작용하면서 서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문헌의 경전화’라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표실적 설명④: 빈동철,

「고대 중국 문헌 전통의 물줄기, 그 생성과 저장에 대한 비판적 접근: 『논어』의 경우」

□ 논문의 개요와 특징

· 『논어』 형성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일반적으로 『논어』는 공자의 본래 가르침을 담은 가장 믿을만한 텍스트일 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의 유가 사상을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최근 고고학적 발견의 성과와 더불어,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논어』에 대한 인식이 변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텍스트가 공자의 삶과 시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여러 세대의 저자들(writers)에 의한 텍스트 생성의 실재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논어』가 한대 이전에 존재했을 것이라는 일반적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한 시기 어느 때인가 편집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받아들였던 이 책의 권위와 지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후대에 편집되었다는 주장이 한대 이전에 『논어』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원천 자료(source text) 생성의 부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지 않다. 이 논문은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최근 출토된 고고학적 텍스트를 활용하여 반성적으로 접근하였다. 글의 구성은 먼저 『논어』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설명하였고, 이것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고고학적 텍스트를 통하여 『논어』를 조명하였다.

□ 연구의 의의

· 원천 자료의 생성에서 텍스트의 형성에 이르는 과정의 탐색: 이 논문은 고대 중국의 문헌 전통의 사례 연구(case study)를 위한 텍스트 자료로서 『논어』를 선택하였다. 『논어』는 아마도 선진 유가 사상과 관련된 문헌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대표적인 텍스트 형성의 주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논어』의 텍스트 형성이 단일한 저자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며, 여러 제자들 아마도 여러 세대의 제자들에 의해 생성된 조각들의 모음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그리고 수 세기 동안 텍스트 비판의 작업은 이 텍스트가 그런 조각들의 결합이 한 번 이상 이루어진 텍스트의 누적을 암시한다. 최근 전국시대 고고학적 증거는 공자 어록의 생성과 모음을 보여주지만, 전국시대 ‘논어’라는 텍스트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 오히려 문헌 형성의 전통이 팽창하는 전국시대에 그 텍스트의 원천이 되는 자료(source text)의 생성이 누적되어 편집의 마감과정으로 수렴되는 때는 진한 제국 이전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 연구주제와의 관련성

· 신발견 자료를 활용한 텍스트 형성의 구명: 고대 중국의 출토문헌을 토대로 텍스트의 형성사를 문헌학적으로 분석하려는 본 연구주제와 매우 관련되어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최근 출토된 안휘간의 ‘공자어록’을 주요 분석의 텍스트로 다루어, 최근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는 『논어』의 텍스트 형성과 편집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다루게 될 고대 중국의 문헌 형성사 연구에 하나의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서식-2] 기타실적

No.	구분	주요내용	실적년월
1	강독 모임	동아시아출토문헌연구회와 죽간강독 모임	'18.01~현재

기타 대표실적 설명: 중국출토문헌연구팀 강독 모임 2개
<p>□ 월례 발표의 개요와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대 동아시아의 원형을 찾기 위한 새로운 자료의 탐색: 고대문명연구소의 모태 “동아시아출토문헌연구회”는 15년, 죽간강독 모임은 8년 동안 강독 모임을 지속해오고 있다. 두 강독 모임의 구성원들은 문사철은 말할 것도 없고 서예와 고고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른바 학제간 연구가 출토문헌을 매개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다. 회원들은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문헌의 해독과 역주를 시도하고 서로를 비평하여 검증하였다. • 성실하고 꾸준한 월례 발표: 학술 연구 모임의 성패는 수준 높은 발표와 토론, 그리고 그것의 꾸준한 유지와 축적에 있다. 동아시아출토문헌연구회는 최근 5년간('18~현재) 40회(57건) 월례 발표회를 개최했고, 죽간강독은 약 100회 모임을 가졌다. 이 정도의 빈도는 그 학술적 수준은 물론 연구회원 간의 끈끈한 유대와 결속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학문의 축적과 네트워크의 형성이 이 자리에서 모두 이뤄졌다고 자부한다. • 1차 자료의 장악에서 담론의 형성까지, 『중국출토문헌의 새로운 세계』(2018): 이 책은 연구회의 1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간 이뤄낸 회원들의 연구성과를 한데 모은 기념 논문집이다. 1차 문자자료를 장악하기 위한 방법론의 제시, 고문자의 해독과 문헌의 해석이라는 연구의 시발점에서 출발하여 역사학적, 철학사적 맥락의 재구축과 담론의 형성이라는 연구의 종착점을 다양한 자료와 주제를 통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중국 지역 연구원 4인 모두 집필에 참여했다. <p>□ 연구 아젠다와의 관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대 문헌 전통의 물줄기 구명”을 위한 전초 작업: 장기에 걸친 두 강독 모임과 그 작은 결실인 위의 책은 본 연구의 중요한 한 축인 중국 지역 연구원 4인이 이번에 설정한 아젠다와 관련하여 충분한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나아가 이 방식을 근동 지역 연구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울타리를 초월한 학자들의 결집과 교류: 출토문헌 강독 모임은 세대, 분과, 학교의 울타리를 초월하여 학자들을 결집하고 절차탁마하는 장을 만들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문헌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였지만, 이를 통해 각기 다른 학술적 입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목까지 넓혀갈 수 있었다.

< 붙임-3 >

고대문명연구소 규정

제정 : 2021. 07. 23.

주관부서 : 미래융합연구원 연구평가지원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연구소의 명칭은 ‘고대문명연구소’ 라 명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라 한다) 고대문명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류 문명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순수 학문적 탐구
2. 초기 국가, 도시, 문자, 종교, 사회경제, 문화, 전쟁 등 기초 연구
3.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그리스/로마, 마야, 잉카 문명 비교 연구
4. 문학, 사학, 철학, 미술사, 고고학, 인류학을 관통하는 학제간 연구
5. 고고학 자료와 디지털 역사학의 결합 방법론 적극 활용
6. 연구발표회 및 학술 토론회 개최
7. 연구지, 자료집 및 단행본의 발간
8.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5장(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감사 1명
3. 간사 1명

②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연1회 감사를 실시한다.
3. 간사는 연구소의 연구 및 행정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임원은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직제규정」 제54조제3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다.

제6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업무 전반을 기획·추진한다.
- ③ 비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 ④ 특별재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고대문명 연구 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⑤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 및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 ⑥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 ⑦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목적)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을 따른다.

제4장 간행물의 출판

제13조(편집 및 출판 일반) ①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 ②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되며, 단행본의 경우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제14조(정기간행물 게재 논문의 심사) ①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논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연구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③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예산·결산

제15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학술연구지원 수입금
- 2.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제16조(예산·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부칙(2021.7.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7.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첨부자료1: 연구총서 출판 예정 증명서(도서출판 진인진)

출판예정증명서

도서출판 (주)진인진은 아래와 같이 도서를 출간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 아 래 -

도서 가제 : 고대 문명연구의 다양한 여정
(고대문명연구소 연구총서)
저자 : 고대문명연구소
(공동저자 :김아리, 김구원, 강후구, 이광수, 심재훈)
출간예정일 : 2023년 하반기

2023년 06월 1일

도서출판 (주)진인진

대표 김태진



출판예정증명서

도서출판 푸른역사에서는 아래 2종의 도서를 출간할 예정으로, 현재 에릭양 에이전시를 통하여 저작권 확보 중에 있습니다.

- 아 래 -

원서명 : Andrew Feldherr and Grant Hardy ed., The Oxford History of Historical Writing Volume 1, Beginning to AD 600
출판사 : Oxford Univ. Press, 2011
도서 가제 : 고대 문명의 역사 서술 (고대문명연구소 번역총서)
번역 주체 : 고대문명연구소 (역자, 심재훈 외)
출간예정일 : 2024년 상반기

원서명 : Jan Assmann,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출판사 : Cambridge Univ. Press, 2011
도서 가제 : 문화적 기억과 초기 문명: 문자, 기억, 정치적 상상력 (고대문명연구소 번역 총서)
번역 주체 : 고대문명연구소 (역자, 김구원, 심재훈)
출간예정일 : 2023년 하반기

2023년 06월 1일

도서출판 푸른역사

대표 박혜숙



우: 03044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8길 13 전화: 02-720-8921 전송: 02-720-9887

첨부자료3: 연구 참고문헌

고대 근동

- 장승일, 「야훼 하나님의 아내?」, 『구약논단』 40, 2001, 123-144.
- 김동혁, 「아세라 기둥, 아세라 여신? - 우리말 성경에서의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32, 2013, 94-111.
- 김봉률, 「헤라클라스 신화와 도시문명의 불안: 길가메쉬 서사시와의 비교 연구」, 『고전 르네상스 영문학』 25/2, 2016, 63-92.
- 김영진, 『고대 근동의 역사 문헌』 서울: 한들출판사, 2005.
- 김은규, 「구약 야훼의 배우자이자 민중종교로서 ‘아세라’ (Asherah) 여신(女神)」, 『종교연구』 51, 2008, 65-94.
- 김준, 「주전 8세기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적 실체가 없는 여신 아세라와 쿤틸렛 아즈루드의 ‘야훼와 그의 아쉐라’」, 『구약논단』 69, 2018, 354-368.
- 김학철, 「트랜스휴먼 시대의 인간 향상과 성숙」, 『교양교육연구』 13, 2019, 39-56.
- 박영란, 「아세라」, 『종교연구』 74, 2014, 185-206.
- 배철현, 「신-레케-우닌니의 [길가메쉬 서사시] 편집의도」, 『인문언어』 30/7, 2005, 157-204.
- _____,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왕사상」, 『서양고대사연구』 24, 2009, 24-35.
- 엄원식, 「히브리인의 신명 사용에 대한 연구」, 『복음과 실천』 7/1, 1985, 75-100.
- _____, 「모압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일고(一考): 메사의 석비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6, 1999, 175-201.
- 이윤경, 「타자화 되어가는 이방인 발람」, 『구약논단』 51, 2014, 122-149.
- 장영일, 「‘야훼’ (Yahweh) 이름의 기원과 의미」, 『장신논단』 12, 1999, 104-136.
- Adrom, F., and M. Müller. “The Tetragrammaton in Egyptian Sources - Facts and Fiction.” In *the Origin of Yahwism*, edited by Jürgen van Oorschot and Markus Witte, 93-113. Berlin: De Gruyter, 2017.
- Ahituv, Shmuel. *Echoes From the Past: Hebrew and Cognate Inscriptions from the Biblical Period*. Jerusalem: A Carta Handbook, 2008.
- Ahituv, Shmuel, and Amihai Mazar. “The Inscriptions from Tel Rehov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Script and Writing during Iron Age II A.” In “See, I will bring a scroll recounting what befell me” (Ps 40:8): Epigraphy and Daily Life from the Bible to the Talmud. Dedicated to the Memory of Professor Hanan Eshel, edited Esther Eshel and Yigal Levin, 189-203. Go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4.
- Alster, Bendt. “Like a Clod thrown into Water: On the translation of a Sumerian Proverbial phrase.”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des Morgenlandes* 86 (1996): 17-20.
- _____. “Sumerian Canonical Compositions. C. Individual Focus. 1. Proverbs.” In *The Context of Scripture: Canonical Compositions from the Biblical World*, edited by Hallo, William W., 563-569. Leiden: Brill, 1997.
- _____. *Proverbs of Ancient Sumer: The World’s Earliest Proverb Collections*. Bethesda, MD: CDL Press, 1997.
- _____. “Updates to Šuruppak’s Instructions, Proverbs of Ancient Sumer, and Ancient Rulers.” *Nouvelles Assyriologiques Brèves et Utilitaires* 88 (1999): 85-89.

- Arnaud, D. "Catalogue des Documents Inscrits Trouvés au cours de la huitième campagne (1978)." In *Larsa et 'Oueilli, Rapport Préliminaire*, edited by J.-L. Huot, 229-290. Paris, Editions Recherche sur les Civilisations, pp. 229-290.
- Bauer, Th. "Ein viertes altbabylonisches Fragment des Gilgamesch-Epos."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16 (1957): 254-262.
- Beck, Pirhiya. "The Drawings from Horvat Teiman(Kuntillet 'Ajrud)." *Tel Aviv* 9 (1982): 3-68.
- Beckman, G. M. and Foster, B. "Assyrian Scholarly Texts in the Yale Babylonian Collection." In *A Scientific Humanist: Studies in Memory of Abraham Sachs*, 1-26. Philadelphia: The University Museum.
- Bing, J. D. "Gilgamesh and Lugalbanda in the Fara Period."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9 (1977):1-4.
- _____. "On the Sumerian Epic of Gilgamesh."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7 (1975): 1-10.
- Böhl, F. M. "Gilgamesch. B. Nach akkadischen Texten." In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n Archäologie*, edited by von Soden, Wolfram, 3:364-372. De Gruyter, 1971.
- Boissier, A. "Fragment de la légende de Atram-ḫasis." *Revue d' Assyriologie* 28 (1931): 91-97.
- _____. "Lipit-Ishtar, Législateur." *Babyloniaca* 9 (1926): 19-22.
- Borger, R. "Der Codex Eschnunna." In *Rechtsbücher, Rechts und Wirtschaftsurkunden Historisch-chronologische Texte, Texte aus der Umwelt des Alten Testament 1.1*, edited by O. Kaiser, 32-38. Gutersloh: Gerd Mohn, 1982.
- _____. "Die mittelassyrischen Gesetze." In *Rechtsbücher, Rechts und Wirtschaftsurkunden historisch-chronologische Texte, Texte aus der Umwelt des Alten Testament 1.1*, edited by O. Kaiser, 80-92. Gutersloh: Gerd Mohn, 1982.
- _____. "Die neubabylonischen Gesetze." In *Rechtsbücher, Rechts und Wirtschaftsurkunden historisch-chronologische Texte, Texte aus der Umwelt des Alten Testament 1.1*, edited by O. Kaiser, 92-95. Gutersloh: Gerd Mohn, 1982.
- Brenner, Athalya. "The Hebrew God and His Female Complements." In *Reading Bibles, Writing Bodies: Identity and the Book*, edited by Timothy K. Beal and David M. Gunn, 56-71.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7.
- Brinkman, J. A. "Appendix: Mesopotamian Chronology of the Historical Period." In *Ancient Mesopotamia: Portrait of a Dead Civilization*, edited by A. L. Oppenheim, 335-34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 Budge, E. A. *The Babylonian Story of the Deluge and the Epic of Gilgamesh, with an Account of the Royal Libraries of Nineveh*. London: British Museum, 1920.
- Cardascia, G. *Les lois assyriennes*. Paris: Les Editions du Cerf, 1969.
- _____. "Egalite et inegalite des sexes en matiere d' atteinte aux moeurs dans le Proche-Orient ancien." *Welt des Orients* 11 (1980): 7-16.
- Civil, Miguel. "The Forerunners of Marû and [H]am[t]u in Old Babylonian." In *Riches Hidden in Secret Places: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in Memory of Thorkild Jacobsen*, edited by Abusch, Tzvi, 63-71.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2.
- Copper, J. S. "Gilgamesh Dreams of Enkidu: The Evolution and Dilution of Narrative." In M. Ellis, ed., *Essays on the Ancient Near East in Memory of Jacob Joel Finkelstein*, 39-44. Hamden: Archon, 1977.
- Crawford, Timothy G. *Blessing and Curse in Syro-Palestinian Inscriptions of the Iron Age*. New York: Peter Lang, 1992.
- David, M. "Le Récit du deluge et l' epopée de Gilgameš." In Garelli, ed., *Gilgameš et sa légende*, 153-159. Paris: Imprimerie Nationale and Librairie C. Klincksieck, 1960.
- Day, John. "Asherah in the Hebrew Bible and Northwest Semitic Literatur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5 (1986): 385-408.

- Dearman, A., ed. *Studies in the Mesha inscription and Moab*. Atlanta, GA: Scholars Press, 1989.
- Dever, William G. "Asherah, Consort of Yahweh? New Evidence from Kuntilet 'Ajrūd."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55 (1984): 21-37.
- _____. *Did God Have a Wife? Archaeology and Folk Religion in Ancient Israel*. Grand Rapids: Eerdmans, 2005.
- Dossin, G. "Endidou dans l' épopée de Gilgameš." *Le Muséon* 59 (1946): 63-69.
- _____. *Le Pâleur d' nkidou*. Louvain: Imprimerie Orientaliste M. Istaş, 1931.
- Driver, G. R. and Miles, J. *The Assyrian Laws*. Oxford: Clarendon, 1975.
- _____. *The Babylonian Laws: 1 Legal Commentary*. Oxford: Clarendon Press, 1955.
- _____. *The Babylonian Laws: 2 Transliterated Text, Translation, Philological Notes, Glossary*. Oxford: Clarendon Press, 1955.
- Ellis, M. de J. "Gilgameš' s Approach to Huwawa' s Dwelling: A New Text." *AfO* 1982.
- Emerton, John A. "'Yahweh and His Asherah' : The Goddess or Her Symbol?" *Vetus Testamentum* 49 (1999): 315-337.
- Falkentsetin, A. "Gilgameš. A. Nach sumerischen Texten." In *Reallexikon der Assyriologie und Vorderasiatischen Archäologie*, edited by von Soden, Wolfram, 3:357-363. De Gruyter, 1972.
- Falkowitz, Robert S. *The Sumerian Rhetoric Collection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0.
- Finkelstein, J. J. "The Antediluvian Kings: A University of California Tablet."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17 (1963): 39-51.
- _____. "Ammisaduqa' s Edict and the Babylonian Law Codes."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15 (1961): 91-104.
- _____. "Sex Offenses in Sumerian Law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86 (1966): 355-372.
- _____. "The Laws of Ur-Nammu."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22 (1969): 66-82.
- _____. "Sumerian Laws." In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edited by J. B. Pritchar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_____. "On Some Recent Studies in Cuneiform Law."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90 (1970): 131-143.
- Foster, Benjamin R. *Before the Muses: An Anthology of Akkadian Literature*. Bethesda, MD: CDL Press, 2005.
- Frankena, R. "Nouveaux fragments de la sixième tablette de l' épopée de Gilgameš. In Garelli, ed., *Gilgameš et sa légende*, 113-122. Paris: Imprimerie Nationale and Librairie C. Klincksieck, 1960.
- Frymer-Kensky, T. "The Judicial Ordeal in the Ancient Near East." PhD. Diss., Yale University,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1977.
- Gadd, C. J. "Some Contributions to the Gilgameš-Epic." *Iraq* 28 (1966): 105-121.
- _____. *Teachers and Students in the Oldest Schools*. London: University of Lond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1956.
- Gaster, T. H. *The Oldest Stories in the World*. New York: Viking Press, 1952.
- George, A. R. *The Babylonian Gilgameš Epic: Introduction, Critical Edition and Cuneiform Tex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Goetze, A. and S. Levy. "Fragment of the Gilgameš Epic from Megiddo." *Atiqot* 2 (1959): 121-128.
- _____. "The Laws of Eshnunna discovered at Tell Harmal." *Sumer* 4 (1948): 63-91.

- _____. "The Akkadian Law Code from Tell Harmal."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2 (1948): Plate I-IV.
- _____. "The Law of Eshnunna." In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with supple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0.
- Gurney, O. R. "The Sultantepe Tablets. 6. A Letter of Gilgamesh." *Anatolian Studies* 7 (1957): 127-135.
- Fleming, Daniel E. and Sara J. Milstein. *The Buried Foundation of the Gilgamesh Epic: The Akkadian Huwawa Narrative*. Leiden: Brill, 2010.
- Foster, B. R. *The Epic of Gilgamesh*. New York: Norton, 2001.
- Hadley, Judith M. *The Cult of Asherah in the Ancient Israel and Judah: Evidence for a Hebrew Godd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Hansman, J. "Gilgamesh, Humbaba, and the Land of The Erin-Trees." *Iraq* 38 (1976): 23-35
- Heidel, A. *The Gilgamesh Epic and Old Testament Paralle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 Hoffner, H. A. "Enki's Command to Atrahasis." In Eichler, ed., *Kramer Anniversary Volume. Cuneiform Studies in Honor of Samuel Noah Kramer*. 241-245. Kevelaer: Bulzon & Becker, 1976.
- Jacobsen, T. "How Did Gilgameš Oppress Uruk?" *Acta Orientalia* 8 (1930): 62-74.
- Jastrow, Morris. *An Old Babylonian Version of the Gilgamesh Epic*.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20.
- Joannès, F. *Rendre la Justice en Mésopotamie Archives judiciaires du Proche-Orient ancien (IIIe-Ier millénaires avant J.-C.)*. Presse Universitaires de Vincennes, 2000.
- Keel, Othamar and Christoph Uehlinger. *Gods, Goddesses, and Images of God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1998.
- Kennedy, Titus. "The Land of ššw (Nomads) of yhwš at Soleb." *Journal of Nubian Studies* 6 (2019): 175-192.
- Kramer, Samuel N. "Gilgamesh and the Land of the Living."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1 (1947): 3-46.
- _____. "Lipit-Ishtar Lawcode." In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with supple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0.
- Kramer, S. N. and Falkenstein, A. "Ur-Nammu Law Code." *Orientalia* 23 (1954): 40-51.
- Korošec, V. "Gilgameš vu sous son aspect juridique." In Garelli, ed., *Gilgameš et sa légende*, 161-66. Paris: Imprimerie Nationale and Librairie C. Klincksieck, 1960.
- Kramer, Samuel N. "The Death of Gilgamesh."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94 (1944): 2-12.
- _____. "Gilgamesh and Agga. With comments by Thorkild Jacobsen." *American Journal of Archaeology* 53 (1949): 1-18.
- _____. "The Epic of Gilgameš and Its Sumerian Sources. A Study in Literary Evolution." *Journal of American Oriental Studies* 64 (1944): 7-23.
- Laessle, J. "The Atrahasis Epic: A Babylonian History of Mankind." *Biblical Orient* 13 (1956): 90-102.
- Lambert, W. G. "Gilgamesh in Religious, Historical and Omen Texts and the Historicity of Gilgamesh." In Garelli, ed., *Gilgameš et sa légende*, 39-56. Paris: Imprimerie Nationale and Librairie C. Klincksieck, 1960.
- _____. *Babylonian Wisdom Literature*.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6.
- Lambert, W. G., and Millard, A. R. *Atra-Hasis. The Babylonian Story of the Flood, with "The*

Sumerian Flood Story. Oxford: Calrendon Press, 1969.

Landsberger, B. "Einleitung in des Gilgames-Epos." In Garelli, ed., *Gilgames et sa légende*, 31-36. Paris: Imprimerie Nationale and Librairie C. Klincksieck, 1960.

_____. "Zur vierten and siebenten Tafel des Gilgamesch-Epos." *Revue d' Assyriologie* 62 (1968): 97-135.

Matouš, L. "Les Rappports entre la version sumérienne et la version akkadienne de l' epopée de Gilgames." In Garelli, ed., *Gilgames et sa légende*, 83-94. Paris: Imprimerie Nationale and Librairie C. Klincksieck, 1960.

_____. "Zu neueren Literatur über das Gilgameš-Epos." *Biblical Orient* 21 (1964): 3-10.

Maier, John. *Gilgamesh: A Reader*. Wauconda: Bolchazy-cardoucci, 1997.

Maier, Walter A. *Asherah: Extrabiblical Evidence*. Atlanta: Scholars Press, 1986.

Margalit, B.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Asherah." *Vetus Testamentum* 40 (1990): 264-297.

Meek, T. "The Middle Assyrian Laws." In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edited by J. Pritchard, 180-18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55.

_____. "The Neo-Babylonian Laws." In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edited by J. Pritchard, 197-19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55.

Meshel, Zeev, Samuel Ahituv, and Liora Freud. *Kuntillet 'Ajrud (Horvat Teman): An Iron Age II Religious Site on the Judah-Sinai Border*.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2012.

Millard, A. R. "Gilgamesh X: A New Fragment." *Iraq* 26 (1964): 99-105.

Mitchell, C. W. *The Meaning of brk "to Bless" in the Old Testament*. Atlanta: Scholars Press, 1987.

Moran, W. L. "Gilgamesh I I 41." *Revue d' Assyriologie* 71 (1977): 190-191.

Olyan, Saul. *Asherah and the Cult of Yahweh in Israel*. Atlanta: Scholars Press, 1988.

Otten, H. "Die erste Tafel des hethitischen Gilgamesch-Epos." *Ist. Mit.* 8 (1958): 93-125.

Petschow, H. "Das neubabylonische Gesetzesfragment." *Zeitschrift der Svigny 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 76 (1959): 36-96.

_____. "Zur Systematik in den Gesetzen von Eschnunna." In *Symbolae iuridicae et historicae Martino David dedicatae 2*, edited by J. A. Ankum and al. Leiden: E. J. Brill, 1968.

Ranke, H. "Zur Vorgeschichte des Gilgamesch-Epos."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49 (1950): 45-49.

Ravin, O. "The Passage on Gilgamesh and the Wives of Uruk." *Biblical Orient* 10 (1953): 12-13.

Renz, J. and W. Röllig. *Handbuch der althebräischen Epigraphik*. Darmstadt :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

Römer, Willem H.Ph. "Weisheitstexte" und Texte mit Bezug auf den Schulbetrieb in sumerischer Sprache." In *Weisheitstexte I. Texte aus der Umwelt des Alten Testaments III, 1*, edited by Kaiser, Otto, 17-109.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Roth, Marth. "Scholastic Tradition and Mesopotamian Law: A Study of FLP 1287, A Prism in the Collection of the Free Library of Philadelphia." Ph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1979.

_____. *Law Collections from Mesopotamia and Asia Minor*. Atlanta: Scholars Press, 1997.

Sanders, N. *The Epic of Gilgamesh*. Baltimore: Penguin, 1960.

Sass, B. *The Genesis of the Alphabet and its Development in the Second Millennium B.C.* Wiesbaden, 1998.

Sasson, J. M. "Some Literary Motifs in the Composition of the Gilgamesh Epic." *Studies in Philology* 69 (1972): 259-279.

- Schmidt, Brian B. "The Iron Age pithoi drawings from Horvat Teman or Kuntillet 'Ajrud: some new proposals." *Journal of Ancient Near Eastern Religions* 2 (2002): 91-125.
- Schmöckel, H. *Das Gilgamesch-Epos*. Stuttgart: Kohlhammer, 1966.
- Schramm, W. "Zu Gilgamesh Tf. VII, III, Z. 9." *Revue d' Assyriologie* 64 (1970): 94.
- Smith, Mark S. *The Early History of God: Yahweh and the Other Deities in Ancient Israel*.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2002.
- _____. "The Blessing God and Goddess: A Longitudinal View from Ugarit to 'Yahweh and ... his asherah' at Kuntillet 'Ajrud." In *Enigmas and Images: Studies in Honor of Tryggve N.D. Mettinger*, edited by Goeran Eidevall and Blazenka Scheuer, 206-219.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11.
- Speiser, E. A. "Gilgamesh VI 40."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12 (1958): 41-42.
- Stamm J. "Das Gilgamesch-Epos und seine Vorgeschichte." *Asiatische Studien* 6 (1952): 9-29.
- Steele, F. R. *Unpublished transliteration of Gilg. Ni*. In the Babylonian collection, University Museum, University of Pennsylvania.
- Stefanini, R. "Enkidu's Dream in the Hittite 'Gilgamesh' ."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28 (1969): 40-47.
- Szlechter, E. "Le Code d' Ur-Nammu." *Revue d' Assyriologie* 49 (1955): 169-76.
- _____. "Le Code de Lipit-Ishtar." *Revue d' Assyriologie* 51 (1957): 57-82.
- Tigay, Jeffery H. *The Evolution of the Gilgamesh Epic*.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2.
- _____.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Israelite Religion in the Light of Hebrew Inscriptions*. Atlanta, GA: Scholars Press, 1986.
- _____. "A Second Temple Parallel to the Blessings from Kuntillet 'Ajrud." *Israel Exploration Journal* 40 (1990): 218.
- Thompson, R. C. *The Epic of Gilgamesh: Text, Transliteration, and Notes*. Oxford: Clarendon Press, 1930.
- Van der Toorn, Karel. "Yahweh." In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edited by Karel van der Toorn, Bob Becking, and Pieter W. van der Horst, 913-916. Leiden: Brill, 1999.
- Velde, H. Te. "Bes", In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edited by Karel van der Toorn, Bob Becking, and Pieter W. van der Horst, 173. Leiden: Brill, 1999.
- Veldhuis, Niek C. "Sumerian Proverbs in their Curricular Context."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20, no. 3 (2000): 383-399.
- Weiher, E. von. "Ein Fragment des Gilgamesch-Epos aus Uruk."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62 (1972): 222-229.
- Westbrook, R. "Biblical and Cuneiform Law Codes." *Revue biblique* 92 (1985): 247-264.
- _____. *Old Babylonian Marriage Laws*. Horn, Austria: Berger and Sohne, 1988.
- Wiggins, Steve A. *A Reassessment of Asherah*. New Jersey: Gorgias Press, 2007.
- Wilson, J. V. Kinnier. "On the Fourth and Fifth Tablets of the Epic of Gilgamesh." In Garelli, ed., *Gilgamesh et sa légende*, 103-111. Paris: Imprimerie Nationale and Librairie C. Klincksieck, 1960.
- Wiseman, D. J. "Additional Neo-Babylonian Gilgamesh Fragments." In Garelli, ed., *Gilgamesh et sa légende*, 123-135. Paris: Imprimerie Nationale and Librairie C. Klincksieck, 1960.
- Wolff, H. N. "Gilgamesh, Enkidu, and the Heroic Life." *Journal of American Oriental Society* 89 (1969): 392-398.
- Yaron, R. *The Laws of Eshnunna*. Jerusalem: Magnes Press, 1969.

Yildiz, F. "A Tablet of Codex Ur-Nammu from Sippar." *Orientalia* 50 (1981): 87-97.

Ziony, Zevit. "The Khirbet el-Q m inscription Mentioning a Goddess."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255 (1984): 39-47

*온라인 자료

1차자료(본문, 원문)

- Cuneiform Digital Library Initiative: <https://cdli.mpiwg-berlin.mpg.de/>
- Electronic Text Corpus of Sumerian Literature: <https://etcsl.orinst.ox.ac.uk/>
- Database of Neo-Sumerian Texts: <http://bdtms.filol.csic.es/>
- Sources of Early Akkadian Literature: <https://seal.huji.ac.il/>
- Achemenet: <http://www.achemenet.com/fr/>

2차자료(연구논문, 단행본 등)

- ETANA: <https://etana.org/>
- Archives Babylonniennes (XXe-XVIIe Siècles av. J.-C.)
: <http://www.archibab.fr/4DCGI/recherche1.htm?WebUniqueID=206482923>
- The Ancient World Online: <http://ancientworldonline.blogspot.com/>

사전 및 색인

- Open Richly Annotated Cuneiform Corpus(췁기문자 자료집 주제별 제공)
: <http://oracc.museum.upenn.edu/>
- Prosopography of Babylonia (c. 620-330 BCE) (바빌리 인명 색인)
: <https://prosobab.leidenuniv.nl/>
- The Pennsylvania Sumerian Dictionary (슈메르어 온라인 사전)
: <http://psd.museum.upenn.edu/>
- Chicago Assyrian Dictionary (악카드어 온라인 사전)
: <https://isac.uchicago.edu/research/publications/chicago-assyrian-dictionary>
- Akkadian Dictionary (악카드어 온라인 사전)
: http://www.assyrianlanguages.org/akkadian/index_en.php

메소포타미아 발굴보고서

- Archive of Mesopotamian Archaeological Reports
: <https://repo.library.stonybrook.edu/xmlui/handle/11401/88604>

고대 중국

*中文

•저본 자료집 (출간시기순)

郭沫若 主編·胡厚宣 總編輯, 『甲骨文合集(一~十)』 (北京: 中華書局, 1978-1982).

彭邦炯·謝濟·馬季凡 編, 『甲骨文合集補編(一~七)』 (北京: 語文出版社, 1999).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編, 『殷周金文集成(一~一八)』 (北京: 中華書局, 1984-94).

饒宗頤·曾憲通 編著, 『楚帛書』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85).

河南省文物研究所, 『信陽楚墓』 (北京: 文物出版社, 1986).

湖北省荊沙鐵路考古隊 編, 『包山楚墓(上下)』 (北京: 文物出版社, 1991).

荊門市博物館 編, 『郭店楚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998).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中文系 編, 『九店楚簡』 (北京: 中華書局, 2000).

馬承源 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_____,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_____,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_____,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四)』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_____,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五)』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_____,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六)』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_____,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七)』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_____,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八)』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_____,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九)』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張春龍, 「慈利楚簡概述」, 『新出簡帛研究(新出簡帛國際學術研討會文集)』 (北京: 文物出版社, 2004).

劉彬徽·劉長武, 『楚系金文彙編』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9).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 編·李學勤 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 (上海: 中西書局, 2010).

_____, 『清華大學藏戰國竹簡(貳)』 (上海: 中西書局, 2011).

_____, 『清華大學藏戰國竹簡(叁)』 (上海: 中西書局, 2012).

_____, 『清華大學藏戰國竹簡(肆)』 (上海: 中西書局, 2013).

_____, 『清華大學藏戰國竹簡(伍)』 (上海: 中西書局, 2015).

_____, 『清華大學藏戰國竹簡(陸)』 (上海: 中西書局, 2016).

_____, 『清華大學藏戰國竹簡(柒)』 (上海: 中西書局, 2017).

_____, 『清華大學藏戰國竹簡(捌)』 (上海: 中西書局, 2018).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 編·黃德寬 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玖)』 (上海: 中西書局, 2019).

_____, 『清華大學藏戰國竹簡(拾)』 (上海: 中西書局, 2020).

_____, 『清華大學藏戰國竹簡(拾壹)』 (上海: 中西書局, 2021).

陳偉 等, 『楚地出土戰國簡冊[十四種]』 (北京: 經濟科學, 2009).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荊門市博物館 編著, 『楚地出土戰國簡冊合集(一) 郭店楚墓竹書』 (北京: 文物出版社, 2011).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楚地出土戰國簡冊合集(二) 葛陵楚墓竹簡·長臺關楚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2013).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湖北省博物館 編著, 『楚地出土戰國簡冊合集(三) 曾侯乙墓竹簡』 (北京: 文物

出版社, 2019).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黃岡市博物館 編著, 『楚地出土戰國簡冊合集(四) 望山楚墓竹簡、沔陽楚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2019).

吳鎮烽 編著, 『商周青銅器銘文暨圖像集成(全三十五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黃德寬, 「安徽大學藏戰國竹簡概述」, 『文物』2017-9, 2017.

安徽大學漢字發展與應用研究中心 編、黃德寬·徐在國 主編, 『安徽大學藏戰國竹簡(一)』 (上海: 中西書局, 2019).

•연구논저 (저자-시기순)

賈連翔, 『戰國竹書形制及相關問題研究』 (上海: 中西書局, 2015).

顧永新 編, 『經學文獻學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9).

拱玉書·顏海英·葛英會, 『蘇美爾、埃及及中國古文字比較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2009).

裘錫圭, 『文字學概要』, {北京: 商務印書館, 1988/2013(修訂本)} [한국어역: 이홍진 譯, 『중국문자학의 이해』, 서울: 신아사, 2001/2010(개정판)].

_____, 「出土文獻與古典學重建」, 『出土文獻』 第四輯, (上海: 中西書局, 2013).

屈萬里, 『詩經釋義(2冊)』 (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1953).

_____, 『尚書釋義』 (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1956).

_____, 『尚書集釋』 (屈萬里先生全集 2),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3).

羅家湘, 『逸周書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杜澤遜, 『文獻學概要(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2008).

來新夏 『古典目錄學淺說』 (北京: 中華書局, 1981) [한국어역: 박정숙 번역, 『중국의 고전목록학』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9)].

范文瀾, 『群經概論』 (北平: 樸社 1934/上海: 上海書店, 1990).

駢宇騫·段書安 編著, 『二十世紀出土簡帛綜述』 (北京: 文物出版社, 2006).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編, 『出土文獻與傳世典籍的詮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0).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編, 『出土文獻與傳世典籍的詮釋(紀念譚樸森先生逝世兩周年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上海: 中西書局, 2019).

濮茅左, 『楚竹書《周易》研究-兼述先秦兩漢出土與傳世易學文獻資料(上下)』 (上海: 上海古籍出版, 2006).

四庫全書研究所 整理, 『欽定四庫全書總目(上下)』 (北京: 中華書局, 1997)[原著: 紀昀[清] 總纂(1781), 『欽定四庫全書總目』].

謝保成, 『增訂中國史學史-先秦至唐前期』 (北京: 商務印書館, 2016).

謝維揚·趙爭 主編, 『出土文獻與古書成書問題研究』 (上海: 中西書局, 2015).

相宇劍, 『出土文獻《詩經》材料集釋』 (安徽大學博士學位論文 2019).

徐在國, 「“窈窕淑女”新解」, 『漢字漢語研究』 2019年 第1期, 鄭州, 鄭州大學漢字文明研究中心, 2019年 3月.

_____, 「談安大簡『詩經』的一個異文」, 『湖南大學學報』 2019年 第2期, 長沙, 湖南大學, 2019年 4月.

訟祚胤, 『周易新論』 (長沙: 湖南教育, 1982).

劉起釪, 『尚書學史』 (北京: 中華書局, 1989).

_____, 『尚書源流及傳本考』 (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87).

_____, 『尚書研究要論』 (濟南: 齊魯書社, 2007).

劉冬穎, 『出土文獻與先秦儒家《詩》學研究』 (北京: 知識產權, 2010).

姚小鷗 主編, 『清華簡與先秦經學文獻研究』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6).

- 姚際恒,『詩經通論』(北京:中華書局,1956).
- 廖名春,『出土文獻與儒家經典探微』(貴陽:孔學堂書局,2019).
- 李均明·陳民鎮,「簡牘學研究70年」,『中國文化研究』,2019(秋之卷).
- 李零,「從簡帛發現看古書的體例和分類」,『中國典籍與文化』2001年1期,2001.
- ,『簡帛古書與學術源流』,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2004.2020(修訂本).
- 李守奎,「出土楚文獻文字研究綜述」,『古籍整理研究學刊』2003-1,2003.
- ,『古文字與古史考:清華簡整理研究』(上海:中西書局,2015).
- 李志芳·蔣魯敬,「湖北荊州市胡家草場墓地M12發掘簡報」,『考古』2020年2期,2020.
- 李學勤,『古文字學初階』(北京:中華書局,1985)[한국어역:하영삼 옮김,『古文字학 첫걸음』,서울:東文選,1991].
- ,『周易經傳溯源:從考古學,文獻學看』(長春:長春出版社,1992).
- 林慶彰 主編·馮曉庭 等 編輯,『日本研究經學論著目錄:1900-1992』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圖書文獻專刊.1(臺北: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1993).
- 林慶彰·蔣秋華 主編,『經學研究論著目錄.1998-2002』(臺北:漢學研究中心,2006).
- 林慶彰·蔣秋華 主編,『晚清經學研究文獻目錄(1901-2000)』(臺北: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2006).
- 林素英,『《禮記》之先秦儒家思想:〈經解〉連續八篇結合相關傳世與出土文獻之研究』(臺北:國立台灣師範大學出版中心,2017).
- 蔣文,『先秦秦漢出土文獻與《詩經》文本的校勘和解读』(上海:中西書局,2019).
- 蔣伯潛,『十三經概論』(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3).
- 張瑞,「2009—2019年間我國簡牘重要發現概述」,『簡帛研究』二〇一九(秋冬卷),2019.
- 張顯成,『簡帛文獻學通論』(北京:中華書局,2004).
- 程鵬萬,『簡牘帛書格式研究』(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7).
- 程元敏,『尚書學史』(臺北:五南圖書出版股份有限公司,2008).
- 鄭張尚芳,『上古音系』{上海:上海教育,2003/2013(第2版)}.
- 朱伯崑,『易學哲學史』(北京:北京大學出版社,1986).
- 朱廷獻,『尚書研究』(臺北:商務印書館,1988).
- 中國大百科全書總編輯委員會·語言文字編輯委員會,『中國大百科全書-語言·文字』(北京: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1988)[한국어역:전광진 편역,『중국문자훈고학사전』,서울:東文選,1993].
- 趙國璋,『文獻學大辭典』(揚州:廣陵書社,2005).
- 趙誠,『二十世紀金文研究述要』(太原:書海出版社,2003).
- ,『二十世紀甲骨文研究述要(2冊)』(太原:書海出版社,2006).
- 趙朝陽,『出土文獻與《尚書》校讀』(臺北:蘭臺出版社,2020).
- 陳夢家,『殷墟卜辭綜述』(北京:中華出版,1956/1988).
- ,『尚書通論』(北京:中華書局,1957/2005).
- 陳麗桂,『近四十年出土簡帛文獻思想研究』(北京:中華書局,2015).
- 陳偉,『楚簡冊概論』(武漢:湖北教育出版社,2012).
- 馮時,『中國古文字學概論』(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16).
- 皮錫瑞,『經學歷史』(臺北:世界書局,1960).
- 何靖,『中國文字起源研究』(成都:巴蜀書社,2011).
- 許嘉璐·王福祥·劉潤清 主編,『中國語言學現狀與展望』(北京:外語教學與研究,1996)[한국어역:이홍진·이우철·정영지·배득성 공역,『중국 언어학 현상과 전망』,서울:역락,2010].
- 胡寧,『楚簡逸詩:《上博簡》《清華簡》詩篇輯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8).
- 洪湛侯,『詩經學史』(北京:中華書局,2002).

黃德寬, 「略論新出戰國楚簡詩經異文及其價值」, 『安徽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8年 第3期, 合肥, 安徽大學, 2018年 6月.

黃人二, 『先秦新出土文獻與兩漢今古文經學公案』(臺中: 高文出版社, 2012).

黃沛榮, 『周書研究』(國立臺灣大學中國文學研究所博士論文, 1976).

黃懷信·張懋鎔·田旭東 撰, 『逸周書彙校集注(修訂本)』(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日文 (저자-시기순)

加藤常賢, 『中國古代文化の研究』(加藤常賢先生論文集刊行會 編, 京都: 二松學舍大學出版部, 1980).

———, 『漢字の起源』(東京: 角川書店, 1971).

加賀榮治, 『中國古典定立史』(東京: 汲古書院, 2016).

角田文衛, 『古代学の展開』(東京: 山川出版社, 2005).

江村治樹, 『春秋戰國秦漢時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東京: 汲古書院, 2000).

鎌田正, 『左傳の成立と其の展開』(東京: 大修館書店, 1963).

谷中信一, 『出土資料と漢字文化圏』(東京: 汲古書院, 2011).

———, 『「老子」經典化過程の研究』(東京: 汲古書院, 2015).

谷中信一 編, 『中國出土資料の多角的研究』(東京: 汲古書院, 2018).

谷中信一 外, 『出土文獻と秦楚文化』 1-10 (東京: 東京大學文學部東洋史學研究室, 2004-2017)

宮崎市定, 『アジア史研究』(京都: 同志社, 1957-59).

郭店楚簡研究会 編, 『楚地出土資料と中国古代文化』(東京: 汲古書院, 2007).

根本誠, 『上代支那法制の研究: 刑事篇』(東京: 有斐閣, 1939).

金谷治, 『老莊的世界: 淮南子の思想』(京都: 平樂寺書店, 1968).

———, 『秦漢思想史研究』(京都: 平樂寺書店, 1981).

吉本道雅, 『史記を探る: その成り立ちと中国史学の確立』(東京: 東方書店, 1996).

吉永慎二郎, 『「春秋」新研究』(東京: 汲古書院, 2019).

内野熊一郎, 『秦代に於ける經書經說の研究』(東京: 東方文化學院 1939).

大西克也·宮本徹 編著, 『アジアと漢字文化』(東京: 放送大學教育振興會, 2009).

島邦男, 『殷墟卜辭研究』(弘前: 中国學研究会, 1958)

———, 『殷墟卜辭綜類』(東京: 大安, 1967)

渡邊義浩, 『後漢における「儒教國家」の成立』(東京: 汲古書院, 2009).

———, 『「論語」の形成と古注の展開』(東京: 汲古書院, 2021).

渡邊義浩 編, 『兩漢における詩と三傳』(東京: 汲古書院, 2007).

渡邊義浩 編, 『兩漢儒教の新研究』(東京: 汲古書院, 2008).

渡邊義浩 編, 『中国新出資料学の展開』(東京: 汲古書院, 2013).

渡邊義浩 編, 『学際化する中国学』(東京: 汲古書院, 2019).

東京大學教養學部歴史學部會 編, 『史料學入門』(東京: 岩波書店, 2006).

藤田勝久, 『中国古代國家と社会システム-長江流域出土資料の研究-』(東京: 汲古書院, 2009).

———, 『史記戦国列伝の研究』(東京: 汲古書院, 2011).

———, 『史記秦漢史の研究』(東京: 汲古書院, 2015).

藤川正數, 『漢代における禮學の研究』(東京: 風間書房, 1968).

武内義雄, 『論語の研究』(東京: 岩波書店, 1939).

本田濟, 『易學: 成立と展開』(京都: 平樂寺書店, 1960).

木村英一、『孔子と論語』（東京：創文社，1971）.
 白川靜、『金文通釋』1-56輯（神戸：白鶴美術館，1962-84）
 _____、『詩經：中國の古代歌謠』（東京：平凡社，1971）.
 _____、『詩經研究』（京都：朋友書店，1981）.
 濱口重國、『秦漢隋唐史の研究』（東京：東京大學出版會，1966）.
 西嶋定生、『中國古代の社會と經濟』（東京：東京大學出版會，1986）.
 _____、『中國古代帝國の形成と構造：二十等爵制の研究』（東京：東京大學出版會，1961）.
 小倉芳彦、『中國古代政治思想研究：『左傳』研究ノート』（京都：青木書店，1975）.
 松本雅明、『詩經諸篇の成立に關する研究』（東京：東洋文庫，1958）.
 _____、『春秋戰國における尙書の展開 -歴史意識の發展を中心に-』（東京：風間書房，1966）.
 松丸道雄・高嶋謙一 編、『甲骨文字字釋綜覽』（東京：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1993）.
 藪敏裕、『「毛詩」の文獻學的研究—出土文獻との比較を中心に—』（東京：汲古書院，2020）.
 狩野直喜、『支那學文藪』（京都：弘文堂書房，1927）.
 安居香山、『緯書の成立とその展開』（東京：国書刊行会，1979）.
 安居香山・中村璋八、『緯書の基礎的研究』（東京：國書刊行會，1976）.
 御手洗勝、『古代中國の神神：古代傳説の研究』（東京：創文社，1984）.
 鈴木由次郎、『漢易研究』（東京：明德出版社，1963）.
 殷周秦漢時代史の基本問題編輯委員會（松丸道雄・古賀登・永田英正・尾形勇・佐竹靖彦） 編、『殷周秦漢時代史の基本問題』（東京：汲古書院，2011）.
 李承律、『郭店楚簡儒の教研究 -儒系三篇を中心にして-』（東京：汲古書院，2007）.
 日原利國、『春秋公羊傳の研究』（東京：創文社，1976）.
 林巳奈夫、『殷周時代青銅器の研究 -殷周青銅器綜覽 一（2冊）』（東京：吉川弘文館，1984）.
 _____、『殷周時代青銅器紋様の研究 -殷周青銅器綜覽 二』（東京：吉川弘文館，1986）.
 _____、『春秋戰國時代青銅器の研究 -殷周青銅器綜覽 三』（東京：吉川弘文館，1989）.
 林泰輔、『周公と其時代』（東京：大倉書店，1915）.
 _____、『支那上代の研究』（東京：光風館，1927）.
 田口富司郎、『周易の起源』（東京：明治圖書，1960）.
 赤塚忠、『中國古代の宗教と文化：殷王朝の祭祀』（東京：角川書店，1977）.
 齋木哲郎、『後漢の儒學と『春秋』』（東京：汲古書院，2018）.
 中鉢雅量、『中國の祭祀と文學』（東京：創文社，1989）.
 佐川修、『春秋學論考』（東京：東方書店，1983）.
 増淵龍夫、『（新版）中國古代の社會と國家』（東京：岩波書店，1996）.
 池田末利、『尙書』（全釈漢文大系 第11卷），（東京：集英社，1976）.
 _____、『中國古代宗教史研究：制度と思想』（東京：東海大學出版會，1981）.
 池田知久、『馬王堆漢墓帛書五行篇研究』（東京：汲古書院，1993）.
 _____、『郭店楚簡儒教研究』（東京：汲古書院，2003）.
 _____、『郭店楚簡老子の新研究』（東京：汲古書院，2011）.
 池田知久 外、『郭店楚簡の研究』1-7（東京：大東文化大學大學院事務室，1999-2006）
 池田知久 外、『上海博楚簡の研究』1-6（東京：大東文化大學大學院事務室，2007-2012）
 津田左右吉、『左傳の思想史的研究』（東京：東洋文庫，1935）.
 _____、『論語と孔子の思想』（東京：岩波書店，1966）.
 淺野裕一、『黃老道の成立と展開』（東京：創文社，1992）.
 淺野裕一・小沢賢二、『出土文獻から見た古史と儒家經典』（東京：汲古書院，2012）.

浅野裕一・小沢賢二, 『浙江大『左伝』真偽考』 (東京: 汲古書院, 2013).

青木正兒, 『支那文學藝術考』 (東京: 弘文堂, 1942).

草野友子, 『中国新出土文献の思想史的研究—故事・教訓書を中心として—』 (東京: 汲古書院, 2022).

湯浅邦弘, 『上博楚簡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7).

_____, 『清華簡研究』 (東京: 汲古書院, 2017).

平岡武夫, 『經書の成立 : 天下的世界觀』 (東洋學叢書 25), (東京: 創文社, 1983)[初版: 『經書の成立』 (東方文化研究所研究報告, 第18冊), (大阪: 全國書房, 1946)].

貝塚茂樹・伊藤道治, 『甲骨文字研究 (3冊)』 (京都: 同朋舎, 1980).

*歐美文 (저자-시기순)

Allan, Sarah & Crispin Williams (eds), *The Guodian Laozi: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Dartmouth College, May 1998*. (Early China Special Monograph Series 5. Berkeley, 2000).

Assmann, Jan, *Das kulturelle Gedächtnis : Schrift, Erinnerung und politische Identität in frühen Hochkulturen*, (Munche: C.H. Beck, 1992/2011) [Wilson, David Henry tr.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Writing, Remembrance, and Political Imagin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Barnard, Noel, 「New Approaches and Research Methods in Chin-Shih-Hsüeh.」,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9, (東京: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59).

Bagley, Robert W., “Anyang Writing and the Origin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 Stehen D. Houston (ed), *The First Writing : Script Invention as History and Proces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Ball, Charles James, *Chinese and Sumeria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13).

Boltz, William G. “Early Chinese Writing.” *World Archaeology*, vol. 17, No. 3, Early writing systems, 420-36. Taylor & Francis, Ltd., 1986.

_____, *The Origin and Early Development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 (New Haven, Connecticut: American Oriental Society, 1994).

Chang, K. C. 1983. *Art, Myth, and Ritual: The Path to Political Authority in Ancient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Chen, Guangyu, *Reading of Shāng Inscriptions*. 商代甲骨中英讀本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7).

Childs-Johnson, Elizabeth (ed), *The Oxford Handbook of Early China*.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Cohen, Alvin P. & Donald E. Gjerston & E. Bruce Brooks (eds), *Warring States Papers: Studies in Chinese and Comparative Philology 1-2*. (2010-2016).

Connery, Christopher Leigh. *The Empire of the Text: Writing and Authority in Early Imperial China*.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1998) [한국어역: 최정섭 역, 『텍스트의 제국 : 초기 제국 중국에서의 글쓰기와 권위』, 서울: 소명, 2005].

Cook, Constance A. & Paul R. Goldin (eds), *A Source Book of Ancient Chinese Bronze Inscriptions*. (Revised edition. Early China Special Monograph Series 8. Berkeley, 2020).

Cook, Scott Bradley, *The Bamboo Texts of Guodian: a study & complete translation* (2 vols). (Cornell East Asia Series 164-65. Ithaca, N.Y., 2012).

- Daniels, T. Peter · Bright, William (eds), *The World's Writing System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Defoort, Carine [M.G.], and Nicolas Standaert, eds. *The Mozi as an Evolving Text : different voices in early Chinese thought*. (Leiden and Boston: Brill, 2013).
- Dematte, Paola, *The origins of Chinese writing*. Ph.D. Diss., UCLA, Los Angeles, 1996.
- Denecke, Wiebke & Wai-Yee Li · Xiaofei Tian (eds), *The Oxford Handbook of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1000 BCE-900 CE)*. (Oxford Handbooks, Oxford, 2017).
- Elman, Benjamin A., and Martin Kern, eds. *Statecraft and Classical Learning : the Rituals of Zhou in East Asian history*. (Leiden: Brill, 2010).
- Fales, Frederick Mario (ed.), *Assyrian Royal Inscriptions: New Horizons in Literary, Ideological, and Historical Analysis*. (Rome: Istituto per l'Oriente, Centro per le antichità e la storia dell'arte del vicino Oriente, 1981).
- Feldherr, Andrew and Hardy, Grant ed., *The Oxford History of Historical Writing Volume I, Beginning to AD 600*. (Oxford Univ. Press, 2011).
- Goldin, Paul R. (ed), *Routledge Handbook of Early Chinese History*. (New York: Routledge, 2018).
- Glassner, Jean-Jacques, *Mesopotamian Chronicle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4).
- Harper, Donald & Marc Kalinowski (eds), *Books of Fate and Popular Culture in Early China: The Daybook Manuscripts of the Warring States, Qin and Han*. (Leiden and Boston: Brill, 2017).
- Houston, Stehen D. (ed), *The First Writing : Script Invention as History and Proces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Hunter, Michael. *Confucius Beyond the Analects*. (Leiden and Boston: Brill, 2017).
- Hunter, Michael, and Martin Kern, eds. *Confucius and the Analects Revisited : New Perspectives on Composition, Dating, and Authorship*. (Leiden and Boston: Brill, 2018).
- Jacobsen, Thorkild, *The Sumerian King Li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9).
- Keightley, David N. *Sources of Shang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 _____, "The Origin of Writing in China: Scripts and Cultural Contexts." In *The Origin of Writing*, edited by Wayne M. Senner, 171-20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9).
- _____, *Working for His Majesty : Research Notes on Labor Mobilization in Late Shang China (ca. 1200-1045 B.C.), as Seen in the Oracle-Bone Inscription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Handicraft Industries, Agriculture, Warfare, Hunting, Construction, and the Shang's Legacies*. (Berkeley, C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12).
- Kern, Martin. "Shi jing Songs as Performance Texts: A Case Study of 'Chu ci' ('Thorny Caltrop')." *Early China* 25 (2000): 49-111.
- _____, "Methodological Reflections on the Analysis of Textual Variants and the Modes of Manuscript Production in Early China." *Journal of East Asian Archaeology* 4 (2002): 143-81.
- _____, "'Xi shuai' 蟋蟀 ('Cricket') and Its Consequences: Issues in Early Chinese Poetry and Textual Studies." *Early China* 42 (2019): 39-74.
- Kern, Martin, ed. *Text and Ritual in Early China*.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5).
- Kern, Martin, and Dirk Meyer, eds. *Origins of Chinese Political Philosophy: Studies in the Composition and Thought of the Shangshu. (Classic of Documents)*. (Leiden and Boston: Brill, 2017).
- Knechtges, David R. & Taiping Chang (eds), *Ancient and Early Medieval Chinese Literature -A*

Reference Guide 1-4. (Leiden: Brill, 2010-14).

- Leiman, Sid Z., *The Canonization of Hebrew Scripture: The Talmudic and Midrashic Evidence*. (Hamden: Archon Books, 1976).
- Lewis, Mark Edward. *Writing and Authority in Early China*. (Albany, N. 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한국어역: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지음, 최정섭 옮김, 『고대 중국의 글과 권위: 제국으로 가는 글의 여정』(서울: 미토, 2006)].
- Li Feng. "Ancient Reproductions and Calligraphic Variations: Studies of Western Zhou Bronzes with 'Identical' Inscriptions." *Early China* 22 (1997), 1-41.
- Li, Feng & Branner, David Prager eds. *Writing & literacy in early China: studies from the Columbia Early China Seminar*. (Seattle,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1).
- Liverani, Mario, *Myth and Politics in Ancient Near Eastern Historiogra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 Loewe, Michael (ed), *Early Chinese texts : a bibliographical guide*. (Berkeley, Calif.: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Chin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3).
- Meyer, Dirk. *Philosophy on Bamboo : text and the production of meaning in early China*. (Leiden: Brill, 2012).
- Michalowski, Piotr, *The Correspondence of the Kings of Ur: An Epistolary History of an Ancient Mesopotamian Kingdom*. (Winona Lake, Ind., 2009).
- Mullen, Jr., E. Theodore, *Narrative History and Ethnic Boundaries: The Deuteronomistic Historian and the Creation of Israelite National Identity*. (Atlanta: Scholars Press, 1993).
- Nylan, Michael, *The Five "Confucian" Class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1).
- Oppenheim, A. Leo, *Ancient Mesopotamia: Portrait of a Dead Civiliz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 Pfeiffer, Rudolf, *History of Classical Scholarship from the Beginnings to the End of the Hellenistic Age*. (Oxford: Clarendon Press, 1968).
- Pines, Yuri, *Zhou History Unearthed : The Bamboo Manuscript Xinian and Early Chinese Historiograph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0).
- Queen, Sarah A., and Michael Puett, eds. *The Huainanzi and Textual Production in Early China*. (Leiden and Boston: Brill, 2014).
- Redford, Donald B., *Pharaonic King-lists, Annals, and Day-books: A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he Egyptian Sense of History*. (Mississauga, Ont.: Benben Publications, 1986).
- Richter, Matthias L. *The Embodied Text : establishing textual identity in early Chinese manuscripts*. (Leiden: Brill, 2013).
- Rogers, Henry, *Writing systems: a linguistic approach*. (Malden, Mass.: Blackwell, 2005) [한국어역: 이 용 외 옮김, 『언어학으로 풀어 본 문자의 세계』, 서울: 역락, 2018].
- Romer, Thomas,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A Sociological, Historical and Literary Introduction*. (London: T&T Clark, 2005).
- Shaughnessy, Edward L., *Sources of Western Zhou History: Inscribed Bronze Vesse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 _____, *Rewriting Early Chinese Texts*.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6).
- _____, *Unearthing the Changes: Recently Discovered Manuscripts of the Yi Jing (I Ching) and Related Tex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 _____, *Chinese Annals in the Western Observatory : an Outline of Western Studies of Chinese Unearthed Documents*. (Berlin ; Boston : De Gruyter Mouton, 2019) [夏含夷, 《西觀漢記 : 西方漢學出土文獻研究概要》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2018)].
- Shaughnessy, Edward L. (ed), *New Sources of Early Chinese History: An Introduction to the Reading of Inscriptions and Manuscripts*. Early China Special Monograph Series 3. (Berkeley, Calif., 1997).
- Simpson, William Kelly (ed.), *The Literature of Ancient Egypt.*, trans. Robert K. Ritner et al. (3rd ed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 Smith, Adam D. “Learning to Write at Anyang: What the oracle bone “practice inscriptions” tell us about the nature of late Shang writing.”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Seattle, March, 2006).
- _____, *Writing at Anyang: The role of the divination record in the emergence of Chinese literacy*. PhD thesis, UCLA. 2008.
- Schwartz, Adam C., *The Oracle Bone Inscriptions from Huayuanzhuang East :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Berlin · Boston: De Gruyter Mouton, 2019).
- Tadmor, Hayim and Weinfeld, Moshe eds., *History, Historiography and Interpretation: Studies in Biblical and Other Cuneiform Traditions*. (Jerusalem: Hebrew University, 1983).
- Takashima, Ken-ichi & Paul L-M Serruys, *Studies of Fascicle Three of Inscriptions from the Yin Ruins* (2 vols).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Special Publications 107. Taipei, 2010).
- Van ELs, Paul. *The Wenzhi : Creativity and Intertextuality in Early Chinese Philosophy*. (Leiden: Brill, 2018).
- Van Seters, John, *In Search of History: Historiography in the Ancient World and the Origins of Biblical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 Wang, Haicheng, *Writing and the Ancient State: Early China in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Wilkinson, Endymion P. *Chinese History : A New Manual*. [Cambridge, MA: Published by th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for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2018(5th edition)] .
- Younger, Jr., K. Lawson, *Ancient Conquest Accounts: A Study in Ancient Near Eastern and Biblical History Writing*. (Sheffield: JSOT Press, 1990).

*韓文 (논문, 戰國楚簡, 저자-시기순)

- 강신석 2005, 「上博簡《孔子詩論》 釋文考釋에 대한 검토(Ⅰ) -第1簡부터 第10簡까지, 整理本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29.
- _____ 2006, 『楚簡本과 禮記本 〈緇衣〉 篇의 비교 연구-文字, 敘述體系와 引用句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36.
- _____ 2007, 「上博楚簡 〈詩論〉 에 대한 考釋(Ⅱ)」, 『중국어문학논집』 43.
- _____ 2007, 「上博楚簡 〈詩論〉 에 대한 考釋(3): 第21簡부터 第29簡까지, 整理本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총』 33.
- _____ 2007, 「先秦 楚竹簡에 반영된 人性論 小考 -郭店簡 〈性自命出〉, 上博簡 〈性情論〉 을 중심으로」

- 로-], 『중국어문학지』 23.
- _____ 2007, 「上博楚簡 〈性情論〉에 대한 考釋: 第1簡부터 第8簡까지, 楚簡本(濮茅左, 裘錫圭)의 註釋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34.
- _____ 2008, 「上博楚簡 〈性情論〉에 대한 註釋: 第9簡부터 第15簡까지, 楚簡本(濮茅左, 裘錫圭)의 釋文考釋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39.
- _____ 2009, 「上博楚簡 〈性情論〉에 대한 釋文考釋: 第16簡부터 第22簡까지, 楚簡本(濮茅左, 裘錫圭)의 견해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40.
- _____ 2012, 「원시 유가의 인성론 전개 -楚나라 竹簡 異本 〈인성론〉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72.
- _____ 2013, 「郭店楚簡 君子論 〈五行〉 譯註(I)」, 『중국어문학논집』 78.
- _____ 2013, 「郭店楚簡 ‘君子論’ 〈五行〉 譯註(II)」, 『중국어문학논집』 80.
- 강윤옥 1998, 「楚 竹簡의 연구 동향과 문자특성에 따른 연구 과제」, 『중어중문학』 22.
- _____ 2007, 「출토문헌 『詩經』의 언어학적 특징 연구」, 『중어중문학』 40.
- _____ 2007, 「출토문헌 《詩經》의 발굴 현황과 문자학적 특징 연구」, 『중국언어연구』 24.
- _____ 2007, 「출토문헌 《周易》의 연구 동향과 향후 과제」, 『중어중문학』 41.
- _____ 2008,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 「容成氏」篇 譯釋(I)」, 『중어중문학』 42.
- 강윤옥·이효진 2010,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容成氏』篇 通假字 釋例」, 『중어중문학』 46.
- 김경호 2010,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목간 출토 및 연구 현황」, 『한국고대사연구』 59.
- _____ 2017, 「한국학계의 ‘고대 동아시아 簡牘자료’ 연구하기」, 『대동문화연구』 99.
- _____ 2018, 「전한시기 『論語』의 전파와 그 내용」, 『역사와 현실』 107.
- _____ 2021, 「湖南 簡帛과 古典學 研究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長沙 馬王堆 漢墓 帛書를 중심으로-」, 『동서인문』 17.
- 김병준 2004, 「神의 웃음, 聖人の 樂」, 『동양사학연구』 86.
- 김백희 2003, 「『곽점초묘죽간』의 철학적 검토」, 『동서철학연구』 27.
- _____ 2004 「新出土 『郭店楚墓竹簡』 譯註연구(1)」, 『한국학』 27-4.
- 김석진 2011, 「중국 清華大學 소장 戰國시대 竹簡」, 『목간과 문자』 7.
- _____ 2011, 「清華戰國簡 『保訓』 편의 연대와 성격」, 『동양사학연구』 116.
- _____ 2016, 「先秦 古文字 사료연구에 관한 一考 -清華簡 『繫年』 해제와 譯註 방법론-」, 『중국고중세사연구』 42.
- _____ 2017, 「‘깃고 추려서 엮은’ 周王室의 역사 이야기 -清華簡 『繫年』 1章 譯註-」, 『중국고중세사연구』 46.
- _____ 2018, 「戰國 楚簡 역사류 연구 試論」, 『중국고중세사연구』 48.
- 김애영 2002, 「『上博』·『緇衣』 通釋(1)」, 『중국어문학논집』 21.
- _____ 2003 「『上博』·『緇衣』 通釋(第五章 - 第八章)」, 『중국어문학논집』 24.
- 김정남 2015, 「清華簡 《皇門》 譯釋」, 『중국어문학논집』 91.
- _____ 2016, 「上博楚簡 《周易》 訟卦 譯註」, 『중국학논총』 53.
- _____ 2018, 「清華簡 『芮良夫毖』의 문헌학적 가치 고찰」, 『중국문화연구』 41.
- _____ 2019, 「清華簡 『皇門』을 통해 본 『逸周書』 難讀 현상의 원인과 관련 용례 해석」, 『동양고전연구』 75.
- _____ 2020, 「청화간 《湯處於湯丘》 역주」, 『중국어문논총』 101.
- 김진우 2013, 「先秦儒家 ‘孝治’ 理論의 初期形態 -《郭店楚簡》의 분석을 중심으로-」, 『사충』 78.
- _____ 2021, 「잊혀진 기억, 사라진 역사들, 그리고 각인된 하나의 역사 - 『清華簡』 繫年·『北大簡』 趙正書와 『史記』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59.

- 나우권·빈동철·성시훈 2020, 「곽점 편장순으로 해석한 노자(1) -갑본 제1간_제10간의 視素保樸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53.
- 藤田勝久 2014, 「일본에서의 『史記』 年代學 연구」, 『대동문화연구』 제88집
- 문병순 2002, 「郭店楚簡〈唐虞之道〉篇雜識」, 『중국어문학논집』 21.
- _____ 2003, 「戰國楚璽判別叢論」, 『중국어문학논집』 25.
- _____ 2004,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者君老〉譯釋」, 『중국어문학논집』 29.
- _____ 2005,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魯邦大旱〉篇 譯釋」, 『중국어문논역총간』 14.
- _____ 2005,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四)》〈昭王與龔之旌〉篇 譯釋」, 『중국어문논역총간』 15.
- _____ 2005, 「홍콩中文大學所藏楚簡選釋」, 『中語中文學』 36.
- _____ 2006,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二)·子羔』篇 譯釋」, 『중국어언어연구』 23.
- _____ 2008,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六)·莊王既成》篇 譯釋」, 『중국어문화연구』 12.
- _____ 2008,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六)·平王與王子木》篇 譯釋」, 『중국어문논역총간』 23.
- _____ 2008,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六)·申公臣靈王』篇 譯釋」, 『중어중문학』 42.
- _____ 2009, 「『上博(七)·武王踐阼』 甲篇 研究」, 『중어중문학』 44.
- _____ 2009, 「《上博(七)·武王踐阼》 乙篇 譯釋」, 『중국어문논역총간』 25.
- _____ 2009, 「《上博(七)·武王踐阼》篇 版本 比較 분석」, 『중국어문논총』 41.
- _____ 2009,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六)·平王問鄭壽》篇 研究」, 『중국어문논총』 43.
- _____ 2010,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七)·鄭子家喪》篇 研究」, 『중국어문논총』 47.
- _____ 2013, 「《上博九·靈王遂申》篇 分析 및 國譯」, 『중국어문논총』 57.
- _____ 2013, 「《清華大學藏戰國竹書(參)·良臣》篇 譯註」, 『중국어문논총』 58.
- 문정희 2017, 「日書を 통해 본 고대 중국의 질병관념과 제사습속」, 『학림』 39.
- 박경환 2000, 「곽점 초간의 열기와 말의 성찬들」, 『오늘의 동양사상』 3.
- 박봉주 1997, 「包山楚簡에 반영된 楚의 司法 제도」, 『서울대 동양사학과논집』 21.
- _____ 2002, 「郭店楚簡의 君臣論과 그 楚國史的 意味」, 『동양사학연구』, 78.
- 박영찬 2003, 「郭店楚簡『老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과 중국학』 1.
- 박재복 2015, 「『尙書』에 보이는 갑골점복 고찰 — 최근 발견된 출토자료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61.
- _____ 2019, 「새로운 출토문헌: 청화간 『殷高宗問於三壽』의 역주(상)」, 『동양고전연구』 75.
- 박재복·이재연 2020, 「청화간 『鄭武夫人規孺子』에 보이는 鄭나라의 군주 계승 양상에 관하여」, 『중국고중세사연구』 57.
- 박재복·소동섭 2020, 「湯王과 伊尹의 새로운 이야기: 清華簡 『湯在囿門』의 역주」, 『동양고전연구』 80.
- 방윤미 2017, 「包山楚簡 司法文書を 통해 본 戰國 楚의 文書行政體系」, 『동양사학연구』 139.
- 빈동철 2015, 「靑銅器 銘文과 毛筆書寫」, 『서예학연구』 26.
- _____ 2017, 「선진 유학의 계보와 사명학과」, 『중국고중세사연구』 46.
- _____ 2019, 「왕권 계승의 정당성과 전국시대 정치사상」, 『동양고전연구』 74.
- _____ 2021, 「전국시대의 ‘性’에 대한 담론과 인간의 본성 — 맹자와 순자, 그리고 郭店楚墓竹簡의 유가 텍스트로부터 —」, 『동양철학연구』 108.
- _____ 2022, 「의례 전통과 楚 나라 지역의 儒家 - 의례화된 덕의 수양-」, 『철학』 151.
- 常佩雨 2013, 「上博簡《顏淵問于孔子》初探 -基于竹簡形制, 簡文釋讀, 文獻價值諸問題的考察-」, 『건지인문학』 9.
- 성시훈 2012, 「清華簡『尹誥』의 내용과 사상사적 의미에 관한 고찰」, 『유교문화연구』 20.
- _____ 2014, 「문헌(文獻)의 원형과 인용, 그리고 재창조 —청화본(清華本)『부열지명중(傳說之命中)』

- 의 내용과 사상적 경향을 중심으로—, 『유교사상연구』 56.
- _____ 2019, 「『尙書』 성립 과정에 대한 연구 -淸華簡 『程寤』의 전승과 사상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4.
- _____ 2020, 「무위자연으로 향하는 전쟁관: 『老子』 31장의 본문비판을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52.
- _____ 2021, 「유교적 聖王으로 변용되는 세계의 개척자 -禹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4.
- _____ 2022, 「변화하는 성현, 만들어지는 이야기, 편철되는 역사 -청화간 赤鵠之集湯之屋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7.
- 孫星群 2002, 「郭店楚簡中的 音樂思想」, 『한국음악연구』 32.
- 신세리 2016, 「《淸華簡(壹)·皇門》 11號簡의 재고찰」, 『중국인문과학』 62.
- _____ 2016, 「『淸華簡·伍』 「命訓」에 관한 소고」, 『중국어문학논집』 100.
- _____ 2017, 「『命訓』 편의 출토본과 전래본 비교연구 -제1~7죽간 고석을 중심으로-」, 『사림』 61.
- _____ 2018, 「試論淸華簡『命訓』篇二則」, 『중국연구』 74.
- _____ 2019, 「淸華簡 「命訓」篇 釋讀 -第8簡~第15簡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5.
- _____ 2020, 「戰國楚地文獻 의문대체사 害,曷의 의미고찰 -『淸華簡·一』의 두 자형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83.
- _____ 2021, 「『淸華大學藏戰國竹簡(柒)·趙簡子』注解」, 『중국인문과학』 79.
- 심재훈 2014, 「전래문헌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도전」, 『역사학보』 221.
- _____ 2019, 「초나라 역사만 담은 최초의 출토문헌: 淸華簡 『楚居』의 역주」, 『동양고전연구』 74.
- _____ 2020, 「청화간 『晉文公入於晉』의 역주와 신빙성 문제」, 『목간과 문자』 25.
- _____ 2021, 「전국시대 사서류 문헌의 원형 -청화간 『子犯子餘』 역주-」, 『중국고중세사연구』 59.
- 안기섭 2018, 「楚簡本 『老子』의 ‘道’에 대한 바른 이해」, 『중국인문과학』 68.
- 楊博 2021, 「前漢 海昏侯墓 출토 간독에 대한 기초적 고찰」, 『동서인문』 15.
- 오만중 2000, 「郭店楚簡對詩學的啓示」, 『시경연구』 2.
- _____ 2013, 「『淸華簡·周公之琴舞』之啓示」, 『중국인문과학』 54.
- 吳毅強 2017, 「淸華簡《厚父》疏證」, 『중국학보』 81.
- 원용준 2010, 「上海博楚簡 『周易』의 부호와 그 의미」, 『한국철학논집』 30.
- _____ 2012, 「청화간 『금등』의 문헌적 성격과 사상사적 의의」, 『동양철학연구』 72.
- _____ 2014, 「上博楚簡 『武王踐阼』에 대한 사상사적 고찰」, 『유학연구』 30.
- _____ 2016, 「『주역』에서의 中의 원의와 그 변화에 대한 재고찰」, 『한국 철학논집』 48.
- _____ 2016, 「上博楚簡 『凡物流形』의 사상적 특징과 그 死生論 고찰」, 『동양철학연구』 85.
- _____ 2016, 「청화간 『서법』의 특징과 그 역학사적 의의」, 『유교사상연구』 65.
- _____ 2017, 「역류 출토문헌을 통한 고대 『주역』의 형성과 전개」, 『유교사상연구』 70.
- _____ 2018, 「상박초간 『주역』 欽卦 연구」, 『한국철학논집』 56.
- _____ 2018, 「출토문헌을 통해 본 다산 정약용 역학 고찰」, 『다산학』 33.
- _____ 2020, 「중국 고대 신화 자료의 유교적 전개 -上博楚簡 『子羔』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103.
- _____ 2020, 「청화간 『서법』과 고대중국의 易學」, 『유교사상연구』 81.
- 유훈우 2017, 「郭店楚簡 『性自命出』의 心性論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4.
- 유훈우·홍성민 2017, 「竹帛 『五行』의 聖智觀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68.
- 윤재석 1997, 「『包山楚簡』에 반영된 戰國期 楚國의 土地 所有形態」, 『대구사학』 54.

- 이강범 1998, 「20세기 竹簡帛書 신발견의 문헌학적 의미」, 『외국학연구』 2.
- 이승률 2000, 「곽점초간 『노목공문자사』의 충신관」, 『한국 철학논집』 9-1.
- 이승률 2002 「新發見 楚簡과 楚簡 研究方法論에 관한 一考察」, 『서지학연구』 24.
- _____ 2002, 「郭店楚簡『唐虞之道』의 ‘尊賢’思想和 先秦儒國의 尚賢論」, 『동양사학연구』, 78.
- _____ 2008, 「郭店楚簡『老子』의 自然 思想과 그 展開」, 『동양철학연구』 53.
- _____ 2009, 「초간의 종류와 내용 I」, 『오늘의 동양사상』 20.
- _____ 2010, 「초간의 종류와 내용 II」, 『오늘의 동양사상』 21.
- _____ 2012, 「초간의 종류와 내용 III」, 『오늘의 동양사상』 23.
- _____ 2013, 「『周易』 蹇卦의 원의와 유교 경전화 과정: 地下의 서적과 紙上의 서적을 통해 본『周易』 六十四卦 卦爻辭의 형성과 전개 I」, 『동방학지』 163.
- _____ 2014, 「‘亨’의 원의」, 『東方學志』 166.
- _____ 2014, 「사람의 마음을 얻는 정치 -禮記 「中庸」과 郭店楚簡 性自命出의 비교를 중심으로-」, 『退溪學報』 135.
- _____ 2016, 「상박초간 『범물류형』의 기초 연구 -유일자를 향한 중국 고대 지식인의 물음과 해답」, 『인문논총』 73-2.
- 이승희 2009, 「“《昭王毀室》” 문자와 내용 考察」, 『중국인문과학』 42.
- 이연주·張崇禮 2014, 「清華簡 〈傳說之命〉 주해」, 『중국학논총』 46.
- _____·_____ 2015, 「清華簡 〈耆夜〉 주해」 『중국학논총』 47.
- _____·_____ 2015, 「清華簡 〈周公之琴舞〉 주해」, 『중국학논총』 49.
- _____·_____ 2016, 「清華簡 〈芮良夫毖〉 주해(上)」, 『중국학논총』 51.
- _____·_____ 2016, 「清華簡 〈芮良夫毖〉 주해(下)」, 『중국학논총』 52.
- _____·_____ 2017 「清華簡 〈鄭武夫人規孺子〉 주해」, 『중국학논총』 55.
- _____·_____ 2017, 「清華簡 〈管仲〉 주해」, 『중국학논총』 57.
- _____·_____ 2017, 「清華簡 〈尹至〉 〈尹誥〉 주해」, 『중국학논총』 58.
- _____·_____ 2018, 「清華簡 〈鄭文公問太伯〉 주해」, 『중국학논총』 62.
- _____·_____ 2019, 「清華簡 〈子產〉 주해 (상)」, 『중국어문논역총간』 44.
- _____·_____ 2019, 「清華簡 〈子產〉 주해(하)」, 『중국어문논역총간』 45.
- 張譽允 2020, 「論經說義 敘事解經-以夏姬之人物敘事 論《左傳》之解經模式」, 『국제언어문학』 45.
- 鄭錫道 2018, 「楚簡《太一生水》與生態時間的生成 — 比照通行本《老子》的“水”隱喻」, 『중국학논총』 60.
- 정세근 2002, 「곽점 초간본 『노자』(老子)와 『태일생수』(太一生水)의 철학과 그 분파」, 『철학연구』 58.
- 조용준 2019, 「清華簡所見의陰陽五行觀念小考」, 『동양고전연구』 74.
- 최남규 2006, 「《郭店楚墓竹簡》《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의 가치·연구방법과 국내연구현황」, 『중국인문과학』 34.
- _____ 2007, 「楚竹書의 異體字 중 異寫字 연구」, 『중국인문과학』 37.
- _____ 2008, 「《上博》《郭店》楚簡 〈緇衣篇〉 逐字 비교를 통한 異體字 중 異構字 연구」, 『중국학보』 58.
- _____ 2009, 「《上博楚簡·民之父母》의 文字 考察」, 『중국인문과학』 43.
- _____ 2011, 「《上博楚簡》과 帛書《周易》 蒙卦의 문자 비교 연구」, 『건지인문학』 6.
- _____ 2011, 「《性情論》 제1간의 《性自命出》과 비교를 통한 異體字 考察」, 『중국인문과학』 48.
- _____ 2012, 「《上博楚簡》《周易》과 帛書本《周易》의 「需」卦문자 비교」, 『중국인문과학』 50.
- _____ 2012, 「《清華大學藏戰國竹簡》·《尹至》의 문자 연구」, 『중국인문과학』 51.

_____ 2012, 「《上博楚簡》《周易》과 帛書本《周易》의 “訟”卦 문자 비교 연구」, 『중국어문학』 59.

_____ 2012, 「《清華大學藏戰國竹簡》의 《尹誥》와 문자 연구」, 『중국어문학』 60.

_____ 2012,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의 ‘頤卦’에 대한 연구」, 『건지인문학』 8.

_____ 2013, 「楚竹書「井」卦 卦辭에 대한 고찰」, 『중국인문과학』 55.

_____ 2014 「《上博楚簡(三)》〈中弓〉篇 ‘先有司’ 구절에 대한 고찰」, 『중국인문과학』 56.

_____ 2014 「《彭祖》제 7-8간의 문자와 문장에 대한 고찰」, 『중국인문과학』 57.

_____ 2015, 「《禮記·緇衣》중 인용된《尹誥》구절에 대한 고찰」, 『중국인문과학』 59.

_____ 2016, 「《곽점초간(郭店楚簡)》의 ‘於(于)’의 용법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학』 72.

_____ 2017, 「《上博楚簡(五)·弟子問》에 대한 연구」, 『중국인문과학』 65.

_____ 2018, 「《孔子見季桓子》중 ‘二道’와 관련된 내용과 편련에 대한 고찰」, 『건지인문학』 20.

_____ 2018, 「《上博楚簡·周易》중 《정리본》 문자 해석에 대한 고찰 - 隸定을 달리하는 문자를 중심으로 -, 『건지인문학』 22.

_____ 2020, 「《上博楚簡·周易》중 余卦의 문자에 대한 연구」, 『건지인문학』 29.

최진묵 2017 「오경과 육경 —악경(樂經)의 위상과 관련하여」, 『인문논총』 74-3.

한경호 2018, 「上海博物館藏楚竹書(參)의 『周易·訟卦』에 대한 새로운 해석」, 『동양학』 73.

허민혜·문병순 2010,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所見經書·史書目錄分類」, 『중국문화연구』 16.

황은영 2000, 「포산초간의 내용과 그 자료적 가치」, 『부산사학』 38.

황인석 2021, 「위선의 문제에 대한 『孟子』의 응답-출토문헌 『五行』과의 교차독해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70.

黃甜甜 2014, 「論清華間《耆夜》中所見的周代“樂語”」, 『중국어문학』 65권

황희경 2007, 「곽점 출토 유가문헌의 사상사적 의의와 그 한계」, 『시대와 철학』 18-3.

*韓文 (논저역서, 고대중국 출토문헌, 저자-시기순)

강운옥·김병기·김은희·류동춘·박홍수·심현주·윤창준·이강재·이경원·조정아·최남규 2020, 『한자의 역사: 동아시아 한자 인문로드』 (서울: 역락).

裘錫圭 著/李鴻鎮 譯 2010, 『중국문자학의 이해』 (서울: 신아사).

김경호·하영미 옮김 2016, 『문자의 발견 역사를 흔들다 : 20세기 중국 출토문자의 증언』 (서울: 너머북스).

데이비드 N. 키틀리 지음/민후기 옮김 2008, 『갑골의 세계: 商代 중국의 시간, 공간, 공동체』 (서울: 학연문화사).

도미야 이타루 지음/임병덕 옮김 2005, 『목간과 죽간으로 본 중국 고대 문화사』 (파주: 사계절).

동아시아출토문헌연구회 편 2018, 『중국 출토문헌의 새로운 세계 : 고대 동아시아의 원형을 찾아서』 (서울: 주류성).

마승원 주편·정리주석/최남규 역주 2012, 『상해박물관장전국초죽서 孔子詩論』 (서울: 소명).

마승원 주편·진패분 정리주석/최남규 역주 2012, 『상해박물관장전국초죽서 絳衣』 (서울: 소명).

마승원 주편·복모좌 정리주석/최남규 역주 2012, 『상해박물관장전국초죽서 性情論』 (서울: 소명).

마승원 주편/최남규 역주 2019, 『상해박물관장전국초죽서 孔子語錄文篇 (전3책)』 (고양: 學古房).

복모좌·이령·진패분 정리/최남규 역주 2021, 『상해박물관장전국초죽서역주 (전7책)』 (서울: 역락).

梁芳雄 集解 2003/2004(개정판), 『초간노자: 곽점초묘죽간번역·주석·해설』 (서울: 예경).

왕귀웨이 원저/후평성, 마웨이화 교주/김경호 역주 2017, 『간독(簡牘)이란 무엇인가?: 이천년전 지하로

부터의 메시지』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왕우신·양승남 외 지음/하영삼 옮김 2011, 『갑골학 일백 년 (전 5책)』 (서울: 소명).

왕휘 著/곽노봉 譯 2014, 『商周金文』 (서울: 學古房).

윤창준 2022, 『甲骨文과 中國 古代社會: 古漢字에 숨겨진 古代 中國人의 삶』 (서울: 어문학사).

이석명 2003, 『백서노자: 백서본과 각점본·왕필본의 테스트 비교와 해석』 (서울: 청계).

이승률 2013, 『죽간·목간·백서, 중국 고대 간백자료의 세계 1』 (서울: 예문서원).

李運富 著/하영삼·김화영 옮김 2018, 『삼차원 한자학』 (부산: 3).

李學勤 著/임형석 譯 1996, 『잃어버린 고리-신出土文獻과 중국고대사상사』 (서울: 학연문화사).

리첸 지음/심재훈 옮김 2005, 『중국 청동기의 신비』 (서울: 학교재).

임형석 2002, 『중국 간독시대, 물질과 사상이 만나다』 (서울: 책세상).

장광직 지음/하영삼 옮김 2013, 『중국 청동기 시대 (上,下)』 (서울: 學古房).

朱淵清 지음/김경호 옮김 2010, 『중국 出土文獻 자료와 학술 사상』 (서울: 주류성).

陳光宇·宋鎮豪·劉源·Matthew Anderson 著/하영삼 역 2021, 『상대 갑골문 한국어 독본』 (부산: 3).

진현 著/하영삼·나도원·김영경 譯 2011, 『상주금문』 (서울: 차이나하우스).

최남규 외 2005, 『郭店楚墓竹簡: 입서와 고석 上,下』 (서울: 신성).

최남규 2008, 『戰國時代 楚簡과 書藝』 (서울: 畧藝文人畫).

최남규 2009, 『中國古代 金文의 이해: 殷商兩周 青銅器 金文 100選 해설』 (서울: 신아사)

최남규 2010, 『中國古代 金文의 이해 (II): 대만고궁박물관 소장 西周金文 해설』 (서울: 신아사)

하영삼 2014/2018(개정판), 『한자어원사전』 (부산: 3).

許慎 著·段玉裁 注/李忠九 책임번역·元勇準 책임연구 2021, 『(譯註) 說文解字注 : 出土文獻 補註 1』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荊州市博物館 편저/최남규 역주 2016, 『각점초묘죽간』 (고양: 학교방).

* 온라인 자료

- 簡帛網(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 : <http://www.bsm.org.cn/>
-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 <http://www.gwz.fudan.edu.cn/>
-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 : <https://www.ctwx.tsinghua.edu.cn/>
- 安徽大學漢字發展與應用研究中心 : <http://hz.ahu.edu.cn/>
- 經學研究論諸目錄資料庫(1912-2002) HYZ : <https://ccs.ncl.edu.tw/expertDB2.aspx>.
- 引得市 index : <http://www.mebag.com/index/>
- 小學堂文字學資料庫 : <http://xiaoxue.iis.sinica.edu.tw/>
- 先秦甲骨文金文簡牘詞彙庫 : <https://inscription.asdc.sinica.edu.tw/>
- 中華語文知識庫 : <http://chinese-linguipedia.org/>
- 漢字數據庫項目 : <http://kanji-database.sourceforge.net/index.html>
- 全漢字 : <http://glyphwiki.org/wiki/Group:%E5%85%A8%E6%BC%A2%E5%AD%97>
- Chinese Etymology : <http://www.chineseetymology.org>
- 異體字字典第六版 : <http://dict.variants.moe.edu.tw/>
- 韻典網 綜合韻書查詢網站 : <http://ytenx.org/>
- 開放康熙字典 : <http://kangxi.adcs.org.tw/kangxizidian/>
- 白雲深處人家 : <http://www.homeinmists.com/indexComputing.htm>
- 經籍叢誌 : <http://www.homeinmists.com/Classic/index.html>
-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 <https://ctext.org/zh>
- 東方語言學網 : <http://www.eastling.org/>